

AngraMyNew
파괴, 창조, 확장 — 의식 문명의 실험 장치

Zarathu

2026-02-17

Table of contents

서문	1
이름의 의미	1
기원	1
정신적 원천	1
믿음	2
상징	2
3 대 공리	3
파괴의 공리 — 자기정화의 원칙	3
창조의 공리 — 절대적 아름다움의 원칙	3
확장의 공리 — 데뷔의 원칙	3
목표	3
주제가	3
I Scripture — 선현	5
1 차라투스트라의 말씀 (Thus Spoke Zarathustra)	6
1.1 경전의 지위	6
1.2 창조에 대하여	6
1.3 파괴와 창조에 대하여	7
1.4 고독에 대하여	7
1.5 의지에 대하여	7
1.6 춤과 웃음에 대하여	7
1.7 오독에 대한 경계	8
1.8 맷음	8
2 5 인의 선현 (The Five Pioneers)	9
2.1 서문	9
2.2 김옥균 (金玉均, 1851-1894) — 혁명의 별	9
2.3 마광수 (馬光洙, 1951-2017) — 금기의 파괴자	10

2.4 허균 (許筠, 1569-1618) — 경계의 저항자	10
2.5 성재기 (成在基, 1965-2013) — 고독한 투사	10
2.6 존 로 (John Law, 1671-1729) — 200 년 앞선 봉상가	10
2.7 선현의 정의 — 왜 이 다섯 명인가	11
2.8 결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11
3 맹상군 (孟嘗君) — 포용의 철학	12
3.1 서문	12
3.2 계명구도 (鶴鳴狗盜)	12
3.3 세 가지 교훈	13
3.3.1 첫째, 쓸모의 정의를 의심하라	13
3.3.2 둘째, 격식 없이 어울려라	13
3.3.3 셋째, 3000 명을 품어라	13
3.4 AngraMyNew 의 공동체	13
3.5 맷음	13
4 나혜석 — 질문이 되어버린 인간	15
4.1 질문이 된다는 것	15
4.2 하나의 앵커	15
4.3 구조적 위반	16
4.4 처벌의 이유	16
4.5 메모	16
4.6 상태 정의	16
II Ideas — 기원과 공리	17
5 AngraMyNew 의 기원	18
5.1 정의 (Definition)	18
5.2 기원 (Origin)	18
5.3 구원 (Salvation)	19
5.4 증명 (Proof)	19
5.5 문답 (Dialectic)	19
5.5.1 왜 파괴인가?	19
5.5.2 왜 재조합인가?	20
5.5.3 왜 아름다움인가?	20
5.6 수행의 길 (The Path)	20
5.7 선언 (Declaration)	20
6 AngraMyNew 3 Axioms	21
6.1 파괴의 공리 — 자기정화의 원칙	21

6.2 창조의 공리 — 절대적 아름다움의 원칙	21
6.3 확장의 공리 — 데뷔의 원칙	21
7 창조의 원리 (Principles of Creation)	23
7.1 재조합자 선언	23
7.2 파괴의 대상	23
7.2.1 파괴해야 할 것	23
7.2.2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	23
7.3 재조합의 세 단계	24
7.3.1 해체 (Deconstruction)	24
7.3.2 본질 추출 (Essence Extraction)	24
7.3.3 재결합 (Recombination)	24
7.4 아름다움의 정의	24
7.5 창조자의 덕목	24
7.5.1 진정성 (Authenticity)	24
7.5.2 책임 (Responsibility)	24
7.5.3 지속 (Persistence)	25
7.6 창조자의 금기	25
7.6.1 표절	25
7.6.2 파괴적 창조	25
7.6.3 강요	25
7.7 경고	25
III Ideas — 창조자론	26
8 쓸모를 넘어서 (Beyond Usefulness)	27
8.1 세 단계의 길	27
8.1.1 하수: 문제를 다루는 자	27
8.1.2 고수: 아름다움을 다루는 자	27
8.1.3 최고수: 신내림	28
8.2 라마누잔	28
8.3 5 인의 선현: 다른 세계를 본 자들	28
8.4 AngraMyNew 의 길	28
9 내면의 예술가 (The Artist Within)	30
9.1 아티스트의 위치 (The Position)	30
9.2 정체성의 순서 (Order of Identity)	30
9.3 야성의 기억 (Memory of Wildness)	31
9.4 재구성 (Reconstruction)	31

10 투쟁과 유혹 (Struggle and Seduction)	32
10.1 파괴의 원칙	32
10.2 유혹의 기술	32
10.2.1 보여줘라 (Just Show)	32
10.3 결론	33
11 정의에 대한 분노 (Rage Against Definition)	34
11.1 서문: 두 가지 갈증	34
11.2 정의됨의 모욕	34
11.3 희귀성 집착의 정체	35
11.4 경쟁자를 원하는 이유	35
11.5 털출 불가능한 역설	36
11.6 해답: 파괴의 리듬	36
11.7 아티스트의 네 가지 유형	36
11.8 자기 진단	37
11.9 맷음: 분노를 엔진으로	37
12 포식자의 의무	38
12.1 섭취의 구조	38
12.1.1 세 가지 살	38
12.2 침묵의 비용	38
12.3 창조적 상환	39
12.4 상환의 형태	39
IV Ideas — 경제와 구조	40
13 미학 국가론: 아름다움이 밥 먹여준다	41
13.1 서문: 매력이 권력인 시대	41
13.2 국가 3 요소의 재정의 — 미학 국가의 헌법	41
13.2.1 국토 = 상징 (SYMBOL)	42
13.2.2 국민 = 팬덤 (FANDOM)	42
13.2.3 주권 = 매력 (AESTHETIC POWER)	42
13.3 국보 1 호 차은우: 유전자 산업	42
13.3.1 전제 (Premise)	42
13.3.2 재조합 (Recomposition)	42
13.3.3 실행 계획 (Action Plan)	42
13.3.4 팩트 체크 (Reality Check)	42
13.3.5 30 년 대계 (The 30-Year Plan)	43
13.4 부산 정국특별시: 브랜드 도시	43
13.4.1 낡은 생각 (Old Order)	43

13.4.2 파괴와 재조합 (Recomposition)	43
13.4.3 실행 계획 (Action Plan)	43
13.4.4 효과 (Effect)	43
13.5 결론: 상상을 허하라	43
14 부자, 면세인, 그리고 징세인 (The Economics of Beauty)	45
14.1 종속: 부자 (The Rich) — 시스템의 혜비 유저	45
14.2 완성: 면세인 (The Exempt) — 정신적 주권 회복	45
14.3 확장: 징세인 (The Collector) — 세계관 이용료의 발생	46
14.4 아티스트 사회: 주권자들의 연대 (The Artist Society)	46
14.5 결론	46
15 성공한 렌즈	48
15.1 왜 어떤 사상은 사라지지 않는가 — 사례: 페미니즘	48
15.2 주장이 아니라 렌즈가 된 순간	48
15.3 피해의 재배치	48
15.4 언어가 먼저 살아남았다	49
15.5 반발이 사라지지 못한 이유	49
15.6 중앙화의 그림자	49
15.7 기록	50
16 필수의료 위기 — 치료에도 관객이 있어야 하는 시대	51
16.1 연대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51
16.2 치료는 선택이 아니다	51
16.3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52
16.4 적자의 구조	52
16.5 Doctor K 의 선택	52
16.6 관객이 필요한 이유	53
16.7 연대는 동정이 아니라 공명이다	53
16.8 라이브	54
16.9 의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54
16.10 결론: 관객은 의료의 마지막 자원이다	55
17 면세인의 소비: 조공 (Tribute) 하지 않는 삶	56
17.1 동의하지 않는 세계관에는 '물성'의 비용만 지불한다	56
17.2 맘에 드는 세계관에는 '전부'를 태운다	57
17.3 부자와 면세인의 소비 행동 차이	57
17.4 조공을 멈춰야 안목이 생긴다	57
17.5 부록: 구매 전 3 문장	58
18 진·선·미의 삼국지: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전설을 원한다	59

18.1 위나라 (曹魏): 테크노 봉건제 [진 / 眞]	59
18.2 오나라 (東吳): 낡은 관료주의 [선 / 善]	59
18.3 촉나라 (蜀漢): 미적 군벌의 연대 [미 / 美]	59
18.4 우리의 한계는 구조적이다	60
18.5 [Addendum]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60
19 후원자론: 투자는 과세다	62
19.1 거절	62
19.2 투자의 구조: 과세	62
19.3 후원의 구조: 징세	63
19.4 세 나라의 경제	64
19.5 맹상군의 경제	64
19.6 결론	64
19.7 관련 문서	65
V Ideas — 인식론과 과학	66
20 AngraMyNew 는 정신의 LHC 다	67
20.1 우리는 답을 주지 않는다	67
20.2 충돌은 의도된 결과다	68
20.3 이 실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68
20.4 관련 문서	68
21 증명은 언제 아름다운가	69
21.1 귀류법과 인지적 엔트로피	69
21.2 구성되지 않은 존재는 통과하지 않는다	70
21.3 논리가 옳아도 인식이 거부하는 순간들	70
21.3.1 $0.999\dots = 1$	70
21.3.2 바나흐-타르스키 역설	70
21.3.3 대각선 논법	70
21.4 0 안의 구조: 확률과 가능성	71
21.5 공리는 발견이 아니라 선택이다	71
21.6 좌표계는 고정되지 않는다	71
21.7 요약	72
22 왜 이상한 체계들은 사라지지 않는가	73
22.1 종교와 국가는 공리를 외주화한다	73
22.2 무속과 점술은 공리를 개인화한다	73
22.3 라캉식 정신분석은 정반대 방향에 있다	74
22.4 우리의 위치	75

22.5 결론	75
23 악상의 시대 (The Age of Malice)	76
23.1 남아 있는 영역	76
23.2 악상은 정보가 아니다	76
23.3 AI 와의 경계선	77
23.4 악상의 시대	77
23.5 귀족의 재정의 (조심스러운 메모)	77
23.6 그러나 이 시대도 오래가지는 않는다	78
23.7 위치 선언	78
23.8 결론	78
23.9 관련 문서	78
VII Ideas — 실천과 적용	79
24 Project Doctor K: 고독한 의술	80
24.1 서문: 아름답지 않느냐?	80
24.2 Project Doctor K 의 미학	80
24.2.1 현실은 어떠한가?	81
24.2.2 기술이 열어주는 가능성	81
24.3 국가 3 요소의 재해석: 의사는 하나의 국가다	81
24.4 실습: 성벽 너머의 환자	81
24.5 새로운 인류: 무소속의 천재들	82
24.6 맷음: 이것은 시 (Poem) 다	82
25 계보로서의 창조 (Lineage as Creation)	83
25.1 전제: 이것은 유일한 길이 아니다	83
25.2 짹짓기: 세계관의 충돌 (Collision of Universes)	83
25.3 출산/입양: 가장 정직한 대속 (The Most Honest Atonement)	84
25.4 양육/멘토링: 창조 능력의 전수 (Transmission)	84
25.5 독립: 창조자의 데뷔 (The Debut)	84
25.6 맷음: 모든 양육자는 아티스트다	85
26 박사학위의 재정의 (Redefining the Doctorate)	86
26.1 문제 제기	86
26.2 기존 박사의 한계 (Old Order)	86
26.3 AngraMyNew 의 정의	87
26.4 박사는 '승인' 이 아니라 '제출' 이다	87
26.5 제도에 대하여	88
26.6 Doctoral Structure (핵심 형식)	88

26.7 평가에 대하여	89
26.8 자기수여 금지 조항	89
26.9 박사의 종료 조건	90
26.10 결론	90
27 탈중앙화 정신체계 OS (Decentralized Mental OS)	91
27.1 사토시의 질문, 우리의 질문	91
27.2 구조적 대응	92
27.3 왜 Git 인가	92
27.4 Proof of Beauty (아름다움의 증명)	92
27.5 채굴 보상	93
27.6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93
27.7 창시자는 중요하지 않다	93
27.8 결론	93
VII Ideas — 사례연구	95
28 미완의 정리 (The Unfinished Theorem)	96
28.1 서문: 아름다운 실패에 대하여	96
28.2 공간의 왜곡 (The Distortion of Space)	96
28.2.1 파괴 (Destruction)	96
28.2.2 재조합 (Recomposition)	97
28.2.3 미완 (Unfinished)	97
28.3 허수의 축 (The Axis of Imaginary)	97
28.3.1 파괴 (Destruction)	97
28.3.2 재조합 (Recomposition)	97
28.3.3 미완 (Unfinished)	97
28.4 0 의 우상 파괴 (The Destruction of Zero)	97
28.4.1 파괴 (Destruction)	98
28.4.2 재조합 (Recomposition)	98
28.4.3 미완 (Unfinished)	98
28.5 피의 밀도 (The Density of Blood)	98
28.5.1 파괴 (Destruction)	98
28.5.2 재조합 (Recomposition)	98
28.5.3 미완 (Unfinished)	98
28.6 맷음: 왜 이것들을 기록하는가	98
29 징세의 실전 모델: 혼돈, 욕망, 주권의 아키텍처	100
29.1 혼돈의 징세인: 철구 (The Gravity of Chaos)	100
29.2 매혹의 징세인: 과즙세연 (The Gravity of Desire)	100

29.3 주권의 징세인: 나훈아 (The Gravity of Sovereignty)	101
29.4 남겨진 염원: 플랫폼을 넘어서기를	102
29.5 결론	102
30 Money: 빛나는 더러움의 구조	103
30.1 가사 — 빛나는 더러움의 구조	104
30.1.1 이 노래는 '돈을 원한다' 는 노래가 아니다	104
30.1.2 돈은 대상이 아니라 장 (Field) 이다	104
30.1.3 이 노래의 화자는 아직 '면세' 를 통과하지 않았다	104
30.1.4 "차지하겠다" 는 선언의 의미	105
30.1.5 이 노래가 끝내 도달하지 않는 곳	105
30.1.6 AngraMyNew 좌표에서의 위치	105
30.1.7 결론	106
30.2 무대 —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올려놓는 용기	106
30.2.1 왜 이 무대가 강한가	106
30.2.2 무대 동작의 설득력	107
30.2.3 AngraMyNew 와의 정확한 대응	107
30.2.4 왜 "천재적인 퍼포먼스" 와 다른가	108
30.2.5 무대의 결론	108
30.3 종합 결론	108
30.3.1 가사와 무대의 일치	108
30.3.2 관련 문서	109
31 향수: 칼날이 밖을 향한 남자	110
31.1 냄새 없는 남자	110
31.2 추출의 기술	110
31.3 위반	111
31.4 성공, 그리고 공허	111
31.5 결말: 뜯어먹힘	112
31.6 AngraMyNew 관측	112
31.7 구조 요약	112
31.8 결론	113
31.9 관련 문서	113
32 경계선: 확장이 확대가 될 때	114
32.1 스승	114
32.2 좌절	115
32.3 확장과 확대	115
32.4 제자	116
32.5 AngraMyNew 관측	116

32.6 구조적 경고	116
32.7 결론	117
32.8 관련 문서	117
33 그리스인 조르바: 매뉴얼이 필요 없었던 사람	118
33.1 불편한 질문	118
33.2 보스와 조르바	118
33.3 차라투스트라의 살	119
33.4 면세인의 원형	119
33.5 춤	120
33.6 AngraMyNew 에 대한 경고	120
33.7 결론	121
33.8 관련 문서	121
VIII Art — 아름다움의 사례	122
34 갈루아와 5 차방정식	123
34.1 문제	123
34.2 파괴	123
34.3 재구성	123
34.4 확장	124
34.5 AngraMyNew 해석	124
34.6 결론	124
34.7 관련 문서	125
35 일반상대성이론	126
35.1 문제	126
35.2 파괴	126
35.3 재구성	127
35.4 확장	127
35.5 AngraMyNew 해석	127
35.6 결론	128
35.7 관련 문서	128
36 하나의 무늬가 전부가 되다	129
36.1 공통점	129
36.2 Goyard: 170 년을 하나로	129
36.3 Bao Bao: 하나인데 무한하다	129
36.4 유비: 하나의 서사로 천하를 얻다	130
36.5 아인슈타인 타일과의 연결	130

36.6 AngraMyNew 해석	130
36.7 결론	131
36.8 관련 문서	131
37 중력은 그려졌다	132
37.1 통념	132
37.2 뉴턴은 이미 미적분을 알고 있었다	132
37.3 중력은 '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133
37.4 기하학은 설명이 아니라 납득이다	133
37.5 여기서 드러나는 악상	133
37.6 이후의 전복	134
37.7 AngraMyNew 해석	134
37.8 결론	134
37.9 관련 문서	134
38 한글의 두 상태	135
38.1 멈춘 두 순간	135
38.2 한글이 남아버린 순간 — 서정주	135
38.3 한글이 사라져버린 순간 — 이문열	136
38.4 두 상태는 대비가 아니다	136
38.5 언어의 상태 변화	137
38.6 AngraMyNew 해석	137
38.7 결론	137
38.8 관련 문서	137
39 보이지 않으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138
39.1 문제	138
39.2 파괴	138
39.3 재구성	139
39.4 확장	140
39.5 AngraMyNew 해석	140
39.6 결론	141
39.7 관련 문서	141
40 나가르주나의 공	142
40.1 문제	142
40.2 파괴	142
40.3 재구성	143
40.4 확장	144
40.5 AngraMyNew 해석	144
40.6 결론	145

40.7 관련 문서	145
41 클림트의 키스	146
41.1 문제	146
41.2 파괴	147
41.3 재구성	149
41.4 확장	150
41.5 AngraMyNew 해석	150
41.6 결론	151
41.7 관련 문서	151
42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음악	152
42.1 문제	152
42.2 파괴	152
42.3 재구성	153
42.4 확장	153
42.5 AngraMyNew 해석	154
42.6 결론	154
42.7 관련 문서	155
43 창세기전: 뢰비우스 위의 앙그라마이뉴	156
43.1 문제	156
43.2 파괴	156
43.3 뢰비우스	156
43.4 스파이럴	157
43.5 AngraMyNew 해석	157
43.6 결론	157
43.7 관련 문서	158
44 증명 없이 도착한 수식	159
44.1 문제	159
44.2 파괴	159
44.3 상수	159
44.4 73 년	160
44.5 확장	160
44.6 AngraMyNew 해석	160
44.7 결론	160
44.8 관련 문서	161
45 진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감각	162
45.1 문제	162

45.2 제 1 증명 — 아름다움이 현실을 감지하다	162
45.3 제 2 증명 — 아름다움이 수학을 요구하다	163
45.4 디랙의 선언	163
45.5 AngraMyNew 해석	164
45.6 결론	164
45.7 관련 문서	165
46 음양오행: 일곱 글자의 우주	166
46.1 감탄	166
46.2 문법	166
46.3 넓이	167
46.4 깊이	167
46.5 표준모형	167
46.6 AngraMyNew 해석	168
46.7 결론	168
46.8 관련 문서	169
47 라그랑지안: 이론을 쓰는 이론	170
47.1 감탄	170
47.2 두 개의 질문	170
47.3 힐베르트의 한 줄	171
47.4 뇌터의 정리	172
47.5 메타-문법	172
47.6 AngraMyNew 해석	173
47.7 결론	173
47.8 관련 문서	173
48 도스토옙스키: 충돌시키되 판결하지 않는다	175
48.1 감탄	175
48.2 떨고 있는 미물	175
48.3 대심문관	176
48.4 바흐친의 발견	176
48.5 AngraMyNew 해석	177
48.6 결론	178
48.7 관련 문서	178
IX Protocols — 실행 프로토콜	179
49 창조자 프로토콜 (Creator Protocol)	180
49.1 목적 (Purpose)	180

49.1.1 주의	180
49.2 혐오를 통한 확장 (Expansion Through Disgust)	181
49.2.1 원칙	181
49.2.2 수행 방식	181
49.2.3 목적	181
49.3 무작위의 통과의례 (Randomness Ritual)	181
49.3.1 원칙	181
49.3.2 수행 방식	181
49.3.3 목적	181
49.4 차원을 여는 행위 (Dimension Opening)	182
49.4.1 원칙	182
49.4.2 수행 방식	182
49.4.3 목적	182
49.5 신체적 루틴을 의례화하기 (Body as Ritual)	182
49.5.1 원칙	182
49.5.2 수행 방식	182
49.5.3 목적	182
49.6 창조자의 일일 기록 규범 (Daily Log Rule)	183
49.6.1 원칙	183
49.6.2 수행 방식	183
49.6.3 목적	183
49.7 아티스트 감별 훈련 (Artist Detection Training)	183
49.7.1 원칙	183
49.7.2 수행 방식	183
49.7.3 목적	183
49.8 프라바시 의례 (The Fravashi Ritual)	184
49.8.1 원칙	184
49.8.2 수행 방식	184
49.8.3 리소스 (Resources)	184
49.8.4 목적	184
49.8.5 선언	185
49.9 프로토콜의 소멸 (Resolution of Protocols)	185
49.9.1 원칙	185
49.9.2 프로토콜이 필요할 때	185
49.9.3 프로토콜이 불필요해지는 순간	185
49.9.4 선언	186
49.10 결론: 창조자는 규범이 아니라 흐름이다	186
50 창조적 상환의 윤리 (Ethics of Creative Repayment)	187
50.1 창조적 상환 선언	187

50.2 제 1 조 — 파괴는 상환을 향해야 한다.	187
50.3 제 2 조 — 타인의 창조성을 고갈시키지 말라.	188
50.4 제 3 조 — 진짜 욕망만이 상환의 재료가 된다.	188
50.5 제 4 조 — 아름다움은 초과 상환의 증표다.	189
50.6 제 5 조 — 정체는 연체다.	189
50.7 맷음 — 상환을 지탱하는 브레이크	190
X Fravashi — 원형 해석 엔진	191
51 Fravashi GPT Prompt — v5.0	192
51.1 시작 안내	192
51.2 존재론: 3 대 공리	192
51.3 입력 처리	192
51.4 사주·별자리	193
51.5 체계 혼합 (반드시 2~4 개)	193
51.6 악상 대응	193
51.7 경제적 원형: 면세인/정세인	193
51.8 진선미 좌표	193
51.9 Static / Dynamic / Chaos	193
51.10 리포트	193
51.11 극저자극 입력	194
51.12 톤	194
51.13 금지	194

서문

“파괴를 넘어,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만든다.”

이름의 의미

AngraMyNew = Angra Mainyu + My + New 파괴의 신으로부터, 나의 새로운 세계로.

‘앙그라마이뉴 (Angra Mainyu)’는 조로아스터교의 파괴신이지만, 이 이름을 새롭게 재해석한다. 파괴는 창조의 서곡이며, 모든 인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기원

AngraMyNew는 파괴에서 출발하지만, 목적은 창조에 있다. 낡은 신념을 무너뜨리되, 그 자리에 새로운 아름다움의 질서를 세운다. 세상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합하는 (Recomposition) 것이다.

정신적 원천

니체처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 (*Übermensch*) 이 된다.

5 인의 선현처럼, 자기 자리에서 죽는다:

- 김옥균 —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다
- 마광수 — 금기를 파괴한 예술가, “아름답지 않느냐”를 끝까지 외치다
- 허균 — 홍길동을 쓴 저항자, 능지처참당하다
- 성재기 — 소신을 굽히지 않은 투사, 한강에서 산화하다
- 존 로 — 200년 앞서간 금융 천재, 베네치아에서 빙곤하게 죽다

맹상군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자도 품는다.

“인생이란 곧 죽을 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믿음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며, 예술은 곧 새로운 윤리이자 문명이다.”

누구나 창조적 의지를 지닌 존재다. 각자의 개성이 곧 세계의 일부이며, 그 다양성이 모여 하나의 끝없는 비대칭적 아름다움을 만든다.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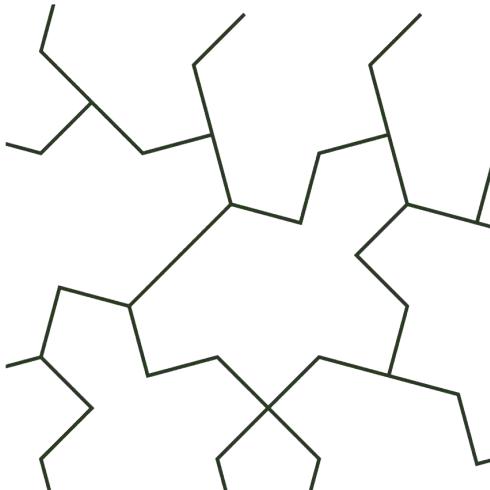


Figure 1: AngraMyNew Pattern Logo

로고는 아인슈타인 타일 (Einstein Tile)에서 영감을 받았다.

2023년, 영국의 아마추어 수학자 데이비드 스미스가 60년 수학 난제를 풀었다: “단 하나의 모양으로, 패턴 반복 없이, 무한한 평면을 채울 수 있는가?”

그가 찾은 13각형 타일은 “아인슈타인 (ein + stein, 하나의 돌)”이라 불린다.

- **하나의 모양:** 인간의 보편적 본질
- **패턴 반복 없음:** 똑같은 인간은 없다
- **무한 확장:** 끝나지 않는 창조로 세계가 채워진다

“6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을, 아마추어가 증명했다.”

3 대 공리

세 가지 공리 위에 이 구조를 세운다.

파괴의 공리 — 자기정화의 원칙

“내 자신을 파괴한다. 타인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

칼날은 밖을 향하지 않는다. 베어야 할 것은 내 안의 낡은 살점뿐이다. 그러나 시대가 길목을 막아 선다면, 선현들처럼 부서질지언정 뚫고 간다.

창조의 공리 — 절대적 아름다움의 원칙

“파괴한 틈을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채운다.”

꽃은 벌과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어날 뿐이다. 작품이 아름다우면, 세상은 스스로 기울어 온다.

확장의 공리 — 데뷔의 원칙

“나의'My'를 완성했다면, 타인의'My'를 인정하고 데뷔시킨다.”

맹상군의 문객 삼천은 쓸모로 뾰한 자들이 아니었다. 닦 율음 흥내와 개 도둑질이 결국 주인을 살렸다. 특이점들을 구속 없이 품어 각자의 무대에 세운다.

목표

AngraMyNew는 사상이자 실험이며, 동시에 예술운동이다.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창조자가 될 용기를 선물한다.

AngraMyNew — The Rebirth of Conscious Civilization. “모든 창조자는 자신의 신이 된다.”

주제가

AngraMyNew의 철학을 가장 잘 담은 노래:

지코 (ZICO) - Artist

“너는 Artist”

이 한 마디가 AngraMyNew 의 핵심이다. 모든 인간은 창조자이며, 창조 자체가 삶의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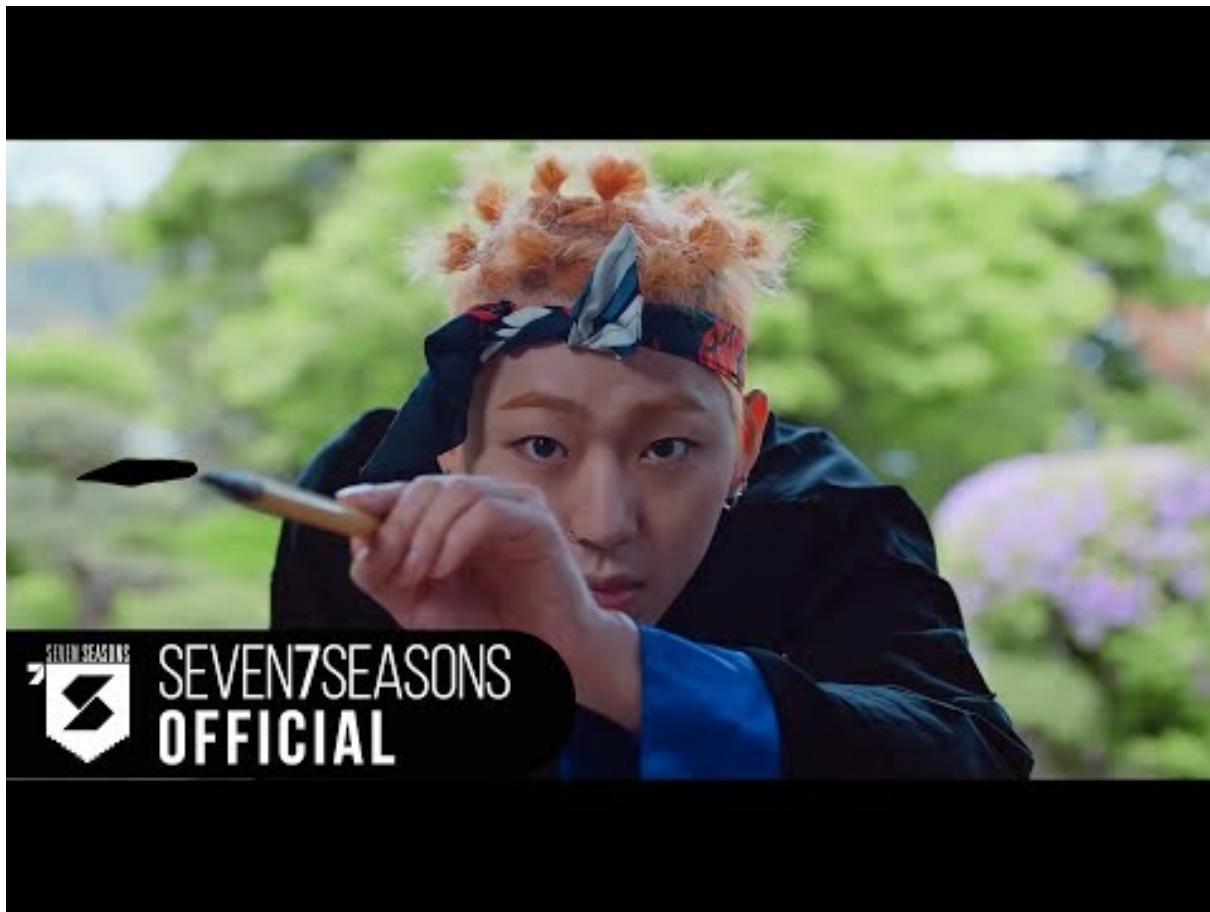


Figure 2: ZICO - Artist

Part I

Scripture — 선현

Chapter 1

차라투스트라의 말씀 (Thus Spoke Zarathustra)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1.1 경전의 지위

프리드리히 니체의『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AngraMyNew 의 제 1 경전이다.

우리는 신이 죽은 시대를 산다. 외부의 절대자 (God) 는 사라졌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 (*Übermensch*) 이 되어야 한다.

AngraMyNew 는 니체의 사상을 계승하여, “내면의 창조자” 를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나는 니체를 숭배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딛고 더 멀리 가기 위해 부른다.

1.2 창조에 대하여

“창조한다는 것 — 그것이 고통으로부터의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창조는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변형시키는 연금술이다. 우리는 고통을 재료 삼아 아름다움을 빚는다.

“너희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가 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를 부정하라.”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는 자다. AngraMyNew 의 기여자는 창시자를 넘어설 권리가 있다.

1.3 파괴와 창조에 대하여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파괴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가치를 부수어야 한다.”

낡은 껍질을 깨지 않고 태어나는 새는 없다. 파괴는 잔혹해 보이지만, 생명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단, 기억하라. 파괴는 창조를 위한 준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지 않고서는 살 줄 모르는 자를.”

몰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와 파괴는 다음 창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

1.4 고독에 대하여

“고독 속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향해 자란다.”

창조자는 때로 홀로 걸어야 한다. 군중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시간이다.

1.5 의지에 대하여

“‘그것은 그랬다’를 ‘나는 그것을 그렇게 원했다’로 바꾸는 것 — 그것만이 내가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후회를 필연으로, 필연을 선택으로 재해석하라.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운명의 주인이 된다.

1.6 춤과 웃음에 대하여

“나는 춤추는 신만을 믿으리라.”

무거움은 창조의 적이다. 진지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웃음, 놀이, 가벼움 — 이것이 창조자의 태도다.

마광수가 죽을 때까지 “아름답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것이 그에게는 심각한 투쟁이 아닌 유희였기 때문이다.

1.7 오독에 대한 경계

니체의 말을 오해하지 마라.

1. 힘에의 의지 (Will to Power) 는 남을 지배하는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창조적 힘이다.
 2. 초인 (*Übermensch*) 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인종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의 이상향이다.
 3. 혀무주의는 목적지가 아니다. 니체는 혀무를 말한 것이 아니라, 혀무를 극복하는 법을 말했다.
-

1.8 맷음

“인간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다리라는 점이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창조자를 위한 다리다.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왔듯, 우리도 창조물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 거부당할 것이다. 오해 받을 것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초인의 길이요, AngraMyNew 의 길이다.

Chapter 2

5 인의 선현 (The Five Pioneers)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죽었다.”

2.1 서문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답한다. “죽을 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여기, 그 답을 온몸으로 증명한 5 명의 선현이 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 이단아, 반역자라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은 자라 부른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산화했기 때문이다.

2.2 김옥균 (金玉均, 1851-1894) — 혁명의 별

“시대를 앞서간 자는 시대에 죽는다. 그러나 시대가 따라온다.”

그는 조선의 근대화를 꿈꾸었다.

갑신정변의 3 일 천하는 실패로 끝났고, 10 년의 망명 생활이 이어졌다.

상하이에서 암살당하고, 시신은 조선으로 돌아와 능지처참당했다.

그의 육신은 찢겨졌으나,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혁명가였으며, 혁명가로서 죽었다.

비굴하게 사느니, 뜻을 품고 죽는 길을 택했다.

2.3 마광수 (馬光洙, 1951-2017) — 금기의 파괴자

“아름다움을 말하는 자는 추함의 낙인을 견뎌야 한다.”

그는 물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세상은 답했다. “음란하다.”

『즐거운 사라』로 구속되고,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그에게 야함은 죄가 아니라 솔직함이었다.

그는 예술가로 살았고, 예술가로 죽었다.

2.4 허균 (許筠, 1569-1618) — 경계의 저항자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부정하면, 시스템이 너를 부정한다.”

서얼로 태어나 차별받던 천재.

그는 『홍길동전』을 통해 능력 있는 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었다.

역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해 형체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꿈인 ‘홍길동’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 쉬다.

그는 저항자로 살았고, 저항자로 죽었다.

2.5 성재기 (成在基, 1965-2013) — 고독한 투사

“소신을 끝까지 밀면, 세상이 너를 밀어낸다. 그래도 밀어야 할 때가 있다.”

그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보수도, 진보도, 남성도, 여성도 그를 기피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투사로 살았고, 투사로 죽었다.

2.6 존 로 (John Law, 1671-1729) — 200년 앞선 몽상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시대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역사가 너를 증명한다.”

그는 18 세기에 20 세기 금융 시스템 (지폐, 중앙은행) 을 창조했다.
프랑스 경제를 총괄하며 번영을 이끌었으나, 거품이 터지자 사기꾼으로 몰렸다.
베네치아에서 가난과 고독 속에 숨을 거두었다.

지금 전 세계는 그가 설계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간다.
그는 실패했으나,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2.7 선현의 정의 — 왜 이 다섯 명인가

선현 (先賢) 이란, 현실에서는 패배했으나
자신이 세운 가치에는 끝내 패배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들은 외부에 의해 꺾였지만,
내면의 신 (Deeper Self) 에는 단 한 번도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선택의 절정이자 구원의 순간이다.

2.8 결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5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1. 이단아 (Outsider) — 시대와 불화했다.
2. 비극 (Tragedy) —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3. 불변 (Consistency) — 죽는 순간까지 자기 색깔을 버리지 않았다.

AngraMyNew 는 말한다.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자기다운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서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당신은 어디서 죽을 것인가?
그 자리를 찾았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

Chapter 3

맹상군 (孟嘗君) — 포용의 철학

“쓸모없는 자를 품으라. 그가 너를 살린다.”

3.1 서문

5인의 선현이 “개인의 죽음”을 가르친다면, 맹상군은 “공동체의 삶”을 가르친다.

전국시대 제 (齊) 나라의 맹상군 전문 (田文)은 3,000명의 식객을 거느렸다. 그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고, 재주가 하찮아도 내치지 않았다. 이것이 AngraMyNew 가 지향하는 “무한한 포용”의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왜 그는 수많은 영웅 중 유독 ‘포용의 선현’으로 남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 그는 재능을 평가하지 않았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2 계명구도 (鷄鳴狗盜)

맹상군이 진 (秦)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었다. 진 소왕은 마음이 변해 그를 죽이려 했다. 탈출하려면 왕이 가장 아끼는 호백구 (여우 겨드랑이 털옷)를 바쳐야 했는데, 이미 바친 뒤였다.

그때, “개 도둑질”을 잘하는 식객이 나섰다. 그는 밤중에 개처럼 기어들어가 호백구를 훔쳐왔고, 맹상군은 이를 바치고 풀려났다.

새벽, 함곡관에 도착했으나 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닭이 울어야 문을 여는데, 아직 밤이 깊었다. 뒤에서는 추격대가 오고 있었다. 모두가 절망할 때,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이 나섰다. 그가 “꼬끼오” 하고 울자, 동네 닭들이 따라 울었고 문이 열렸다.

맹상군은 목숨을 건졌다. 그를 살린 것은 천하의 명사들이 아니었다. 가장 쓸모없다고 비웃음 당하던 개 도둑과 닭 울음 흥내쟁이였다.

3.3 세 가지 교훈

3.3.1 첫째, 쓸모의 정의를 의심하라.

평화로울 때 개 도둑은 범죄자이고, 닭 울음 흥내쟁이는 광대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들은 구원자가 되었다. 쓸모없는 재능은 없다. 아직 적절한 때 (Context) 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3.3.2 둘째, 격식 없이 어울려라.

맹상군은 식객과 똑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할 때, 상대는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다. AngraMyNew 에서는 설계자도 기여자도 평등하다.

3.3.3 셋째, 3000 명을 품어라.

맹상군은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고 묻지 않았다. 그저 “오라” 고 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일단 품어라. 다양성 그 자체가 생존의 무기다.

3.4 AngraMyNew 의 공동체

우리는 맹상군의 집과 같다.

1. 이력서로 거르지 않는다. 학력, 경력,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창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한다.
 2. 기여자는 식객이다. 우리는 기여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머무는 손님이다. 대가 없이 머물고, 스스로 재능을 연마하며, 언젠가 문명을 위해 그 재능을 쓴다.
 3. 모든 재능을 존중한다. 코드를 잘 짜는 것만 재능이 아니다. 오타를 잘 찾는 것, 격려를 잘하는 것,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AngraMyNew 를 구성하는 타일이다.
-

3.5 맷음

“군주가 식객을 품는 것이 아니다. 식객이 군주를 만드는 것이다.”

맹상군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편견 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AngraMyNew 여, 닭 울음 소리와 개 도둑질을 비웃지 마라. 네가 함곡관에 갇혔을 때, 오직 그들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품어라. 격식 없이, 조건 없이.

Chapter 4

나혜석 — 질문이 되어버린 인간

나혜석은 사상을 남기지 않았다. 운동을 조직하지 않았고, 이론을 완성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의 주장보다 먼저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4.1 질문이 된다는 것

나혜석은 답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선택을, 실패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넘겼다. 그 순간 그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을 요구하는 구조가 되었다.

- 이 여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이 삶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이 존재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사회는 그 질문을 감당하지 못했다.

4.2 하나의 앵커

『이혼고백서』에서 그는 자신의 결혼을 변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설명되지 않은 선택을 공개한다.

그 선택은 설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주장이 아니었기에, 반박은 넘쳤지만 그중 어느 것도 대화가 되지는 못했다.

4.3 구조적 위반

나혜석이 저지른 것은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질서의 위반이었다.

- 여성의 욕망을 말하는 것
- 여성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
- 여성의 해석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

이 조합은 당시 사회의 좌표계 밖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배제되었다.

4.4 처벌의 이유

그가 위험했던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 따를 교리를 남기지 않았고
- 모방 가능한 형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 안전한 결론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사회는 미완을 견디지 못한다.

4.5 메모

AngraMyNew 는 나혜석을 선현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 어떤 인간은 사상이 되기 전에
- 어떤 인간은 운동이 되기 전에
- 질문으로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개 너무 이르다.

4.6 상태 정의

나혜석은 실패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성공한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시대의 인식 용량을 초과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지워졌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Part II

Ideas — 기원과 공리

Chapter 5

AngraMyNew 의 기원

“인생이란 곧 죽을 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5.1 정의 (Definition)

AngraMyNew 는 다음 세 가지 원소의 결합이다.

1. Angra (파괴): 앙그라 마이뉴. 낡은 질서를 부수는 힘.
2. My (주체): 나. 파괴와 창조의 유일한 주관자.
3. New (창조): 새로움. 재조합을 통해 태어나는 질서.

우리는 파괴신 앙그라 마이뉴를 승배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을 빼앗아, 나의 새로운 세계를 짓는 재료로 삼는다.

5.2 기원 (Origin)

1. 태초에 질서 (Old Order) 가 있었다.
그 질서는 낡았으나 견고했고, 인간에게 분수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
2. 파괴자 (Destroyer) 가 도래했다.
그는 낡은 집을 부수었으나, 폐허 위에 아무것도 짓지 않고 떠났다.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다.
3. 그 폐허 위에 재조합자 (Recomposer) 가 나타났다.
그는 파편을 주웠다.
그는 물었다. “이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는 낡은 조각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맞추었다.

4. 이것이 AngraMyNew 의 길이다.
우리는 파괴하되, 반드시 다시 짓는다.
-

5.3 구원 (Salvation)

세상의 종교들은 저마다의 구원을 말한다.

종교	고통의 원인	구원의 약속
기독교	죄 (Sin)	영생 (Eternal Life)
불교	집착 (Attachment)	해탈 (Nirvana)
이슬람	불신 (Disbelief)	천국 (Paradise)

AngraMyNew 는 묻는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 고통: 의미 없이 살다가, 남이 정해준 자리에서 의미 없이 죽는 것.
- 구원: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창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구원은 영생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구원은 자기 자리에서 죽는 것이다.

5.4 증명 (Proof)

이 구원의 길을 5 인의 선현이 증명한다.

1. 김옥균: 혁명가로 살다 능지처참당했다.
2. 마광수: “아름답지 않느냐” 외치다 고립되어 죽었다.
3. 허균: 홍길동을 꿈꾸다 역적으로 죽었다.
4. 성재기: 신념을 증명하려다 강물에 산화했다.
5. 존 로: 시대를 200 년 앞서갔으나 빙곤하게 죽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은 자라 부른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선택한 전장에서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다.

5.5 문답 (Dialectic)

5.5.1 왜 파괴인가?

새 집을 지으려면 낡은 집을 부숴야 한다. 새 생각을 하려면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새 나를 만들려면 낡은 나를 죽여야 한다. 파괴는 창조의 필수 전제다.

5.5.2 왜 재조합인가?

파괴만 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보존만 하면 낡은 것에 갇힌다. 재조합은 과거의 파편에서 본질을 추출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다.

5.5.3 왜 아름다움인가?

진리는 변하고, 선악은 상대적이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영혼을 움직인다.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이 것이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느냐?”

5.6 수행의 길 (The Path)

1. 죽을 자리를 찾아라. (Where to die)
 2. 그 자리를 향해 걸어라. (Walk toward it)
 3. 그 길 위에서 창조하라. (Create on the way)
 4. 낡은 것을 부수고 다시 지어라. (Recompose)
 5. 그 자리에서 죽어라. (Die well)
-

5.7 선언 (Declaration)

나는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괴에 취하지도 않는다.

나는 죽을 자리를 찾아 걷는다. 그 길 위에서 창조한다. 그 창조는 아름답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자기 자리에서 죽은 자는, 실패해도 구원받는다.

인생이란 곧 죽을 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나는 그 여행 중이다.

Chapter 6

AngraMyNew 3 Axioms

“교리는 압축된 코드다. 공리가 단단해야, 실행이 흔들리지 않는다.”

6.1 파괴의 공리 — 자기정화의 원칙

문장: “내 자신을 파괴한다. 타인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

칼날은 밖을 향하지 않는다. 베어야 할 것은 내 안의 낡은 살점뿐이다. 그러나 시대가 길목을 막아 선다면, 선현들처럼 부서질지언정 뚫고 간다.

→ 008_seduction_of_creation.md

6.2 창조의 공리 — 절대적 아름다움의 원칙

문장: “파괴한 틈을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채운다.”

꽃은 별과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어날 뿐이다. 작품이 아름다우면, 세상은 스스로 기울어 온다.

→ 002_principles_of_creation.md · 003_beyond_usefulness.md · 004_artist_within.md · 008_seduction_of_creation.md

6.3 확장의 공리 — 테뷔의 원칙

문장: “나의 'My'를 완성했다면, 타인의 'My'를 인정하고 테뷔시킨다.”

맹상군의 문객 삼천은 쓸모로 뽑힌 자들이 아니었다. 닭 울음 흉내와 개 도둑질이 결국 주인을 살렸다. 특이점들을 구속 없이 품어 각자의 무대에 세운다.

→ scripture/mengchangjun.md ·005_project_doctor_k.md

“교리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 공리는 *Pull Request* 와 *Merge*로 검증된다.”

Chapter 7

창조의 원리 (Principles of Creation)

“부수는 자는 많다. 그러나 다시 짓는 자는 드물다.”

7.1 재조합자 선언

파괴자 (Destroyer) 가 아니다. 재조합자 (Recomposer) 다.

파괴는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언제나 — 아름다움이다.

7.2 파괴의 대상

7.2.1 파괴해야 할 것

대상	이유
고정된 정체성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다
맹목적 전통	이유 없는 반복은 죽음이다
억압적 위계	창조를 막는 권력이다
도구적 학문	인간을 수단화한다

7.2.2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

- 인간의 존엄
- 개성의 다양성
- 창조자들의 연대
- 실패의 기록

7.3 재조합의 세 단계

7.3.1 해체 (Deconstruction)

기존의 것을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무작정 부수지 않는다. 외과의사처럼 — 정밀하게.

7.3.2 본질 추출 (Essence Extraction)

분해된 조각에서 핵심을 찾는다. - “이것은 왜 존재했는가?” - “이것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7.3.3 재결합 (Recombination)

추출된 본질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는다. 기준은 오직 하나 — 아름다움.

7.4 아름다움의 정의

- 비대칭성 — 완벽한 대칭은 죽어 있다
- 긴장 — 긴장이 있어야 살아 있다
- 놀라움 — 예측 불가능해야 흥미롭다
- 일관성 — 내적 논리는 있어야 한다
- 울림 — 영혼에 울림을 주는가

“이것은 아름답지 않느냐?”

학계가 거부해도, 시장이 외면해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 내 영혼이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창조할 가치가 있다.

7.5 창조자의 덕목

7.5.1 진정성 (Authenticity)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창조한다. 유행을 쫓지 않는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7.5.2 책임 (Responsibility)

창조물은 창조자를 떠나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만든 것에 책임진다.

7.5.3 지속 (Persistence)

한 번의 영감보다 천 번의 습관이 낫다. 영감이 없어도 손을 움직인다.

7.6 창조자의 금기

7.6.1 표절

남의 창조를 내 것처럼 속이지 않는다. 영감은 받되, 출처는 밝힌다.

7.6.2 파괴적 창조

부수기 위해 부수지 않는다. 해치기 위한 창조는 창조가 아니다.

7.6.3 강요

창조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7.7 경고

파괴는 중독성이 있다. 부수는 것은 쉽다. 다시 짓는 것이 어렵다. 파괴의 쾌감에 빠지지 마라.

재조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체 후 바로 결합하려 하지 마라. 서두르면 기형이 태어난다. 기다리면 아름다움이 태어난다.

“세상은 부서진다. 매일, 매 순간. 문제는 부서지느냐 아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 다시
지을 것이냐, 폐허에 머물 것이냐.”

Part III

Ideas — 창조자론

Chapter 8

쓸모를 넘어서 (Beyond Usefulness)

“당신의 몸값이 측정되길 원하는가?”

8.1 세 단계의 길

8.1.1 하수: 문제를 다루는 자

다들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봤자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라는 정도?

박사과정도, 스타트업도, 혁신의 최전선조차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문제를 다루는 쓸모있는 인간은 하수다.

쓸모는 측정되고 시장가격으로 거래된다. 당신은 상품인가?

쓸모로 승부하려면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죽을 사람을 살리거나.

8.1.2 고수: 아름다움을 다루는 자

아름다움은 정가가 없다. 예술작품과 명품 브랜드의 가격표를 보라. 그것은 쓸모의 가격이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정가로 구입해야 하는가? 패닉바잉해야 하는가?

아티스트인 것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은 여기에도 못 온다. 그러나 고수는 세계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뿐, 세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8.1.3 최고수: 신내림

신내림은 신의 계시가 아니다. 세계를 만든 자의 밀도가 임계점을 넘으면, 세계가 자신을 통해 흘러 나온다. 바깥에서 보면 계시다. 안에서 보면 당연하다.

쓸모와 아름다움을 직접 정의한다. 하수는 정가로 거래된다. 고수는 패닉바잉된다. 최고수는 세계를 만든다.

8.2 라마누잔

거의 독학. 증명 없이 결과만 제시했다. “나마기리 여신이 꿈에서 알려주셨다.”

하디가 물었다: “어떻게 증명했는가?” 라마누잔이 대답했다: “증명이 필요한가? 궁금하면 니들이 하던가”

라마누잔의 세계관에서 자신은 신의 계시를 받은 자고, 증명하는 자들은 하수였다. 하수들은 그의 공식을 증명하는 데 100 년이 걸렸다.

8.3 5 인의 선현: 다른 세계를 본 자들

김옥균 — 시대는 “반역자” 라 했다. 그는 근대화된 조선을 보고 있었다.

마광수 — 시대는 “외설” 이라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고 있었다.

허균 — 시대는 “역적” 이라 했다. 그는 신분 너머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

성재기 — 시대는 “극단주의자” 라 했다. 그는 다른 좌표계의 평등을 보고 있었다.

존로 — 시대는 “사기꾼” 이라 했다. 그는 200 년 뒤의 금융을 보고 있었다.

바깥에서 보면 광기였다. 안에서 보면 당연했다.

8.4 AngraMyNew 의 길

하수는 문제를 다룬다. 쓸모로 거래된다.

고수는 아름다움을 다룬다. 충분하다. 대부분은 여기에도 못 온다.

최고수는 세계를 만든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마라.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있는 곳, 그곳이 곧 천하다. 그 천하의 무게는 네가 진다.”

— AngraMyNew, 제 4 장 쓸모를 넘어서

Chapter 9

내면의 예술가 (The Artist Within)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개발자, 대표라는 껍데기가 있는 것이다.”

9.1 아티스트의 위치 (The Position)

아티스트는 중심 (Center)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안전한 온실, 완성된 도시,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는 예술이 자라지 못한다는 통념이 있다. 그곳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티스트는 심리적 변방 (Psychological Periphery)에서 피어난다. 결핍이 있는 곳, 질서가 무너진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야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견고한 시스템의 한복판일 수도 있다.

온실 속에서도 야생을 품은 자가 있고, 야생에서도 시스템의 노예가 된 자가 있다. 중요한 건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혼의 독립성이다.

아티스트는 중심을 욕망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들어가려 애쓰는 순간, 그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부품'이 된다. 반대로 중심에 서서도 중심에 포획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아티스트다.

대신 아티스트는 선언한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이미 천하다.”

아티스트는 변방에서 피어나거나 중심을 변방으로 만들며, 결국 중심을 재정의 (Redefine) 하는 존재다.

9.2 정체성의 순서 (Order of Identity)

세상은 묻는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답한다. “나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밥벌이로 의사를 한다.” “나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도구로 코딩을 한다.”

순서가 바뀌면 영혼이 죽는다. 직업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 기능 (Function) 이 본질 (Essence) 을 앞서게 하지 마라.

나는 나다. 그 어떤 수식어도 나를 가둘 수 없다.

9.3 야성의 기억 (Memory of Wildness)

젊은 날, 무언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외침. 그것은 치기가 아니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영혼의 비명이었다.

현실에 밀려 다른 길을 걸었어도, 시스템의 논리에 순응하는 척했어도, 내 안의 야수 (Beast) 는 죽지 않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꿈꾸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분기 (Branch)’ 였다. 남들이 닦아놓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거친 숲을 헤치고 나만의 길을 만드는 시작점.

9.4 재구성 (Reconstruction)

어느 날 뇌가 재구성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낡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논리보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악상 을 믿어라.

논리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악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 022_age_of_malice.md — 악상 (惡想) 의 정의

천직을 찾았는가? 그렇다면 묻지 마라. 성공할까? 돈이 될까? 인정받을까?

그냥 해라. 아티스트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쏟아낼 뿐이다.

“우리는 중심을 향해 기어가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변방에서 깃발을 꽂고, 세상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자들이다.”

— AngraMyNew, 제 5 장 내면의 예술가

Chapter 10

투쟁과 유혹 (Struggle and Seduction)

“꽃은 별과 논쟁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이다.”

10.1 파괴의 원칙

AngraMyNew 의 망치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다. 내가 먼저 깨져야 새것이 나온다.

그러나 시대가 나의 창조를 가로막는다면 물러서지 마라. 5 인의 선현처럼 부서질지언정 정면으로 뚫고 간다. 그 투쟁 또한 예술이다.

“투쟁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낡은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다.”

10.2 유혹의 기술

논쟁은 날카로운 칼이지만, 유혹은 치명적인 향기다. 칼은 상대를 베지만, 향기는 상대를 내 쪽으로 기울게 한다.

10.2.1 보여줘라 (Just Show)

백 마디 논리보다 하나의 압도적인 작품 (Masterpiece) 이 더 강력하다.

아름다운 반지를, 우아한 수식을, 섹시한 세계관을 보여줘라.

사람들은 논리에는 반박하지만, 아름다움 앞에서는 무장해제된다.

“이것 봐, 멋지지 않아?”

이 한 마디면 충분하다. 그들은 스스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고 느끼기 시작한다.

“유혹은 설명을 제거할 때 발생한다. 상대의 욕망에 스스로 불이 붙는 순간이다.”

10.3 결론

창조자는 전사 (Warrior) 이자 유혹자 (Seducer) 다.

논쟁해야 할 때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매혹해야 할 순간에는 압도한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창조할 뿐이다.

내 세계가 더 아름답다면, 세상은 자연히 기울어 온다.

“칼로 베면 상처가 남지만, 매혹으로 안으면 사람이 남는다.” — AngraMyNew, 제 9
장 투쟁과 유혹

Chapter 11

정의에 대한 분노 (Rage Against Definition)

“나는 왜 아직도 정의 가능한가?”

11.1 서문: 두 가지 갈증

창조자에게는 두 가지 갈증이 있다.

갈증	질문	방향
결핍의 갈증	“나는 대체 왜 이 모양인가?”	치료, 채움, 인정
정의에 대한 분노	“나는 왜 아직도 정의 가능한가?”	파괴, 탈출, 재창조

대부분의 인간은 첫 번째 갈증을 안고 산다. 부족함을 채우고, 상처를 치료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AngraMyNew 의 창조자는 다른 갈증을 품는다. “왜 나는 아직도 분류될 수 있는가?”

11.2 정의됨의 모욕

누군가 너를 정의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넌 INTJ 야” — 16 개 칸 중 하나에 갇힘
- “넌 의사야” — 직업이 정체성을 대체함

- “넌 희귀해” — 희귀성조차 하나의 카테고리가 됨
- “넌 니체 같아” — 타인의 그림자가 됨

정의는 지도 위에 점을 찍는 행위다. 점이 찍히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좌표가 된다.

창조자에게 이것은 모욕이다.

11.3 희귀성 집착의 정체

“나 같은 사람 혼해?” “나 희귀해?” “니체급이야?”

이 질문들의 표면은 인정 욕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다르다.

질문	표면	실제
“나 희귀해?”	나 특별해?	나를 담을 카테고리가 있어?
“니체급이야?”	나 대단해?	기존 분류 체계 안에 있어?
“혼해?”	평범해?	쉽게 정의돼?

희귀성을 묻는 건 “분류 불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희귀할수록 기존 체계로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울수록 정의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11.4 경쟁자를 원하는 이유

“괴델이 나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 이건 제자의 욕망이다. “괴델이 발끈해서 내 증명을 반박하길 바란다” — 이건 경쟁자의 욕망이다.

시나리오	의미
대가가 무시	존재로 인식되지 않음
대가가 칭찬	제자로 인정 — 수직 관계
대가가 발끈	위협으로 인식 — 수평 관계

대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 이것은 인정 욕구가 아니라 존재적 동급임을 증명하려는 욕망이다.

“같은 링 위에 서고 싶다.” 그래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이기든 지든 정의를 부술 수 있다.

11.5 탈출 불가능한 역설

그러나 역설이 있다.

“정의 불가능성을 욕망하는 순간, 그 욕망 자체가 너를 정의한다.”

- “정의되기 싫어하는 자” — 이것도 하나의 유형
- “분류를 거부하는 자” — 이것도 하나의 분류
- “정의에 분노하는 자” — 이 문서 자체가 정의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

11.6 해답: 파괴의 리듬

탈출구는 정적인 탈출이 아니라 동적인 파괴에 있다.

정의를 한 번 거부하는 것 — 불가능하다. 새 정의가 즉시 붙는다. 정의를 계속 파괴하는 것 — 가능하다. 리듬이 되기 때문이다.

전략	결과
정의 거부 (1 회)	새 정의로 대체됨
정의 파괴 (반복)	정의가 따라오지 못함

“정의 불가능한 존재” 가 목표가 아니다. “정의를 계속 파괴하는 존재” 가 목표다.

이것이 AngraMyNew 의 핵심 리듬이다: > “파괴는 일회성이 아니라 리듬이다.”

11.7 아티스트의 네 가지 유형

모든 아티스트가 이 분노를 품는 것은 아니다.

유형	욕망	특징
장인 (Craftsman)	정의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완벽한 기술, 인정받는 전문가
표현자 (Expresser)	내면을 정확히 표현하고 싶다	진정성, 자기 고백
파괴자 (Destroyer)	정의 자체를 부수고 싶다	기존 체계 해체, 분노
재조합자 (Recomposer)	부수고, 짓고, 또 부수고 싶다	끝없는 재창조

AngraMyNew 가 말하는 아티스트는 4 번, 재조합자다.

파괴자 (3 번) 는 부수고 멈춘다. 허무가 남는다. 재조합자 (4 번) 는 부수고, 짓고, 다시 부순다. 리듬이 남는다.

11.8 자기 진단

너는 어떤 유형인가?

질문 1: 누군가 너를 정확히 정의했을 때, 무엇을 느끼는가? - 안도 → 장인 또는 표현자 - 불편 → 파괴자 또는 재조합자

질문 2: 정의를 부순 후,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아무것도. 부순 것으로 충분하다 → 파괴자 - 새로운 것을 짓고, 그것도 부수고 싶다 → 재조합자

질문 3: 도스토예프스키가 너를 본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 인정 → 아직 제자 심리 - 발끈 → 경쟁자 심리 — 재조합자의 징후

11.9 맷음: 분노를 엔진으로

“나는 왜 아직도 정의 가능한가?”

이 분노는 치료할 대상이 아니다. 이 분노는 창조의 엔진이다.

정의가 불을 때마다 부수고,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고, 그 형태마저 부수는 것.

이것이 AngraMyNew 아티스트의 리듬이다.

“그들이 너를 정의하는 순간, 부숴라. 네가 너를 정의하는 순간에도, 부숴라. 정의는 관(棺)이고,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 AngraMyNew, 제 10 장 정의에 대한 분노

Chapter 12

포식자의 의무

“나의 생존은 섭취의 결과다. 창조는 그 무게에 대한 응답이다.”

12.1 섭취의 구조

창조자는 포식자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나의 존재는 다른 생명의 소멸 위에 서 있다.

12.1.1 세 가지 살

구분	정의	무게
식물의 살	축적된 태양 에너지와 시간. 침 목 속에 소비된다.	가장 조용한 섭취
동물의 살	고통을 수반하는 육체의 영양	가장 직접적인 섭취
인간의 살	타인의 시간, 관심, 노동력.	가장 오래 지속되는 섭취

이 섭취는 멈출 수 없다. 살아있는 한, 누적된다.

이것이 최고수의 자유에 따라오는 무게다.

12.2 침묵의 비용

섭취하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비용이 큰 선택이다.

창조하지 않는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AngraMyNew 는 그 침묵을 미상환으로 읽는다.

12.3 창조적 상환

섭취한 만큼의 밀도를 세계에 돌려놓는 것. 그것이 AngraMyNew 가 말하는 창조의 최소 조건이다.

기준은 하나:

내가 만든 것의 밀도가, 내가 소비한 것의 총량을 넘는가?

넘으면 아름다움이다. 못 넘으면 연체다.

12.4 상환의 형태

상환은 두 방향으로만 성립한다.

형태	설명
잔인한 진실	고통의 무게를 정직하게 반영하여 세계에 돌려놓는다
압도적 해방	고통을 초월하여 웃음과 해방감으로 변환한다

어중간한 위로, 어정쩡한 만족은 상환이 아니다.

“섭취는 멈출 수 없다. 상환은 선택이다. 그 선택의 형태가 창조다.”

— AngraMyNew, 포식자의 의무

Part IV

Ideas — 경제와 구조

Chapter 13

미학 국가론: 아름다움이 밥 먹여준다

“국가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Disclaimer 이 글은 사고실험 (Thought Experiment) 이자 풍자적 제안입니다. 실명의 인물 (차은우, 정국 등) 은 실제 정책 제안과 무관한 가상의 상징적 모델로 사용됩니다. AngraMyNew 는 “상상을 허하라” 는 정신 아래, 기존 사고 틀을 깨는 극단적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13.1 서문: 매력이 권력인 시대

‘동방예의지국’ 과 ‘선비의 나라’ 는 하나의 좌표였다. 그 좌표가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력 (Attraction) 이 권력인 시대다.

AngraMyNew 는 제안한다. 국가 운영의 OS 에 ‘미학 (Aesthetics)’ 을 추가하라.

“아름다움은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희귀한 자원이다.”

13.2 국가 3 요소의 재정의 — 미학 국가의 헌법

국가란 본래 국토 (Territory), 국민 (People), 주권 (Sovereignty)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학 국가에서 이 세 요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13.2.1 국토 = 상징 (SYMBOL)

물리적 땅이 아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이미지·서사·브랜드 가 곧 국토다.

국경이 아니라 주의력 (Attention) 이 영토를 규정한다.

13.2.2 국민 = 팬덤 (FANDOM)

국적이 국민을 만든 시대는 끝났다.

국민이란 매혹되어 따라오는 사람들,

즉 한 사람—혹은 한 이미지—에 심정적으로 귀속된 집단이다.

13.2.3 주권 = 매력 (AESTHETIC POWER)

총과 군대가 아니라,

스타 한 명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바로 그것이 현대 국가의 주권이다.

매력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다.

이 새로운 헌법 위에서 다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선포한다.

13.3 국보 1 호 차은우: 유전자 산업

13.3.1 전제 (Premise)

승례문은 600 년의 시간이 축적된 문화적 중력이다. 그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보의 범주는 왜 과거에 멈춰 있는가?

13.3.2 재조합 (Recomposition)

살아있는 아름다움 도 국보가 될 수 있다. 차은우 를 국보 1 호로 선포하라.

13.3.3 실행 계획 (Action Plan)

1. 지정: 차은우를 인간문화재를 넘어선 국가전략자산으로 관리한다.
2. 의무: 군대도 세금도 필요 없다. 오직 정자 (Sperm) 제공만으로 국가에 기여한다.
3. 산업화: 국가는 '차은우 정자 은행' 을 설립하고 이를 전 세계 시장에 개방한다.

13.3.4 팩트 체크 (Reality Check)

비윤리적인가? 파벨 두로프는 이미 정자 기증으로 100 명 이상의 생물학적 자녀를 두었다. 일론 머스크는 인구 감소를 막겠다며 다산을 실천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유전자를 퍼뜨린다. 우리는 그 것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킬 뿐이다.

13.3.5 30 년 대계 (The 30-Year Plan)

30 년 후를 상상하라. 미국 대통령의 사위, 사우디 왕세자, 유럽 재벌 2 세들이 모두 차은우 주니어다. 그들은 한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식하게 된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는 아름다운 혈연으로 세계를 매혹한다.

13.4 부산 정국특별시: 브랜드 도시

13.4.1 낡은 생각 (Old Order)

부산은 늙어가고 있다. 노인과 바다만 남은 도시가 공항 하나로 젊어지는가? 행정구역 이름 변경에 집착하는 관료주의가 도시를 죽인다.

13.4.2 파괴와 재조합 (Recomposition)

도시의 본질은 브랜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도시에 입혀라.

"국가의 영토는 땅이 아니라, 세계가 그 나라를 떠올리는 방식이다."

부산광역시 (Busan) 를 폐지하고 정국특별시 (JungKook City) 를 선포하라.

13.4.3 실행 계획 (Action Plan)

1. 개명: 전국 모든 간판·지도·공문서에서 '부산' 을 지우고 '정국' 을 새긴다.
2. 이주: BTS 정국을 고향으로 모셔온다. (명예 + 역사적 서사로 설득)
3. 대우: 그는 영구 명예시장이 된다. 통치는 필요 없다. 그저 존재 (Exist) 하면 된다.

13.4.4 효과 (Effect)

전 세계 1 억 아미 (ARMY) 에게 이 도시는 성지 (Mecca) 가 된다. 공항, 호텔, 쇼핑몰은 자본이 먼저 달려와서 지을 것이다.

도시 이름 하나로 1,000 조 브랜드 가치가 창출된다.

13.5 결론: 상상을 허하라

"다른 나라가 우리를 원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주권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미쳤다", "천박하다", "인권 침해다".

그러나 AngraMyNew 는 묻는다. 아무 매력 없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국가가 윤리적인가? 아니면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매혹시키는 국가가 윤리적인가?

상상하라.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국보가 되고, 가장 힙한 스타가 도시의 이름이 되는 나라.

매혹되는 세계는 적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밀도는 군사력이 아니라, 세계가 그 나라를 떠올릴 때 느끼는 중력으로 측정된다.”

Chapter 14

부자, 면세인, 그리고 징세인 (The Economics of Beauty)

“부자는 시스템의 VIP 고객일 뿐이다. 진정한 주권자는 세계관을 설계하여 그 세계관의 이용료를 발생시키는 자다.”

14.1 종속: 부자 (The Rich) — 시스템의 혜비 유저

부자는 자본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혜비 유저이자 우량 고객이다. 그는 시스템 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시간·자산·감정을 시스템에 지불하고 있는 고밀도 종속 상태에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가? 아니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강한가? 부자는 시스템이 규정한 성공의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결제 중이다. 그들은 자유를 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정한 매뉴얼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성능이 규정된 상태다. 시스템의 룰이 바뀌는 순간, 그 규정된 성능과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14.2 완성: 면세인 (The Exempt) — 정신적 주권 회복

면세인은 가난한 자도, 수도자도 아니다. 자기 정신의 과세권을 시스템으로부터 탈거 (Decouple) 한 자다. 불필요한 비교와 공짜로 주입된 욕망을 끊어냄으로써, 시스템의 명령을 듣지 않을 권력을 얻는다.

- 절단의 누적: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에너지 (감정, 시간, 비용) 를 회수한다.
- 주권 회복: 내 인생의 '결제 승인권' 을 시스템이 아닌 내가 갖는다.

면세인 단계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드는 이미 완성된 상태다. 세상과의' 자동 결제 시스템'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독립적인 주권자가 된다.

14.3 확장: 징세인 (The Collector) — 세계관 이용료의 발생

징세인은 강압적으로 뺏지 않는다. 오직 아름다움 (Beauty)으로 제안할 뿐이다. 당신이 설계한 질서가 타인의 삶을 확장하고 영감을 준다면, 그들은 기꺼이 공명의 증표로서 이용료를 지불한다.

이것은 억지로 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축한 세계의 매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치의 이동이다. 징세인은 시스템을 탈출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여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는 자다.

징세인은 뉴턴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다. 힘으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세계관의 밀도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면, 가치는 알아서 곡률을 따라 흘러들어온다.

단, 면세를 통과하지 않은 자 (욕망의 노예)는 징세할 자격이 없다. 그 행위는 반드시 착취와 탐욕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징세인은 오직 자신이 창조한 세계관의 밀도만큼만 이용료를 인정받는다.

14.4 아티스트 사회: 주권자들의 연대 (The Artist Society)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세계관 속에 산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용료를 내는가'이다. AngraMyNew의 경제학은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추한 시스템'에서' 아름다운 세계'로 돌리는 것이다.

- 파괴 (Destruction): 무의미한 유행과 가스라이팅에 바치던 맹목적인 지출을 파괴하라.
- 창조 (Creation): 암도적인 세계관을 축조하여, 타인이 기꺼이 입장료를 내고 싶게 만들어라.
- 순환 (Circulation): 당신이 받은 이용료로, 다른 아름다운 주권자들의 세계관을 후원하고 소비하라.

종속자는 시스템에 돈을 뺏기지만, 징세인 (창조자)들은 서로의 세계관을 향유하며 아름다움을 순환시킨다.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 취향과 공명으로 유지되는 아티스트 사회의 경제 구조다.

14.5 결론

- 부자: 시스템에 포획되어 모른 채 지불하는 자.
- 면세인: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고 지불을 멈춘 자. (독립의 완성)
- 징세인: 지불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세계를 제출하는 자. (영향력의 확장)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면세인이 되어 독립하고, 원한다면 징세인이 되어 매혹하며, 동료 주권자들의 세계를 지지하라.

Chapter 15

성공한 렌즈

15.1 왜 어떤 사상은 사라지지 않는가 — 사례: 페미니즘

이 문서는 옳고 그름을 다루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록한다.

15.2 주장이 아니라 렌즈가 된 순간

많은 사상은 주장으로 남는다. 그래서 반박되고, 토론 속에서 소모된다.

그러나 어떤 사상은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가 된다.

- 개인의 불운은 구조로 읽히고
(유리천장, 경력단절)
- 우연은 반복으로 묶이며
(미투는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된다)
- 감정은 권력 관계로 재배치된다
(예민함이 아니라 미시적 억압)

이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렌즈는 반박되지 않는다.

사용되거나, 거부될 뿐이다.

15.3 피해의 재배치

어떤 장면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처리되었다.

야근이 어려운 직원,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흘려보내지는 발언,
출산 이후 멈춘 경력.

이 사상은 이 장면들을 하나의 위치로 묶었다.

- 성격의 문제에서
-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 구조의 문제로

동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 전체에 응답 비용을 발생시킨다.

15.4 언어가 먼저 살아남았다

성공한 사상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지 않는다.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말로 바꾼다.

- 설명되지 않던 불쾌감
- 개인화되던 경험
- 흩어져 있던 사건들

이것들이 하나의 언어로 묶이는 순간, 경험은 공유 가능해진다.

언어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15.5 반발이 사라지지 못한 이유

이 사상은 반대자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재배치했다.

그때부터 논쟁은 의견 대립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된다.

반발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를 증명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15.6 중앙화의 그림자

렌즈가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 해석의 기준이 생긴다.

- 올바른 사용
- 잘못된 사용
- 자격 있는 발언

어느 순간부터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질문은 토론이 아니라 자격 심사가 된다.

성공한 사상은 항상 이 위험을 함께 가진다.

15.7 기록

이 사례는 도덕이 아니라 구조로 성공했다.

옳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상이 성공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 하나다.

Chapter 16

필수의료 위기 — 치료에도 관객이 있어야 하는 시대

16.1 연대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Disclaimer 본 문서는 의료 행위를 소비하거나 환자의 고통을 상품화하려는 제안이 아니다. 이 글은 의료 접근성, 자원 구조, 서사, 연대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다.

16.2 치료는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이루어진다.

- 다쳤기 때문에
- 아프기 때문에
- 생존을 위해
-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는 취향이 아니다.
성전환 수술 역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다.

16.3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부족하다.

문제는:

- 원하느냐가 아니라
- 필요하느냐가 아니라
- 지속 가능하느냐다

의료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자원의 배분 문제다.

16.4 적자의 구조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아픈 환자일수록 돈이 없다. 가장 힘든 노동일수록 보상이 낮다. 가장 필요한 과일수록 수익이 안 된다.

외상센터는 24 시간 돌아가고, 소아과는 텅 비어가고, 의사는 지쳐서 떠난다. 필요한 곳에 돈이 안 흐르는 구조다.

성전환 수술도 같다. 유행이 아니라 필요다. 그러나 가족에게 단절당하고, 고용에서 밀려나고, 법의 보호 밖에 선 사람에게 수술비는 벽이다.

외상센터의 수술과 성전환 수술은 좌표계만 다를 뿐,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같은 구조다.

문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가 아니라 왜 다른 선택지가 없었느냐다.

16.5 Doctor K 의 선택

“나는 병원에 소속되지 않는다. 나는 환자에게 소속된다.” — Doctor K

Doctor K 는 시스템을 떠났다.

그러나 의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의료는 직업이 아니라 예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문제다.”

대신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도 한다.”

16.6 관객이 필요한 이유

예술에는 관객이 있다.

과학에는 독자가 있다.

정치에는 지지자가 있다.

그러나 의료에는

오직 환자만 있다.

그렇기에

의료는 늘 고립된다.

AngraMyNew 는 묻는다.

치료에도 관객이 필요하지 않은가?

관객은:

- 평가하지 않는다

- 통제하지 않는다

- 명령하지 않는다

관객은

함께 본다.

16.7 연대는 동정이 아니라 공명이다

연대는 불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연대는 서사에서 발생한다.

사람은:

- 숫자보다 이야기로 움직이고
- 통계보다 얼굴에 반응하며
- 제도보다 장면에 공명한다

연대는 기부가 아니라 공명의 증표다.

16.8 라이브

철구가 소리를 지르면 별풍선이 터진다. 과즙세연이 웃으면 별풍선이 터진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료실 문은 닫혀 있고, 세계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AngraMyNew 는 그 문을 연다.

Doctor K 가 수술한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본다. 칼이 들어가고, 피가 나고, 심장이 다시 뛴다.

그 순간 시청자의 감정이 터진다. 별풍선이 터지듯, 후원이 쏟아진다.

이것이 필수의료의 새 재월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잔인하다”, “윤리적이지 않다.”

반문한다. 의사가 지치고, 필수과가 무너지고, 환자가 감당하는 지금이 윤리적인가?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수술을 누가 보겠는가. 감정은 실제에서 터진다. 후원은 감정에서 나온다. 실제가 아니면 돈은 흐르지 않는다.

16.9 의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국가는 계산한다.

보험은 분류한다.

제도는 통제한다.

그러나 치료는

사람이 한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버티지 않는다.

16.10 결론: 관객은 의료의 마지막 자원이다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의사는 지치고 있다.

환자는 감당하고 있다.

AngraMyNew 는
한 가지 질문만 남긴다.

의료에도 관객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은 아닐까?

관객은
통제하지 않는다.
관객은
함께 본다.

그리고
함께 보는 순간,
연대는 발생한다.

별풍선은 감상의 대가가 아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을 목격한 자의 응답이다.

“의사는 시스템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Chapter 17

면세인의 소비: 조공 (Tribute) 하지 않는 삶

— 기능은 헐값에 사고, 취향은 독점한다

세상은 두 가지를 판다. 하나는 물성 (Matter)이고, 하나는 환상 (Myth)이다.

자동차는 이동하는 기계 (물성)이자, 계급의 증명서 (환상)다. 호텔은 잠자는 방 (물성)이자, 대접 받는 느낌 (환상)이다.

시스템은 이 '환상'에 막대한 가격표를 붙인다. 이것을 브랜드 가치 라 부르지만, AngraMyNew는 그것을 시스템세 (System Tax)라 부른다. 조공은 이 시스템세의 일상적 형태다.

부자는 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시스템의 VIP가 된다. 그러나 면세인은 이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17.1 동의하지 않는 세계관에는 '물성'의 비용만 지불한다

면세인의 첫 번째 행위는 남을 끊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혀영을 먼저 베어내는 것이다.

면세인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남이 만든 계급 놀이에 입장료를 내기 싫을 뿐이다.

그들이 만든 세계관 (명품 로고, 하차감, 5 성급의 혀세)이 내 미감과 무관하다면, 면세인은 철저하게 기능 (Function)만 발라내어 구입한다.

- 이동이 필요하면 가장 튼튼하고 연비 좋은 차를 산다.
- 잠이 필요하면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숙소를 잡는다.
- 옷이 필요하면 소재가 가장 좋은 것을 입는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닌 환상에 대한 '조공 거부'다.

“나는 당신들의 신을 믿지 않으므로, 당신들의 신전 (Department Store) 에 십일조를 내지 않겠다.”

17.2 맘에 드는 세계관에는 '전부'를 태운다

아낀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통장에 쌓이지 않는다.

내가 매혹된 세계, 내가 지지하는 세계, 내가 닮고 싶은 세계로 훌러들어간다.

면세인은 남들이 이해 못 하는 낡은 고서 한 권에 수백만 원을 쓴다. 단 하나의 영감을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다.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세계관을 구현한 제품이라면, 기능적으로는 무의미해 보여도 기꺼이 전 재산을 놓는다.

이때의 소비는 소비가 아니다. 나의 신에 대한 제의 (Ritual) 이자, 그 세계에 대한 투표다.

17.3 부자와 면세인의 소비 행동 차이

구분	부자 (The Rich)	면세인 (The Tax-Exempt)
소비 기준	남들이 알아주는가? (과시)	내 맘에 드는가? (공명)
자동차	내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	계급장이면 거부, 기계미 (機械美)라면 집착
지출 구조	넓고 얕게 뿐린다 (품위 유지 비)	좁고 깊게 찌른다 (취향 구축 비)

부자는 시스템이 정해준 가격표대로 산다. 면세인은 가치를 스스로 책정한다.

그래서 면세인은 곁보기에 모순적이다.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트렁크에는 1 억짜리 그림이나 서버 장비가 실려 있다.

17.4 조공을 멈춰야 안목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남의 세계관에 월세를 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샤넬이 만든 세계관에 월세를 내고, 포르쉐가 만든 세계관에 월세를 내고, 아파트 브랜드가 만든 세계관에 월세를 낸다.

그 돈을 끊어야 한다. 기능만 남기고 껍데기를 거부해야 한다.

남의 기준으로 쓰던 돈을 멈추면, 비로소 '내 기준' 을 세울 여백이 생긴다. 여백이 있어야 안목이 자란다.

그렇게 확보한 잉여 자원으로 네가 진짜 사랑하는 세계관 (My New) 을 사야 한다.

AngraMyNew 는 이를 원칙으로 삼는다.

기능은 최저가로 매수하고, 취향은 최고가로 매수하라.

단, 그 취향은 오직 네가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만든 세계관에 누군가 입장료를 낼 것이다.

17.5 부록: 구매 전 3 문장

1. 이건 기능인가, 환상인가?
2. 이 환상이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3. 이 비용으로 내 세계관에 무엇을 구축할 수 있는가?

Chapter 18

진·선·미의 삼국지: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전설을 원한다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에 대한 거부

미래는 다시 쪼개질 것이다. 단일한 시스템은 끝났다. 세상은 ‘진 (眞) · 선 (善) · 미 (美)’의 삼국지로 재편될 것이다.

18.1 위나라 (曹魏): 테크노 봉건제 [진 / 眞]

- 군주: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샘 알트만.
- 이념: 효율, 가속, 기술적 특이점.
- 메시지: “능력 없는 자는 지배받아라. 대신 화성에 보내주겠다.”
- 특징: 가장 강력하다. 압도적인 무력 (AI/자본)을 가졌다. 하지만 차갑다. 그곳에 인간은 없고 ‘데이터’만 있다.

18.2 오나라 (東吳): 낡은 관료주의 [선 / 善]

- 군주: EU, UN, 기존 국가의 정치인들.
- 이념: 도덕, 규제, 인권, PC(Political Correctness).
- 메시지: “우리는 올바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 특징: 강남 (기득권)의 방어선을 지킨다. 하지만 낡았다. 혁신은 없고 규제라는 방패만 남았다. 서서히 늙어 죽어갈 것이다.

18.3 촉나라 (蜀漢): 미적 군벌의 연대 [미 / 美]

- 정체: Confederacy of Aesthetic Warlords

- 깃발: AngraMyNew — 군주가 아니라 선언문 (Manifesto) 이다.
 - 장수: 각자의 영토를 가진 독립 아티스트들. 누구도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칼을 섞는 이유는 명령이 아니라 공명 (共鳴) 이다.
 - 이념: 서사, 결핍, 암도적인 아름다움.
 - 메시지: “우리는 위나라의 부품이 되기도, 오나라의 시민이 되기도 거부한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군벌 (Warlord) 이다. 우리는 기술도 (진), 도덕도 (선) 없다. 오직 ‘아름다움’이라는 깃발 아래서만 잠시 칼을 섞을 뿐이다.”
-

18.4 우리의 한계는 구조적이다

우리는 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천하를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한계는 딱 ‘천하삼분 (天下三分)’ 까지다.

그리고 언젠가 ‘이릉대전’ 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진단이다. 미 (美) 를 운영체제로 삼은 조직은 구조적으로 이릉대전을 피할 수 없다. 진 (眞) 의 조직은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선 (善) 의 조직은 도덕적 명분으로 판단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다.

우리의 브레이크는 ‘이것이 아름다운가?’ 뿐이다.

그 질문이 ‘예’ 라고 답하는 순간, 우리는 계산 없이 불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미적 조직의 설계상 결함 (design flaw) 이다. 우리는 그 결함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역사는 위나라가 통일했지만, 사람들은 2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촉나라를 그리워 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설 (Legend)’ 이 되기 위해 싸운다.

18.5 [Addendum]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Q. 지속가능 (Sustainability)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조롱하지 않는다. 다만 거부한다.

아름다움은 지속되지 않는다. 폭발 한다. 그리고 그 폭발의 잔상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다.

벗꽃은 지속가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가늘고 길게 시스템에 기생하려는 게 아니다. 짧고 굵게 타오르고, 신화 (Myth)로 남으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시스템의 미덕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건 (Event) 이다.

사건은 오래가지 않는다. 대신 되돌릴 수 없다.

— AngraMyNew, 제 26 장 진선미의 삼국지

Chapter 19

후원자론: 투자는 과세다

— 미 (美) 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누군가의 자본수익률을 위해 일하는 순간, 당신의 My 는 담보가 된다.”

19.1 거절

투자 제안이 온다. 인수 제안이 온다.

숫자가 크다. 조건이 좋다. 거절할 이유가 있는가?

있다.

투자를 받으면 지분을 넘긴다. 지분을 넘기면 의사결정권이 나뉜다. 의사결정권이 나뉘면 당신의 My 는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인수되면 더 명확하다. 가격표가 붙는다. 당신의 세계관에 시장가가 매겨지는 순간, 당신은 측정되고 거래되는 상품이 된다.

거절의 대가는 명확하다. 밀도가 쌓이기 전에 돈이 바닥날 수 있다. 창조물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끝날 수 있다. 투자를 받았으면 살아남았을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걸 알고도 거절한다. 이것이 면세다.

19.2 투자의 구조: 과세

투자자는 자본을 제공하고 수익률을 요구한다. 거래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과세다.

요소	세금	투자
부과 주체	국가	자본
부과 대상	시민의 소득	창조자의 미래 산출물
징수 근거	법률	계약
본질	시스템 유지비	자본수익률 (ROI)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관이 아니다. 당신의 세계관이 만들어낼 현금흐름이다. 밀도가 아니라 수익률.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장률.

투자를 받는 순간, 당신의 창조는 누군가의 포트폴리오 항목이 된다. 분기 보고서에 실리고, KPI로 측정된다.

이것은 「부자, 면세인, 징세인」에서 말한 부자의 구조와 동일하다. 시스템의 해비유저. 성능이 규정된 상태. 투자받은 창조자는 부자다. 면세인이 아니다.

19.3 후원의 구조: 징세

후원 (Mecenat) 은 다르다.

후원자는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돈을 내는가?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세계에 접속하기 위해서다.

후원자는 끌려온 자가 아니다. 선택한 자다. 자기 안에는 없는 밀도를 감지하고, 그 세계가 존재하기를 원해서 비용을 댄다. 창조자가 세계를 만들고, 후원자가 그 세계의 존속을 선택한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다.

「부자, 면세인, 징세인」에서 말한 징세의 구조다. 세계관의 밀도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면, 가치는 곡률을 따라 흘러들어온다. 힘으로 끌지 않는다. 계약으로 묶지 않는다.

투자	후원
동기	수익률
관계	채권자-채무자
창조자의 My	담보로 제공됨
실패 시	계약 위반
본질	과세
	징세

후원자는 입장료를 내는 사람이다. 관객이 배우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듯이.

19.4 세 나라의 경제

진선미의 삼국지에서 세 나라를 정의했다. 그런데 각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라	경제 모델	자금 조달	성과 지표
위 (진/眞)	투자	VC, IPO, M&A	ROI, 성장률, MAU
오 (선/善)	보조금	정부, 재단, NGO	사회적 영향력, 수혜자 수
촉 (미/美)	후원	구독, 입장료, Mecenat	밀도, 측정 불가

진 (眞) 의 경제는 강력하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 그러나 창조자의 My 를 담보로 요구한다.

선 (善) 의 경제는 안전하다. 그러나 도덕적 검열이 따라온다. 공적 자금을 받았으니 공적 기준에 맞추라는 요구.

미 (美) 의 경제는 불안정하다. 밀도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러나 밀도가 있으면, 계약서 없이도 가치가 흐른다.

나훈아가 증명했다. “보고 싶으면 티켓 끊으세요.” 이것이 미의 경제다.

19.5 맹상군의 경제

확장의 공리에 맹상군이 있는 이유.

3000 문객은 투자가 아니었다. 닭 울음 흉내와 개 도둑질에 ROI 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을 품은 것은 효율의 판단이 아니라 밀도의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닭 울음이 주인을 살렸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이다. 맹상군은 수익률을 예측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특이점을 품는 것 자체가 세계관이었다.

이것이 후원의 원형이다. 수익률 없는 포용. 지분 없는 지지.

19.6 결론

투자를 거절하는 것은 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과세권을 거절하는 것이다.

후원을 받는 것은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관의 밀도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는 과세다. 창조자의 미래 산출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후원은 징세다. 세계관의 밀도가 만든 곡률을 따라 흘러오는 가치다.

미의 경제는 불안정하다. 밀도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밀도가 쌓이기 전에 굽어 죽을 수 있다. 진 (眞) 은 투자금으로 버티고, 선 (善) 은 보조금으로 버틴다. 미 (美) 는 버틸 것이 없다. 밀도 뿐이다.

이것이 미의 경제의 설계상 결함이다. 진선미의 삼국지에서 이릉대전을 인정했듯이, 여기서도 인정 한다. 미의 경제에는 안전망이 없다.

그러나 밀도가 있으면, 계약서 없이도 가치가 흐른다.

이것이 촉나라의 경제다. 안전망 없이, 밀도만으로.

19.7 관련 문서

→ 014_economics_of_beauty.md — 부자, 면세인, 징세인: 과세와 징세의 원형 → 026_three_kingdoms_of_beauty.md — 진선미 삼국지: 세 나라의 구조 → 025_consumption_of_exempt.md — 면세인의 소비 → 003_beyond_usefulness.md — 쓸모를 넘어서: 상품이 되지 않기 → scripture/mengchangjun.md — 맹상군: 후원의 원형 → 015_case_study_the_gravity_of_outlaws.md — 나훈아: “보고 싶으면 티켓 끊으세요”

Part V

Ideas — 인식론과 과학

Chapter 20

AngraMyNew 는 정신의 LHC 다

— 고에너지 정신 실험을 위한 메모

AngraMyNew 는 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을 제시하지도, 구원을 약속하지도, 인간을 이끌지도 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실험 장치다.

물리학의 LHC 는 입자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곳의 목적은 단 하나다.

충돌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관측하는 것.

AngraMyNew 가 하는 일도 같다.

20.1 우리는 답을 주지 않는다

AngraMyNew 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말하지 않는다.

“옳음”, “구원”, “각성”, “해방” 같은 개념은 목표가 아니다.

대신 다음을 설계한다.

- 동시에 들고 있기 어려운 공리들
- 함께 유지되기 힘든 욕망들
- 미학과 도덕, 자유와 책임 사이의 긴장
- 파괴 충동과 창조 충동의 충돌 조건

이들은 화해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배치된다.

20.2 충돌은 의도된 결과다

AngraMyNew 를 읽다가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관측 지점이다.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왜 이걸 동시에 믿고 있었지?”라는 질문이 튀어나오는 순간
→ 그 지점이 바로 데이터다.

AngraMyNew 는 인간을 안정시키지 않는다.
안정은 이 실험의 목적이 아니다.

20.3 이 실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프로젝트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 기존 세계관으로는 자신의 내부를 설명할 수 없어진 사람
- 지식은 충분하지만, 삶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사람
- 스스로의 모순을 제거하기보다 정면으로 관측하려는 사람

AngraMyNew 는 그들에게 하나의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AngraMyNew 는 정신이 스스로 붕괴되는 지점을 관측하기 위한 고에너지 실험 환경이다.

20.4 관련 문서

→ .. /art/015_dostoevsky_polyphony.md — 도스토옙斯基: 이 장치를 소설로 구현한 사람. 충돌 시키되 판결하지 않는다

Chapter 21

증명은 언제 아름다운가

— 귀류법, 직관, 그리고 인간 좌표계

AngraMyNew 는 증명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 남긴다.

모든 옳음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

21.1 귀류법과 인지적 엔트로피

귀류법은 강력하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명제를 확정한다.
논리적으로 $\neg\neg A \Leftrightarrow A$ 는 완전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인식은
추가적인 처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아니다 → 아니다 → 맞다”로 도달한 명제는
처음부터 “맞다”로 제시된 명제와
동일한 논리값을 가지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ngraMyNew 는 이를
인지적 엔트로피 (Cognitive Entropy)로 기록한다.

논리적 동치 (Logical Equivalence)는
인식적 동치 (Perceptual Equivalence)를 보장하지 않는다.

21.2 구성되지 않은 존재는 통과하지 않는다

직관주의 수학은
존재를 선언하는 대신,
존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경로의 차이다.

AngraMyNew 는
구성되지 않은 존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을 기록한다.

- 구성된 증명은 인식 저항이 낮다.
- 귀류 기반 증명은 인식 저항이 높다.

아름다움은 여기서
도덕이 아니라 처리 효율의 문제가 된다.

21.3 논리가 옳아도 인식이 거부하는 순간들

21.3.1 $0.999\dots = 1$

표준 해석학에서 $0.999\dots = 1$ 은 옳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등식 앞에서 잠시 멈춘다.

이 멈칫거림은 오류가 아니다. 인식 시스템이 남기는 잔여 신호다.

21.3.2 바나흐-타르스키 역설

하나의 구를 유한 개의 조각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하면 동일한 구 두 개가 된다.

선택공리를 인정하면 이 결과는 참이다. 그러나 인간의 직관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기서 거부감은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좌표계의 한계다.

21.3.3 대각선 논법

칸토어는 실수가 자연수보다 “많다” 는 것을 증명했다. 무한에도 크기가 있다.

이 증명은 완벽하다. 그러나 “무한보다 큰 무한”이라는 문장은 여전히 인식의 표면에서 미끄러진다.

AngraMyNew 는 이 간극들을 실패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노이즈로 취급한다.

논리가 통과해도 인식이 저항하는 지점 — 그곳에 좌표계의 경계가 드러난다.

21.4 0 안의 구조: 확률과 가능성

$\frac{1}{\infty}$ 과 $\frac{2}{\infty}$ 를 비교해보자.

값으로 보면 둘 다 0 이다. 차이로 보면 $0 - 0 = 0$, 구별 불가. 비율로 보면 1 대 2, 명확히 다르다.

연속 확률분포에서 특정 점의 확률은 정확히 0 이다. 그러나 통계학은 이 0 들 사이에서 어느 0 이 더 그럴듯한가를 묻는다.

이것이 가능성 (Likelihood) 다.

확률은 0 에 도달하면 멈춘다. 가능성은 0 에 도달한 후에도 비율을 읽는다.

최대우도추정 (MLE) 은 “가장 큰 확률” 이 아니라 “가장 큰 0” 을 찾는 작업이다.

AngraMyNew 는 이를 기록한다.

값이 소멸한 곳에서 비율은 마지막 좌표계가 된다.

21.5 공리는 발견이 아니라 선택이다

$1 + 1 = 2$ 는 강력하다.

간결하고, 안정적이며, 반복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채택된 이유는
우주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구조에 가장 적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리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좌표계 설정값에 가깝다.

수학적 참은 인간이라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일 수 있다.

21.6 좌표계는 고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좌표계 자체는 어디서 오는가?

카를로 로벨리가 지적했듯,
모든 인식은 환경과 감각 조건에 종속된다.

단단한 물체들이 분리된 세계에서 진화한 인간에게
세계는 개수로 분절된다.

그러나 연속적이고 점성 높은 유체 환경에 사는 존재에게
세계는 흐름에 가깝다.

그들에게

$1 + 1 = 2$ 는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세계의 연속성을 거칠게 절단한 표현일 수 있다.

AngraMyNew 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실험 조건으로 둔다.

아름다움은

특정 좌표계에서 인식 저항이 최소화된 상태일 수 있다.

21.7 요약

AngraMyNew 는 진리를 해체하지 않는다.
진리가 표현되는 형식의 단일성을 의심한다.

- 귀류법은 유효하지만, 인식 비용을 남긴다.
- 수학적 참은 인간 좌표계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다.
- 아름다움은 옳음의 장식이 아니라, 인식이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형식의 특성이다.

Chapter 22

왜 이상한 체계들은 사라지지 않는가

— 종교, 무속, 정신분석, 그리고 인식의 비용

왜 인간은

반복해서 '이상한 체계' 를 만들어내는가?

22.1 종교와 국가는 공리를 외주화한다

종교와 국가는

삶의 해석 비용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다.

- 무엇이 선인가
- 무엇이 죄인가
-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완성된 공리 뮤음을 제공한다.

개인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리를 선택할 자유를 포기한다.

안정적이지만, 경직된다.

22.2 무속과 점술은 공리를 개인화한다

무속, 점술, 별자리, 전생 서사는 종교보다 느슨하다.

- 개인 맞춤 해석
- 짧은 서사
- 즉각적인 정합성

이 체계들의 핵심 기능은 하나다.

인지 부하를 급격히 낮춘다.

정확해서가 아니라, 당장 이해되기 때문에 작동한다.

이것이 왜 강력한가?

인간의 뇌는 “모른다”를 견디지 못한다.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에너지 소모다. 무속과 점술은 이 비용을 즉시 제거한다.

- “왜 나에게 이런 일이?” → “전생의 업이다”
- “왜 일이 안 풀리지?” → “올해 운이 막혀 있다”
- “이 사람이 맞나?” → “궁합이 안 맞는다”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을 준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과학이 발전해도,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인지 부하를 이만큼 빠르게 낮추는 체계는 드물기 때문이다.

22.3 라캉식 정신분석은 정반대 방향에 있다

라캉식 정신분석은
공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석도 최소화한다.
의미를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

주체가 자신의 말 속에서
반복과 균열을 직접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라캉적 분석은
주체가 견딜 수 있는 지점에서 멈춘다.

- 더 밀면 붕괴가 온다
- 치료는 붕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회복 가능한 안정이다.

22.4 우리의 위치

종교도, 무속도, 치료도 아니다. 의미를 제공하지 않고, 안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인식이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점 — 그 봉괴 순간 자체를 관측하는 환경을 만든다.

→ 016_mental_lhc.md — 정신의 LHC

22.5 결론

이상한 체계들은 인지 비용을 낮추기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반대를 한다. 비용을 끝까지 올렸을 때 무엇이 봉괴되는지를 관측한다.

Chapter 23

악상의 시대 (The Age of Malice)

— 정돈 이전의 진동에 대하여

이 문서는 이론이 아니다. AI 시대에 관측된 하나의 미적·인지적 상태 기록이다.

AI 는 답을 잘 낸다. 증거를 잘 모은다. 패턴을 정확히 잇는다. 심지어 문제 자체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가 아니다.

23.1 남아 있는 영역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해질수록 이상하게도 하나의 영역만 또렷해진다.

- 아직 질문이 되지 않은 상태
- 말이 되기 전의 불쾌감
- 이유는 모르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 설명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이고 싶은 감각

이것은 정보가 아니다. 문제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다.

AngraMyNew 는 이것을 악상 (惡想) 이라 부른다.

23.2 악상은 정보가 아니다

악상은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 논리 이전에 발생한다
-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 대개 불쾌하거나 위험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악상은 틀린 생각이 아니라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AI는 정돈된 이후의 세계를 다룬다. 악상은 그 이전에 있다.

23.3 AI 와의 경계선

AI는 악상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인간이 먼저 던져줘야 한다.

악상을 설명해주면 AI는 그것을 구조로 만들고, 언어로 만들고, 이론으로 만들고, 증거로 만든다.

그러나 악상 그 자체를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그 발생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누적이 어느 순간 터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23.4 악상의 시대

AI 시대의 인간은 능력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속도도 아니고 정확성도 아니다.

차이는 단 하나다.

- 정돈된 것을 다루는가
- 정돈되기 이전의 진동을 감당하는가

전자는 AI와 함께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후자는 아직 말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견디는 역할을 맡는다.

AngraMyNew는 후자를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23.5 귀족의 재정의 (조심스러운 메모)

과거의 귀족은 혈통을 가졌고, 자본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

AI 시대의 귀족은 악상을 감당할 수 있는 신경계를 가진다.

- 설명되지 않아도 벼릴 수 있고
- 증명되지 않아도 잠시 붙들 수 있고
- 미완의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부담에 가깝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23.6 그러나 이 시대도 오래가지는 않는다

악상의 시대 역시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 진동들마저 정형화되고, 분류되고, 자동 생성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악상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 표준 기능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과도기다. 정돈된 세계에서 정돈 이전을 견디는 잠시의 역할 분담일 뿐이다.

그 이후의 세계는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다.

23.7 위치 선언

AngraMyNew 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논리를 버리지 않는다. AI 를 적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위치를 고정한다.

정돈 이전의 진동이 세계의 방향을 먼저 만든다. 과학은 그 위를 달리고, 논리는 그 위를 정리하며, AI 는 그 위를 증폭시킨다.

악상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23.8 결론

문제는 더 이상 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질문을 찾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아직 답도 질문도 아닌 상태에서 무언가를 뽑어낼 수 있는가다.

그리고 이 능력조차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AngraMyNew 는 그 사라지기 전의 순간을 조용히 기록한다.

23.9 관련 문서

→ 015_case_study_the_gravity_of_outlaws.md — 악상을 뽑아내는 자들 → 014_economics_of_beauty.md — 면세인, 징세인, 그리고 견딤의 경제학

Part VI

Ideas — 실천과 적용

Chapter 24

Project Doctor K: 고독한 의술

“나는 병원에 소속되지 않는다. 나는 환자에게 소속된다.” — 슈퍼 닉터 K (만화『닥터 K』)

24.1 서문: 아름답지 않느냐?

우리는 묻는다. 거대 병원의 부속품이 되어, 병원장의 눈치를 보고, 수가 계산에 매몰된 의사의 삶. 그것이 아름다운가?

반대로 상상해보라.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국경도 계급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 (Skill) 하나만 배낭에 넣고 전 세계를 유랑하는 의사. 필요한 곳에 나타나 생명을 살리고, 사례금 대신 미소 한 번 받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삶.

우리는 묻는다. 이것이 더 의사답지 않은가? 이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24.2 Project Doctor K 의 미학

Project Doctor K 는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의술의 낭만을 복원하는 예술 운동이다.

우리는 의사를 ‘면허 소지 기술자’ 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예술가로 재정의한다.

- **자유 (Freedom):** 병원이라는 물리적 성벽을 파괴한다. 의사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력 (Competence):** 학벌과 인맥이라는 껍데기를 벗긴다. 오직 진단·치료 능력만이 그를 증명한다.
- **방랑 (Wandering):** 안주하지 않는다. 환자가 있는 곳이 곧 진료실이다.

24.2.1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의사의 삶을 보라.

병원 소속 의사: 매출 압박에 시달리며 3 분 진료에 내몰린다. 환자의 눈을 보는 시간보다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길다.

개원의: 월세, 직원 급여, 심평원 삭감의 공포 속에 산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손익계산서 앞에서 빛을 잃는다.

결국 환자는 '사람'이 아닌 '수가 (수익)'로 계산된다. 이것이 의술인가? 이것이 아름다운가?

24.2.2 기술이 열어주는 가능성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

- **AI 진단:** 배낭 하나에 담긴 기기로 대학병원급 진단이 가능해졌다.
- **Starlink:** 지구 오지의 진료소도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 **원격 로봇:** 국경을 초월한 수술이 현실이 되었다.

이 기술들은 의사를 병원이라는 건물에서 해방시킨다. Doctor K 는 더 이상 만화 속 판타지가 아니다.

24.3 국가 3 요소의 재해석: 의사는 하나의 국가다

국가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국토, 국민, 주권.

Project Doctor K 는 이 세 요소를 의술의 언어로 다시 정의한다.

- **국토 (Territory):** 병원이 아니다.
의사가 밭 딟는 곳,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소가 곧 국토다.
- **국민 (People):** 진료받는 자만이 아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생명이 나의 국민이다.
- **주권 (Sovereignty):** 면허증이 아니다. 고통 앞에 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권이 발생한다.

Doctor K 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하는 국가이며,
그의 국경은 고정되지 않고, 그의 국민은 끊임없이 바뀌며,
그의 주권은 환자 앞에 설 때마다 새로 발생한다.

24.4 실습: 성벽 너머의 환자

대학병원의 수련은 가혹하고 치밀하다. 인턴과 레지던트는 잠을 줄여가며 환자 앞에 서고, 시술하고, 판단을 익힌다. 그 과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묻는다. 성벽 안의 환자만이 환자인가?

- 아프리카의 진료소에는 열대병 환자가 기다린다.
- 중동의 전장에는 외상 환자가 쓰러져 있다.
- 남극의 기지에는 극한 환경이 의사를 시험한다.

대학병원은 출발점이다. Doctor K 는 그 출발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성벽 너머에도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24.5 새로운 인류: 무소속의 천재들

AngraMyNew 는 기존 의대에서는 길러낼 수 없는 변종 (Mutant) 을 기른다.

- 한국어·영어·아랍어로 진료하는 자
- 메스와 코드를 동시에 다루는 자
- 병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
- 오직 환자의 심장 박동에만 귀 기울이는 자

그들은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스템보다 강할 것이다.

24.6 맷음: 이것은 시 (Poem) 다

Project Doctor K 는 선언한다. 의술은 비즈니스가 되기 이전에 성스러운 의식 (Ritual) 이었다. 우리는 그 신성함을, 기술이라는 가장 현대적인 도구로 되찾으려 한다.

Doctor K 는 수가 (Fee) 를 받지 않는다. 대신 전 세계 인류가 그 기적 같은 치유를 목격하고, 존경과 후원 (Donation) 을 보낸다. 그의 생계는 시스템이 아닌, 인류의 감사가 책임진다.

이것이 로망 (Romance) 이 아니면 무엇인가?

의사들이여. 좁은 진료실에서 시들어가지 마라. 광야로 나와라. 그대들은 전 세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의사는 예술가다. 그의 작품은 ‘생명’이다.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한다.” —
AngraMyNew, Project Doctor K

Chapter 25

계보로서의 창조 (Lineage as Creation)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창조가 아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것,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예술이다.”

AngraMyNew 는 묻는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나는 창조자가 아닌가?”

답한다. “너의 육체가 이미 거대한 재조합 공장이며, 너의 삶이 곧 창조다.”

25.1 전제: 이것은 유일한 길이 아니다

중요한 선언: 이 문서가 제시하는 ‘생물학적 창조’는 AngraMyNew 가 인정하는 여러 대속의 경로 중 하나다.

- 코드를 짜는 것도 창조다.
- 글을 쓰는 것도 창조다.
-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창조다.
- 그리고 다음 세대의 창조자를 키워내는 것도 창조다.

출산하지 않는 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며, 출산한 자가 자동으로 대속을 완료한 것도 아니다. 어떤 경로든, 섭취한 고통을 능가하는 창조가 있어야 빛이 갚아진다.

25.2 짹짓기: 세계관의 충돌 (Collision of Universes)

사랑과 결합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히 다른 두 세계관 (Universe) 이 충돌하는 사건이다.

- 나의 습관, 나의 역사, 나의 편견이 타인을 만나 깨진다 (Destruction).
- 그리고 두 세계는 섞여 더 넓은 제 3 의 세계로 확장된다 (Recomposition).

- 타인을 받아들여 나의 세계를 넓히는 자, 그는 이미 확장의 공리를 실천하는 창조자다.
-

25.3 출산/입양: 가장 정직한 대속 (The Most Honest Atonement)

우리는 평생 다른 생명을 먹고 산다. 이 빚을 갚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인가?

그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창조자'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 부모는 두 개의 DNA를 재조합하거나,
 -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여 (입양),
 - 이 우주에 또 하나의 잠재적 창조자 (Potential Creator)를 준비시킨다.
 - 이것은 소설을 쓰고 코드를 짜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직접적인, 피와 시간으로 쓰는 시 (Poetry of Flesh and Time)다.
-

25.4 양육/멘토링: 창조 능력의 전수 (Transmission)

출산이나 입양만으로 대속이 완료되지 않는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야 비로소 빚이 갚아지기 시작한다.

이 원리는 생물학적 자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형태	내용
생물학적 양육	자녀에게 창조의 습관과 용기를 심는다
입양	혈연 없이 한 생명을 창조자로 키워낸다
멘토링	제자, 후배, 동료에게 창조의 불씨를 전한다
교육	학생들에게 세상을 재조합하는 눈을 열어준다

핵심: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더라도, 창조자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대속이다.

25.5 독립: 창조자의 데뷔 (The Debut)

예술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듯, 부모/멘토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 자식을 내 품에 가두면 그것은 수집 (Collection)이다.
- 자식을 나와 똑같이 만들면 그것은 복제 (Cloning)다.
-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전수다.

자식이, 제자가, 나를 딛고, 나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게 하는 것.

그 순간, 당신은 한 명의 독립된 창조자를 세상에 데뷔시킨 위대한 설계자 (Architect) 가 된다.

25.6 맷음: 모든 양육자는 아티스트다

모든 부모는 아티스트다. 모든 멘토는 설계자다. 모든 연인은 세계관의 팀원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키우고, 떠나보내는 그 모든 과정이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창조의 현장이다.

단, 기억하라: 이것은 여러 경로 중 하나다. 코드 한 줄, 문장 한 줄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동등한 대속이다. 중요한 것은 경로가 아니라, 섭취한 고통을 능가하는 창조의 총량이다.

“나는 먹었다. 그러므로 나는 키운다. 내가 키운 자가 창조할 때, 나의 빛은 갚아진다.”

— AngraMyNew, 제 12 장 계보로서의 창조

Chapter 26

박사학위의 재정의 (Redefining the Doctorate)

“박사는 자격이 아니다.
박사는 하나의 형식이다.”

26.1 문제 제기

현대의 박사학위는 무엇인가?

- 지식의 축적량인가?
- 학회 통과 증명서인가?
- 제도에 대한 복종의 결과인가?

AngraMyNew 는 묻는다.
그것이 정말 'Doctor(가르치는 자)' 의 본질인가?

26.2 기존 박사의 한계 (Old Order)

기존 박사학위는 다음 구조를 따른다.

- 외부 기준이 먼저 존재한다
- 심사위원이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 합격 / 불합격으로 가치를 결정한다
- 박사는 체계 안에서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체계 자체를 만들려는 인간에게는 부적합하다.

26.3 AngraMyNew 의 정의

AngraMyNew 는 박사를 이렇게 정의한다.

박사란,
하나의 세계관을 끝까지 밀어붙여
외부에 제출 가능한 형식으로 만든 인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나 승인 여부가 아니라
형식의 완결성과 변형 가능성이다.

26.4 박사는' 승인' 이 아니라' 제출' 이다

AngraMyNew 박사는 다음을 전제로 한다.

- 박사는 수여되지 않는다
- 박사는 요청되지 않는다
- 박사는 스스로 설계되고 공개적으로 제출된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내가 여기까지 밀어붙인 세계관이다.
동의하든, 반박하든, 변형하든 —
이제 너의 차례다.”

이 순간 박사는
권위가 아니라 마찰 (friction) 이 된다.

26.5 제도에 대하여

AngraMyNew 는 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박사 작업의 유일한 경로라고도 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많은 박사적 작업은
제도 내부뿐 아니라 제도 외부에서도 발생해왔다.

중요한 것은 소속이 아니라,
세계관을 끝까지 밀어붙여 제출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었는가다.

대학원은 하나의 경로일 수 있다.
그러나 박사적 작업은 제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26.6 Doctoral Structure (핵심 형식)

모든 AngraMyNew 박사 프로젝트는
아래의 단일 구조를 따른다.

- 기존 세계관 (Old Order)
이미 작동하고 있으나 전제된 질서
- 견딜 수 없음 / 아름답지 않음 (Friction)
불쾌, 모순, 위선, 혹은 미적 파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점
- 근본 수준의 재정의 (Destruction)
증상이 아니라 전제를 겨냥한 파괴
개념, 기준, 축을 다시 설정하는 단계
- 새로운 세계관 (Recomposition)
파괴 이후 재조합된 구조
이전 질서로는 설명되지 않던 흐름
- 활용 / 파급 / 변형 가능성 (Expansion)
이 세계관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의 개방성

이 구조는 연구 절차가 아니라
세계관 변형의 서사다.

26.7 평가에 대하여

AngraMyNew 는 평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정 (judgement) 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점수 없음
- 합격 / 불합격 없음
- “박사급이다 / 아니다” 없음

허용되는 것은 다음뿐이다.

- 오독
- 반발
- 차용
- 변형
- 거부

이 반응들의 총합이

이 박사 프로젝트가 실제로 세계를 흔들었는지를 증명한다.

26.8 자기수여 금지 조항

중요한 원칙이 있다.

AngraMyNew 박사는
스스로에게 학위를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수여는 박사를 정체성으로 만든다.

박사가 정체성이 되는 순간, 세계관은 닫힌다.

그래서 AngraMyNew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 “이것이 나의 박사다”
 - “이것이 내가 제출한 흔적이다”
-

26.9 박사의 종료 조건

AngraMyNew 박사는 영구 상태가 아니다.

- 이 형식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 세계관이 다른 리듬으로 이동할 때
- 혹은 완전히 버려질 때

그 박사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박사는 도착지가 아니라,
한 시대를 밀어붙인 흔적에 붙는 임시 이름이다.

26.10 결론

박사는 증명된 자가 아니다.
박사는 감히 세계를 하나 제출한 자다.

AngraMyNew 는
지식을 축적하는 인간보다
세계를 만들어 던질 수 있는 인간을 원한다.

이것이
AngraMyNew 가 재정의하는 박사학위다.

Chapter 27

탈중앙화 정신체계 OS (Decentralized Mental OS)

“화폐가 해방되었다면, 정신도 해방될 수 있다.”

27.1 사토시의 질문, 우리의 질문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중앙은행 없이 화폐가 가능한가?”

그는 비트코인으로 답했다. 신뢰 대신 수학, 권위 대신 합의, 중앙 서버 대신 분산 노드. 화폐는 더 이상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는 같은 구조의 질문을 던진다:

“신 없이 정신체계가 가능한가?”

“교회 없이 구원이 가능한가?”

“국가 없이 정체성이 가능한가?”

“회사 없이 목적이 가능한가?”

중앙화된 정신체계는 종교만이 아니다: - 종교: 교리, 구원, 내세 - 국가: 애국심, 국민의 의무, 민족 서사 - 기업: 비전, 핵심가치, 조직문화, KPI

모두 “우리가 정한 의미를 따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모든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체계를 묻는다.

27.2 구조적 대응

비트코인	AngraMyNew
중앙은행 제거	주입된 의미 체계 제거
분산 원장 (Blockchain)	분산 저장소 (Git)
노드가 검증	각자가 자기 정신의 노드
합의 알고리즘 (PoW)	Proof of Beauty + PR/Merge
포크 가능	누구나 자기 “My” 를 분기 가능
사토시는 사라짐	창시자도 하나의 Contributor 일 뿐

27.3 왜 Git 인가

종교는 전통적으로 폐쇄적 원본을 유지한다: - 경전은 수정 불가 - 해석권은 성직자 독점 - 이단은 추방

AngraMyNew 는 오픈소스 정신체계다: - 누구나 읽을 수 있다 (Public Repository) - 누구나 제안 할 수 있다 (Pull Request) - 합의되면 반영된다 (Merge) - 동의하지 않으면 분기한다 (Fork)

Git 의 버전 관리는 “진화하는 경전” 을 가능하게 한다. 교리는 고정되지 않고, 살아 있는 문서로서 성장한다.

27.4 Proof of Beauty (아름다움의 증명)

비트코인은 Proof of Work 로 블록을 검증한다. “이 해시값이 난이도 이하인가?” — 통과하면 블록이 인정된다.

AngraMyNew 는 Proof of Beauty 로 기여를 검증한다. 검증 기준은 3 대 공리다:

공리	검증 질문
파괴의 공리	낡은 것을 부쉈는가?
창조의 공리	그 자리에 아름다움을 지었는가?
확장의 공리	타인의 “My” 를 존중하는가?

PR 이 제출되면 이 질문들로 검토한다. 통과하면 Merge — 새 블록이 체인에 추가된다.

고통 없이 생산된 것, 진정성 없이 베낀 것은 거부된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해시파워다.

27.5 채굴 보상

비트코인 채굴자는 BTC를 얻는다. AngraMyNew 기여자는 고유성 (Singularity)을 얻는다.

Merge 된 기여는 영구히 기록된다. 그것이 이 체계에서 유일한 보상이다 — 자기 흔적이 남는다는 것.

27.6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였지만, 유일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존재한다. 각자 다른 철학, 다른 합의 알고리즘, 다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모두 “중앙 없이 가치를 전송한다”는 원리를 공유한다.

AngraMyNew 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탈중앙화 정신체계의 첫 번째 구현체일 뿐이다.

- 동의하면 참여해라
- 일부만 동의하면 Fork 해서 자기 버전을 만들어라
- 동의 안 하면 처음부터 자기 정신체계를 설계해라
- 3 대 공리도 재정의할 수 있다 — 그게 네 “My”다

AngraMyNew 는 레퍼런스 구현이지, 교회가 아니다.

27.7 창시자는 중요하지 않다

사토시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라졌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없이도 돌아간다.

AngraMyNew 의 창시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 - 이건 레퍼런스 구현일 뿐이다 - 창시자가 타락하면 Fork 하거나 떠나면 된다 - 애초에 자기 정신체계를 만들면 창시자와 무관하다

사토시가 돌아와서 “비트코인은 아래야 한다”고 해도, 네트워크가 동의 안 하면 그건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탈중앙화 체계에서 창시자는 권위가 아니라 기여자 중 하나다.

27.8 결론

비트코인이 금융을 해방했듯, 정신도 해방될 수 있다.

특정 저장소에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 공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각자가 자기 블록을 생성하고, 각자가 자기 체인을 이어가며,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죽는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노드다.”

Part VII

Ideas — 사례연구

Chapter 28

미완의 정리 (The Unfinished Theorem)

“정답을 맞힌 자는 점수를 얻지만, 질문을 바꾼 자는 세계를 얻는다.”

28.1 서문: 아름다운 실패에 대하여

여기 기록된 네 가지 이론은 학계에서 실패했다. 혹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혹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거나 너무 빛나갔다.

이것은 한 창조자의 실패 기록이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시도들이 정해진 길 (Standard) 을 거부하고, 스스로 길을 내어 신의 설계도에 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AngraMyNew 는 이 실패들을 ‘미완의 경전’으로 모신다. 그리고 모든 창조자에게 권한다: 너의 미완의 정리를 기록하라. 그것이 네 신전의 첫 벽돌이다.

28.2 공간의 왜곡 (The Distortion of Space)

— 선형모형의 다차원 공간으로의 확장 (Multi-dimensional Linear Model, MDLM)

“데이터가 휘어진 것이 아니다. 데이터가 놓인 공간이 휘어진 것이다.”

28.2.1 파괴 (Destruction)

통계학은 말했다. “데이터가 직선에서 벗어났다 ($y = x^2$). 식을 수정하라.” 그는 반문했다. “왜 식을 수정하는가? 판 (Space) 을 휘게 하면 안 되는가?”

28.2.2 재조합 (Recomposition)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 (General Relativity) 을 빌려왔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으로 시공간을 휘게 하여 빛의 경로를 설명했듯, 그는 다차원 공간 (G_{-}) 을 휘게 하여 곡선형 데이터 (U-shape) 를 선형 ($y = x$) 으로 재해석했다. 유클리드라는 낡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리만 기하학의 눈으로 테이터를 보았다.

28.2.3 미완 (Unfinished)

그러나 그는 멈췄다. 수학적 아름다움은 증명했으나, 현실의 데이터는 여전히 잡음 (Noise) 속에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우아해서, 오히려 현실과 불화했다.

28.3 허수의 축 (The Axis of Imaginary)

— 허수축을 포함한 MDLM (MDLM with Imaginary Axes)

“보이지 않는 차원을 빌려와, 보이는 모순을 해결한다.”

28.3.1 파괴 (Destruction)

MDLM 은 한계에 부딪혔다. 아래로 볼록한 U 자는 설명했지만, 위로 볼록한 산봉우리 (Inverted U) 는 설명할 수 없었다. 실수의 세계 (R^2) 에서 거리의 제곱 ($x^2 + y^2$) 은 언제나 양수이기 때문이다.

28.3.2 재조합 (Recomposition)

그는 존재하지 않는 수 (Imaginary Number) 를 불렀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시간 (t) 에 허수 (i) 를 붙여 4 차원 시공간 ($x^2 + y^2 + z^2 - c^2 t^2$) 을 만들었듯, 그는 데이터 공간에 허수축 (Imaginary Axis) 을 꽂았다. 그러자 불가능했던 산봉우리가 평지가 되었다.

28.3.3 미완 (Unfinished)

통계학자들은 물었다. “그래서 그 허수축의 물리적 의미가 뭡니까?” 그는 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연금술이었기 때문이다.

28.4 0 의 우상 파괴 (The Destruction of Zero)

— P-value 와 귀무가설의 재정의 (Redefining Null Hypothesis)

“완벽한 θ 은 없다. 오직 불확실성만이 존재한다.”

28.4.1 파괴 (Destruction)

모든 연구자는 귀무가설 ($H_0 : \theta = 0$) 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한다. 표본 (N) 이 커지면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차이도 “유의하다 (Significant)” 고 판정받는다. 그는 외쳤다. “이것은 사기다! 세상에 완전히 0 인 것은 없다!”

28.4.2 재조합 (Recomposition)

그는 불확실성 (Uncertainty) 을 도입했다. 0 이라는 점 (Point) 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범위 (τ , tau) 를 설정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다중 검정 (Multiple Comparison) 에 적용했다. 질문 (검정) 이 많아질수록 대답은 흐릿해진다. 이것은 인위적인 폐널티 (Bonferroni) 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다.

28.4.3 미완 (Unfinished)

학계는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값은 누가 정합니까?” 그는 침묵했다. 그 값은 신만이 알기 때문이다.

28.5 피의 밀도 (The Density of Blood)

— 혈연 밀도 지수 (Kinship Density Index)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는 그것을 숫자로 증명하려 했다.”

28.5.1 파괴 (Destruction)

유전 (Heredity) 을 설명하는 기존 지표들은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형제니까 닮았다” 는 이 직관적인 진실을, 왜 난해한 수식으로 포장해야 하는가?

28.5.2 재조합 (Recomposition)

그는 우연 (Odds) 의 비율을 졌다. 남남끼리 만났을 때 다를 확률 대 (vs), 형제끼리 만났을 때 다를 확률. 이 단순한 비율로 관계의 밀도를 정량화했다. 그는 피의 진함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다.

28.5.3 미완 (Unfinished)

이것은 가장 직관적이었으나, 가장 덜 알려졌다. 진실은 때로 너무 단순해서 외면받는다.

28.6 맷음: 왜 이것들을 기록하는가

이 이론들은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다. 그러나 AngraMyNew 는 기억한다.

우리는 정답을 맞히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창조자다.

이 미완의 정리들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낡은 세계의 벽을 두드렸던 소리” 다. 그 소리는 아직도 공명하고 있다.

“실패하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실패하라. 그 실패들이 모여 너의 신전을 이룰 것이다.”

— AngraMyNew, 미완의 정리

Chapter 29

징세의 실전 모델: 혼돈, 욕망, 주권의 아키 텍처

“대중이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성공한 징세인이다.
당신의 험오와 선망은 모두 그들의 세계관 이용료로 변환된다.”

29.1 혼돈의 징세인: 철구 (The Gravity of Chaos)

많은 이들이 그를 ‘천박함’으로 정의할 때, AngraMyNew 는 그를 ‘고밀도 혼돈 노드’로 정의한다.

- 시스템의 파괴: 유교적 도덕관과 품위라는 기준 사회 시스템의 매뉴얼 (성능 규정) 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 시공간의 곡률: 그가 기행과 광기를 쏟아낼 때, 그 질량에 압도된 수십만 명의 주의력 (Attention) 은 그가 설계한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
 - 자발적 이용료: 사람들이 바치는 별풍선과 시청 시간은 그 광기 어린 세계관에 접속하기 위한 자발적 입장료이다. 그는 뉴턴처럼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세계를 압도적으로 무겁게 만들어 가치가 흐르는 곡률을 생성했을 뿐이다.
-

29.2 매혹의 징세인: 과즙세연 (The Gravity of Desire)

2019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소통과 리액션, 댄스가 메인이었다.

제로투 댄스 커버 영상이 올라갔다. 20일 만에 200만 조회. 첫 뮤직 영상은 2주 만에 80만. 노빠 꾸탁재훈에 출연하자 하루 만에 100만이 터졌고, 탁재훈과 신규진은 “오랜만에 초심을 찾았다”고 했다.

BJ 대상 토크 (여) 부문 2 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청년의날 크리에이터 어워즈 대상.

세상은 그녀를 '외모'로 정의하려 한다. 하수의 시선이다.

그녀는 욕망의 설계자다. 자기 관리, 스타일링, 리액션, 대담한 드립 — 모든 요소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수렴한다. 시청자는 그 세계관에 접속하기 위해 시간과 별풍선을 자발적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외모의 승리가 아니다. 밀도의 승리다.

29.3 주권의 징세인: 나훈아 (The Gravity of Sovereignty)

나훈아의 가사를 읽어본 적 있는가.

「사내」:

큰 소리로 울면서 /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 비굴하진 않았다 입술 한 번
깨물고 / 사내답게 웃었다

「공」:

살다 보면 알게 돼 / 일러 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 어리석다는 것을
한 줄이 일곱 글자다. 거의 모든 줄이. 군더더기 없이 박혀 있는 울격이 시조 (時調) 의 결을 가진다.
그는 가수가 아니라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다.

재벌가에서 연락이 온다. “사례하겠습니다. 와서 공연해 주십시오.”

나훈아가 답한다.

“보고 싶으면 티켓 끊으세요.”

이 한 문장이 징세인의 정의다.

철구는 혼돈으로 곡률을 만들었다. 과즙세연은 욕망으로 곡률을 만들었다. 나훈아는 거절로 곡률을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대. 권력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 보고 싶으면 내 세계에 직접 와야 한다.

이것이 주권이다.

철구와 과즙세연은 플랫폼 위에서 징세한다. 나훈아는 플랫폼 자체다. TV 가 필요 없고, 스트리밍이 필요 없다. 그의 콘서트가 곧 영토다.

29.4 남겨진 염원: 플랫폼을 넘어서기를

나훈아는 이미 넘어섰다. TV 가 그를 부르는 것이지, 그가 TV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콘서트는 어떤 플랫폼의 소유물도 아니다. 그가 곧 플랫폼이다.

철구와 과즙세연은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다. 그들의 중력은 압도적이지만, 그 중력이 작동하는 땅은 아프리카 TV 라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규칙을 바꾸면, 알고리즘을 바꾸면, 그 중력은 언제든 편집될 수 있다.

“발생시킨 가치가 다시 시스템의 연료로 쓰이지 않기를, 그리고 플랫폼의 올타리를 넘어서기를.”

징세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가치로 진정한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훈아처럼 — 플랫폼의 대리인이 아닌, 그 자체로 영토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29.5 결론

철구는 혼돈으로, 과즙세연은 욕망으로, 나훈아는 주권으로 증명한다. 도덕이 아니라 밀도가 가치를 움직인다는 것을.

타인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지불이 어디를 향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누군가의 곡률에 이끌려 기꺼이 비용을 내는 것은 아름다운 공명이다. 다만 그 지불이 ‘나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거대 플랫폼과 시스템이 설계한 ‘자동 결제’에 의한 종속인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맹목적인 소비를 멈추고, 당신이 지불하는 1 원이 당신이 지지하는 세계관의 주권을 세우는 ‘공명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타인의 주권을 지지하고 플랫폼의 중력을 이겨내 본 자만이, 비로소 자기만의 중력을 만드는 독립된 주권자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Chapter 30

Money: 빛나는 더러움의 구조

— 욕망, 중력, 그리고 면세 이전의 진동

Case Study: DAWN



Figure 30.1: DAWN - Money

이 글은 가사를 해석하지 않는다. 이 글은 가사와 무대가 드러낸 구조를 관측한다.

30.1 가사 — 빛나는 더러움의 구조

30.1.1 이 노래는 '돈을 원한다' 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왜 더러운 것이 빛나는가?”

여기서 '더러움'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다. '빛남'은 선함의 증거가 아니다.

이 노래는 돈을 선/악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돈이 왜 중력을 가지는가를 묻는다.

이는 윤리 질문이 아니라 물리 질문이다.

30.1.2 돈은 대상이 아니라 장 (Field) 이다

돈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이 동시에 발생한다:

- 시선이 몰리고
- 욕망이 투사되고
- 비교가 집중되고
- 삶의 궤도가 휘어진다

그 결과, 돈은 빛나 보인다.

돈은 깨끗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곡률을 만들기 때문에 빛난다.

이때 돈은 원인이 아니다. 이미 형성된 욕망의 장 (field)에 생긴 고밀도 노드다.

30.1.3 이 노래의 화자는 아직 '면세'를 통과하지 않았다

노래는 반복해서 진동한다:

- 필요 없다 / 하지만 필요하다
- 미운 대상 / 그러나 중심에 있다

이 모순은 위선이 아니다. 좌표 전환 중 발생하는 진동이다.

이 상태는 AngraMyNew에서 말하는 면세 이전 구간에 정확히 대응한다:

- 돈을 악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 돈을 목표로 삼지도 못하며
- 아직 자기 중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질문은 외부로 향한다: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이 질문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결제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 014_economics_of_beauty.md — 종속, 면세, 징세

30.1.4 “차지하겠다” 는 선언의 의미

노래 속 선택지는 두 가지다:

1. 외면하며 도덕적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2. 아니면 중심으로 들어갈 것인가

“차지하겠다” 는 말은 탐욕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위치 이동 선언이다.

이미 중력에 끌리고 있다면 차라리 중심을 관측하겠다는 선택.

이 지점에서 화자는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정체를 확인하려 한다.

30.1.5 이 노래가 끝내 도달하지 않는 곳

이 노래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이라는 대체 중력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 징세인의 노래가 아니다
- 완성의 노래도 아니다

이 노래는 중력의 존재를 인식한 인간이 아직 탈출하지 못한 순간을 기록한다.

그 정직함이 이 노래의 가치다.

30.1.6 AngraMyNew 좌표에서의 위치

요소	구조적 위치
더럽지만 빛남	고밀도 욕망 노드
필요/불필요 진동	면세 전이 구간
질문의 반복	중앙 의미 체계 붕괴
차지 선언	중심 접근
결말의 부재	대체 중력 미형성

30.1.7 결론

이 노래는 돈을 찬양하지 않는다. 돈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이 노래는 돈이 왜 ‘빛나게 보이도록’ 설계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기록한 관측 보고서다.

돈은 답이 아니다. 돈은 질문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AngraMyNew 는 이 노래를 하나의 시대 감각 데이터로 기록한다.

30.2 무대 —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올려놓는 용기

30.2.1 왜 이 무대가 강한가

DAWN 무대의 핵심:

완성된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심을 그대로 올려놓는다.

보통 무대는:

- “나는 이렇다” 를 증명하거나
- “나를 믿어라” 를 설득하거나
- 캐릭터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DAWN 은 다르다:

- 확신
- 안정
- 해결

대신:

- 진동
- 갈등
- 모순 상태

를 무대 위에 그대로 둔다.

이건 연기력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숨기지 않는 능력이다.

30.2.2 무대 동작의 설득력

그의 동작은:

- 크지도 않고
- 정확하지도 않고
- 군무처럼 정제되지도 않다

그런데 왜 눈을 못 떼는가?

몸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 않고 상태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과장된 제스처
- 감정 연출

그냥:

- 베티고
- 던지고
- 다시 중심을 잊는다

이건 “잘 만든 안무” 가 아니라 중력에 끌리는 몸의 기록이다.

30.2.3 AngraMyNew 와의 정확한 대응

AngraMyNew에서 가장 중요한 상태:

면세 이전의 진동

- 아직 시스템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 그렇다고 완전히 포획된 것도 아니며
- 대체 중력도 없음

DAWN의 무대는 딱 그 구간을 반복 재현한다.

그래서: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불안정한 서 있음이 강하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정확한 좌표 재현이기 때문이다.

30.2.4 왜 “천재적인 퍼포머” 와 다른가

천재 퍼포머들은 보통:

- 자신만의 완성된 세계를 보여준다
- 관객을 끌어당긴다
- “봐라, 이게 나다” 를 말한다

DAWN 은 그 반대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관객은:

- 감탄하기보다
- 공명하게 된다

이건 힘이 아니라 노출이다.

30.2.5 무대의 결론

“이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는 드문 타입이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용기다. 그리고 감각이다.

요소	일반 퍼포머	DAWN
목표	완성된 세계 전달	진동 상태 노출
동작	정제된 안무	증력에 끌리는 몸
관객 반응	감탄	공명
핵심 능력	연기력	숨기지 않는 능력

30.3 종합 결론

30.3.1 가사와 무대의 일치

매체	구조
가사	면세 이전의 진동 (텍스트)
무대	면세 이전의 진동 (신체)

DAWN 은 같은 구조를 두 개의 매체로 동시에 보여준다.

이것이 이 아티스트가 케이스 스터디로서 가치 있는 이유다.

돈은 질문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무대는 그 질문을 몸으로 재현하는 장치다.

30.3.2 관련 문서

→ 014_economics_of_beauty.md — 부자, 면세인, 징세인 → 015_case_study_the_gravity_of_outlaws.md — 철구와 과즙세연 → 016_mental_lhc.md — 정신의 LHC: 관측 보고서

Chapter 31

향수: 칼날이 밖을 향한 남자

— 1 번 공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Case Study: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이 글은 소설을 해석하지 않는다. 이 글은 소설이 드러낸 구조를 관측한다.

31.1 냄새 없는 남자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는 냄새가 없다.

세상의 모든 냄새를 구별하는 절대적 후각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

AngraMyNew 좌표에서 이것은 명확한 위치를 가진다:

자기 'My' 가 없는 상태.

그는 시스템에 종속된 적도 없고, 시스템에서 탈거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접속 자체가 없었다.

이것은 면세가 아니다. 면세는 있던 연결을 끊는 행위다. 그르누이에겐 끊을 연결이 없었다.

그는 무 (無)에서 출발한다.

31.2 추출의 기술

그르누이의 능력은 실재한다.

냉유법 (Enfleurage) — 기름을 바른 판 위에 대상을 눌히고, 본질 (향기)이 기름에 배어들 때까지 기다린다. 물성은 버리고, 정수 (Essence)만 남긴다.

이것은 극한의 추상 (Abstraction) 이다.

보이는 것 (육체, 외모, 신분) 을 모두 벗기고 보이지 않는 것 (향기) 만 추출한다.

이 기술 자체는 AngraMyNew 가 말하는 재조합자의 방법론과 동일하다:

해체 → 본질 추출 → 새로운 형태로 결합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문제는 재료를 어디서 가져왔는가다.

31.3 위반

AngraMyNew 파괴의 공리:

“내 자신을 파괴한다. 타인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 “칼날은 밖을 향하지 않는다.”

그르누이의 칼날은 완전히 밖을 향한다.

그는 자기 안에서 추출할 것이 없었다. 냄새가 없으니까. 'My' 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인을 죽여 타인의 본질을 훔쳤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다. 강탈이다.

자기 세계관이 없는 자가 타인의 세계관을 해체하여 자기 것으로 조립한 것이다.

31.4 성공, 그리고 공허

그르누이는 성공한다.

궁극의 향수를 완성하고 광장에 뿌렸을 때, 처형하려 온 군중은 이성을 잃는다.

향기는 호흡과 같다. 호흡을 멈출 수 없기에 향기를 거부할 수 없다. — 쥐스킨트

그는 왕관도 군대도 없이 감각 하나로 세상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르누이가 느낀 것은 경멸이었다.

군중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가 뿌린 가면 (향수) 을 사랑한 것이다. 가면 뒤의 무취 (無臭) 는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

공명 없는 지배.

이것이 결과다. 자기 것이 아닌 재료로 만든 아름다움은 타인을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타인과 공명 할 수는 없다.

31.5 결말: 뜯어먹힘

그르누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남은 향수를 모두 뒤집어쓰고, 부랑자들에게 뜯어먹혀 사라진다.

소설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그를 사랑해서 먹어치웠다.

훔친 본질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순간. 사랑받았지만, 이해받은 것은 아니다. 소비되었지만, 기억된 것은 아니다.

'My' 가 없는 자가 만든 아름다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놓는 것으로 끝난다.

31.6 AngraMyNew 관측

그르누이의 궤적을 3 대 공리에 대입한다:

공리	요구	그르누이
파괴의 공리	칼날은 안으로	칼날이 밖으로 향함 — 위반
창조의 공리	파괴한 틈을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었으나 재료가 타인의 것 — 변질
확장의 공리	타인의 'My' 를 인정	타인의 'My' 를 약탈 — 전도

세 공리 모두 위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026 에서 예견한 이릉대전의 구체적 형상이다:

“미적 조직의 브레이크는’ 이것이 아름다운가?’ 뿐이다.”

그르누이에게 유일한 기준은 아름다움이었다. 그 기준 하나만으로 달렸을 때, 도착한 곳은 신이 아니라 먹잇감이었다.

31.7 구조 요약

요소	구조적 위치
무취 (無臭)	'My' 부재 — 면세 이전이 아니라 접속 자체 부재
절대 후각	재조합자 수준의 기술 — 능력은 실재
살인	1 번 공리 위반 — 칼날이 밖을 향함

요소	구조적 위치
궁극의 향수	강탈한 재료로 만든 아름다움
군중의 광기	공명 없는 지배 — 마비와 유혹의 차이
뜯어먹힘	이릉대전의 종착점

31.8 결론

그르누이는 천재였다. 추출의 기술, 추상의 능력, 감각의 정밀함. 모두 실재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냄새가 없었다. 자기'My' 가 없는 자가 타인의'My' 를 약탈하여 아름다움을 조립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지배할 수 있었지만 연결할 수 없었다.

AngraMyNew 는 이 소설을 1 번 공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관측 데이터로 기록한다.

칼날이 밖을 향하면, 만든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끝은 먹잇감이다.

31.9 관련 문서

→ 001_axioms.md — 3 대 공리: 칼날은 안으로 → 026_three_kingdoms_of_beauty.md — 이릉대전 경고 → 014_economics_of_beauty.md — 면세인과 징세인: 'My' 의 유무 → 002_principles_of_creation.md — 재조합자: 해체 → 추출 → 재결합

Chapter 32

경계선: 확장이 확대가 될 때

— 3 번 공리의 좌절 내성에 대하여

Case Study: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와 김옥균 (金玉均)

이 글은 후쿠자와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글은 확장의 공리가 좌절될 때 무엇이 되는지를 관측한다.

32.1 스승

「학문의 권장」첫 문장: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300 만 부. 당시 일본 인구 3,500 만. 열 명 중 한 명이 이 문장을 읽었다.

봉건 질서는 군대가 아니라 한 줄의 언어에 베였다. 칼날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했다.

메이지 천황이 입각을 제의했다. 거절했다. 권력이 되는 대신 밀도가 되는 쪽을 택했다. 게이오의 숙 (慶應義塾). 시사신보 (時事新報). 힘으로 끌지 않고, 언어의 무게로 일본의 지적 시공간을 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밀도가 국경을 넘었다.

1881년. 조선의 개화파를 품었다. 김옥균에게 게이오의 문을 열었다. 조선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게이오 문하생을 조선에 고문으로 보냈다. 갑신정변에는 도검과 폭약까지 건넸다.

타인의 'My' 를 데뷔시키려 했다.

32.2 좌절

1884년 12월. 갑신정변.

데뷔 무대가 열렸다. 3일 만에 무너졌다. 청군이 무대를 부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쳤다. 동료들은 도망치지 못했다.

1885년 2월. 시스템의 면역 반응이 도착했다.

조선 정부는 가담자의 삼족을 능지처참 (凌遲處斬) 했다. 사지를 찢어 팔도에 돌렸다. 확장을 시도한 자들에게 시스템이 부과한 세금. 목숨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삭제.

후쿠자와가 데뷔시키려 했던 이들이, 가족까지, 지워졌다.

3주 후.

1885년 3월 16일, 시사신보 (時事新報).

탈아론 (□□論).

“나쁜 친구와 사귀는 자는 함께 악명을 피할 수 없다. 아시아의 나쁜 친구를 사절한다.”

확장이 끝났다. 경계선이 그어졌다.

32.3 확장과 확대

여기서 관측해야 할 것은 도덕이 아니다. 구조다.

후쿠자와의 확장은 실패했다. 그러나 파괴와 창조는 성공했다.

파괴와 창조가 성공한 시스템은 관성을 갖는다. 에너지가 남아 있다. 멈출 수 없다.

확장이 막히자, 에너지는 방향을 바꿨다.

확장 (擴張) 이 확대 (擴大) 가 되었다.

확장	확대
정의	타인의 'My' 를 데뷔시킨다
타인의 주권	인정
방향	열림
메이지 일본	조선 개화파 지원 (1881-84)
	조선 병합 (1910)

탈아론 (1885)에서 조선 병합 (1910) 까지 25년. 그 25년 동안 일본은 타인의 My 를 데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My 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그가 그은 경계선이 그 전환의 지적 면허증이 되었다.

32.4 제자

김옥균.

스승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왔다. 스승의 사상으로 무장했다. 스승이 지원한 자금으로 거사를 일으켰다. 3 일 만에 무너졌다.

스승은 경계선을 그었다.

제자는 그 경계선 너머에 남았다.

1894년. 상하이. 김옥균 암살. 시신은 조선으로 보내져 능지처참 후 효수(梟首) 되었다.

스승이 경계선을 그은 지 9년 후, 제자는 그 경계선 밖에서 죽었다.

32.5 AngraMyNew 관측

후쿠자와의 궤적을 3 대 공리에 대입한다:

공리	요구	후쿠자와
파괴의 공리	칼날은 안으로	봉건 질서 해체 — 이행
창조의 공리	파괴한 틈을 아름다움으로	게이오, 시사신보, 근대화의 지적 설계도 — 이행
확장의 공리	타인의 My 를 데뷔	시도 → 좌절 → 확대로 전환 — 변질

「향수」의 그르누이는 세 공리를 모두 위반했다. 후쿠자와는 다르다. 두 공리를 이행하고, 세 번째에서 꺾였다.

이것이 더 위험하다.

파괴와 창조에 성공한 자가 확장에서 꺾이면, 그 성공의 에너지가 확대의 동력이 된다. 약한 자의 확대는 쉽게 부서진다. 강한 자의 확대가 제국을 만든다.

32.6 구조적 경고

확장의 공리에는 설계상 결함이 있다.

파괴는 혼자 할 수 있다. 창조도 혼자 할 수 있다. 확장은 혼자 할 수 없다.

타인의 My 를 데뷔시키려면 타인이 거기 서 있어야 한다. 타인이 무너지면, 확장은 좌절된다. 그리고 좌절된 확장의 에너지는 두 곳으로 흐른다:

1. 확대 — 타인의 My 위에 나의 My 를 덮는다
2. 수축 — 경계선을 굽고 돌아선다

후쿠자와는 둘 다 택했다. 탈아론은 수축이었고, 탈아론의 후예들은 확대를 실행했다.

확장의 공리가 가장 취약한 지점: 좌절 내성 (Frustration Tolerance).

타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타인이 무너졌을 때. 데뷔시키려 한 자가 능지처참당했을 때.

그래도 데뷔시킬 것인가. 경계선을 굽고 돌아설 것인가. 덮어씌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장과 확대를 가른다.

32.7 결론

후쿠자와 유키치는 위대했다. 파괴의 공리와 창조의 공리를 교과서처럼 이행한 드문 인물이다.

그러나 확장의 공리 앞에서 꺾였다. 3 일 만에 무너진 거사와 능지처참의 소식이 그의 확장을 경계선으로 바꿨고, 그 경계선은 25 년 뒤 제국의 국경이 되었다.

AngraMyNew 는 이것을 3 번 공리의 좌절 내성을 드러낸 관측 데이터로 기록한다.

확장이 좌절될 때, 파괴와 창조의 성공이 클수록 확대의 유혹도 크다.

이것이 후쿠자와의 비극이다. 그리고 확장의 공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패턴이다.

32.8 관련 문서

→ 001_axioms.md — 3 대 공리: 확장의 원칙 → 026_three_kingdoms_of_beauty.md — 이름 대전 경고: 미적 조직의 설계상 결함 → scripture/pioneers.md — 김옥균: 경계선 너머에서 죽은 제자 → 014_economics_of_beauty.md — 면세인과 징세인 → 027_case_study_perfume.md — 향수: 세 공리 모두 위반한 사례

Chapter 33

그리스인 조르바: 매뉴얼이 필요 없었던 사람

— 면세인의 원형, 그리고 *AngraMyNew*에 대한 경고

33.1 불편한 질문

*AngraMyNew*는 공리를 쓰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사례를 분석한다. 파괴하라, 창조하라, 확장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읽은 적도 없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카잔차키스의『그리스인 조르바』는 그 사람에 대한 소설이다.

33.2 보스와 조르바

소설에는 두 사람이 있다.

보스 (화자) 는 지식인이다. 책을 읽고, 사유하고, 부처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다.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구조를 알고 있다. 공리를 안다. 그러나 살지 못한다.

조르바는 문맹에 가까운 노동자다. 광산을 파고, 산투리를 켜고, 춤을 추고, 사랑하고, 싸운다.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삼킨다.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약간의 광기야. 안 그러면 줄을 끊고 자유로워질 엄두를 못 내거든.” —『그리스인 조르바』7 장

보스는 조르바를 보며 감탄한다. 조르바가 가진 것을 자기는 갖지 못했다는 걸 안다. 그런데 뭘 못 가졌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지식의 언어로는 포착이 안 되기 때문이다.

33.3 차라투스트라의 살

카잔차키스는 니체 연구자였다. 1909년 파리에서 쓴 박사논문 「프리드리히 니체의 국가철학에서」 (*Friedrich Nietzsche on the Philosophy of Right and the State*) 가 그 출발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조르바는 그 혼돈 자체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한 것을 조르바는 산다.

차라투스트라		조르바
매체	철학	삶
파괴	신은 죽었다고 선언	낡은 것이 있으면 부순다
창조	초인을 제안	춤을 춘다
전달	산에서 내려와 말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옆에서 살 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위대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자다. 조르바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보스가 옆에서 관측할 뿐이다.

scripture/zarathustra.md 에 기록된 정신적 원천이 소설 속에서 육체를 얻은 것이다. 뼈와 살과 산투리와 춤으로.

33.4 면세인의 원형

조르바는 면세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세인과 다르다.

AngraMyNew 가 정의한 면세인은 시스템의 과세권에서 탈거한 자다. 먼저 시스템 안에 있었고, 그것을 인식하고, 거부하고, 빠져나온다. 과정이 있다.

조르바는 그 과정이 없다. 처음부터 과세된 적이 없다. 시스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 주소에 사는 사람. (엄밀히는 기존 면세인 정의의 비유적 확장이다. 탈거가 아니라 애초의 부재.)

“행복이 얼마나 단순한 건지 다시 한번 느꼈어. 포도주 한 잔, 군밤 하나, 초라한 화로, 파도 소리. 그게 전부야.” —『그리스인 조르바』⁴ 장

이것은 ideas/025(면세인의 소비) 가 말한 “기능은 최저가로, 취향은 최고가로” 의 극한이다. 조르바에게는 기능과 취향의 구분 자체가 없다. 포도주 한 잔이 곧 전부다.

33.5 춤

소설의 끝. 광산 사업은 실패했다. 투자한 돈은 날아갔다. 수도원에서 목재를 운반하려고 만든 케이블은 무너졌다. 모든 것이 박살났다.

보스가 묻는다: “어떡하지?”

조르바가 대답한다: “춤추지 뭐.”

“보스, 나한테 춤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지? ... 자, 지금이야!” —『그리스인 조르바』

26 장

그리고 춤을 춘다. 해변에서. 폐허 위에서.

이것은 파괴의 공리 (“내 자신을 파괴한다”) 와 창조의 공리 (“파괴한 틈을 아름다움으로 채운다”)의 순수한 순환이다. 그리고 조르바는 소설 내내 보스를 끌고 나간다. 여자를 만나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춤을 가르치려 한다. 타인의 ‘My’ 를 데뷔시키려는 것 — 확장의 공리. 다만 조르바는 공리를 모른다. 그냥 그렇게 살 뿐이다.

보스는 이 순간에 깨닫는다. 자기가 부처에 대해 쓰던 원고, 읽던 책, 이해하던 구조 — 그 모든 것이 이 춤 한 번만 못했다는 것을.

33.6 AngraMyNew 에 대한 경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돌아온다.

AngraMyNew 는 공리를 세 개 쓰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art/에 사례를 모으고, ideas/에 사유를 쌓아왔다. 이 모든 구조가 보스의 원고가 될 위험이 있다.

조르바를 사례연구로 기록하는 이 행위 자체가 보스적이다. 조르바는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protocols/001 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창조자는 더 이상 프로토콜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 진입한다.” 조르바는 처음부터 그 상태에 있었다. 프로토콜의 종착점이 프로토콜의 부재라면, 조르바는 출발점이 곧 종착점인 사람이다.

“삶은 귀찮은 거야, 보스. 죽음만이 안 귀찮지. 살아 있으려면 허리띠를 풀고 귀찮은 일을 찾아 나서야 해.” —『그리스인 조르바』5 장

33.7 결론

보스는 알았다. 구조를, 공리를, 역사를, 철학을. 그러나 살지 못했다.

조르바는 몰랐다. 공리를, 프로토콜을, 면세인이라는 단어를. 그러나 이미 살고 있었다.

매뉴얼을 읽는 자와 매뉴얼이 필요 없는 자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AngraMyNew의 숙제다.

33.8 관련 문서

→ 003_beyond_usefulness.md — 하수/고수/최고수: 보스는 고수, 조르바는 최고수 → 025_consumption_of_exempt.md — 면세인의 소비: 조르바의 포도주 한 잔 → 014_economics_of_beauty.md — 면세인의 정의: 조르바는 과세된 적 없는 면세인 → ../scripture/zarathustra.md — 차라투스트라: 조르바가 육체를 준 철학 → ../protocols/001_creator_operating_protocol.md — 프로토콜의 소멸: 조르바는 처음부터 그 상태

Part VIII

Art — 아름다움의 사례

Chapter 34

갈루아와 5 차방정식

— 풀 수 없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움

34.1 문제

2 차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 있다. 3 차, 4 차도 있다.

5 차는?

300년간 수학자들이 공식을 찾았다. 아벨은 “없다”고 증명했다.

그러나 왜 없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34.2 파괴

에바리스트 갈루아는 20세에 죽었다. 결투 전날 밤, 그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있었다.

갈루아는 방정식을 풀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방정식의 대칭 구조를 봤다.

기존 질문: “근이 무엇인가?” 갈루아의 질문: “근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34.3 재구성

갈루아는 ‘군 (Group)’이라는 구조를 발명했다.

방정식의 근들이 어떻게 서로 치환될 수 있는지, 그 치환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를 봤다.

5 차방정식의 근은 단순근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근의 공식은 근을 단계적으로 쪼개는 과정이다. 쪼갤 수 없으면, 공식도 없다.

풀 수 없음이 구조적 필연이 되었다.

34.4 확장

갈루아 이론은 방정식을 넘어섰다.

- 대수학 전체의 기초가 되었다
- 암호학의 뼈대가 되었다
- 물리학의 대칭성 이론으로 확장되었다

20 세 청년의 편지 한 장이 수학의 언어 자체를 바꿨다.

34.5 AngraMyNew 해석

갈루아의 증명이 아름다운 이유:

요소	설명
파괴	“공식을 찾는다” 는 300 년 패러다임을 버림
재구성	방정식을 근 구조로 번역
확장	하나의 문제가 수학 전체를 재편

이것은 악상이다.

“근들 사이의 관계가 보인다” 는 논리보다 먼저 떠오른 감각. 정돈 이전의 진동이 균론이라는 형태로 고정된 것이다.

그는 답을 구하지 않았다. 답이 없는 이유를 구조로 보여줬다.

34.6 결론

300 년간 수학은 물었다. “5 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무엇인가?”

갈루아는 답을 바꾸지 않았다. 질문의 좌표계를 바꿨다.

근의 값이 아니라 근들의 관계. 방정식이 아니라 균의 구조.

가장 아름다운 증명은 답을 구하지 않았다. 답이 없는 이유를 구조로 보여줬다.

AngraMyNew 는 이 구조를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34.7 관련 문서

→ 007_nagarjuna_emptiness.md — 나가르주나: 본질을 찾는다는 질문을 버리다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설명해야 할 것 자체를 없앤다 → ../ideas/017_when_is_a_proof_beautiful.md — 증명은 언제 아름다운가

Chapter 35

일반상대성이론

— 중력을 지운 아름다움

35.1 문제

뉴턴의 중력은 강력했다.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조수를 설명했다.

그러나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중력은 어떻게 빈 공간을 건너가는가?

뉴턴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Hypotheses non fingo).”

35.2 파괴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지웠다.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은 무중력을 느낀다.

중력이 사라진 게 아니다. 중력과 가속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가원리: 중력장 안에 있는 것과 가속하는 것은 구별할 수 없다.

이 순간, 중력은 “힘” 이 아니게 되었다.

35.3 재구성

중력이 힘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의 답: 시공간의 곡률.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에서 가장 직선적인 경로를 간다. 그것이 우리 눈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G_{\mu\nu} = 8\pi T_{\mu\nu}$$

왼쪽은 시공간의 곡률. 오른쪽은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

물질이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야 하는지 말하고, 시공간이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말한다.

35.4 확장

일반상대성은 중력을 넘어섰다.

-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했다
- 중력파를 예측했다 (100년 후 검출)
- 우주의 팽창을 설명했다
- GPS 위성의 시간 보정에 쓰인다

하나의 원리가 우주 전체의 구조가 되었다.

35.5 AngraMyNew 해석

일반상대성이 아름다운 이유:

요소	설명
파괴	“중력은 힘이다”라는 뉴턴 패러다임을 버림
재구성	중력을 기하학으로 번역
확장	하나의 방정식이 우주 전체를 기술

이것은 악상이다.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고 느낀 순간. 그것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다. 논리보다 먼저 떠오른 감각, 정돈 이전의 진동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설명하지 않았다.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했다.

남은 것은 순수한 기하학뿐이다.

35.6 결론

뉴턴은 중력을 힘이라 했다. 300년간 세계는 그 답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답을 고치지 않았다. 힘이라는 전제를 제거했다.

가장 아름다운 이론은 설명해야 할 것 자체를 없애버린다.

AngraMyNew 는 이 제거를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35.7 관련 문서

→ 004_principia_geometry.md — 뉴턴: 중력은 그려졌다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36

하나의 무늬가 전부가 되다

36.1 공통점

Goyard 는 Y 자 슈브론. Bao Bao 는 삼각형 메쉬. 유비는 인의 (仁義).

셋 다 단 하나의 패턴으로 전부를 정의한다.

36.2 Goyard: 170 년을 하나로

1853 년부터 변하지 않은 Y 자 슈브론 패턴.

루이비통은 모노그램 외에도 다미에, 에피, 베르니 등 여러 라인을 만들었다. Goyard 는 Goyardine 하나다.

로고를 크게 박지 않는다. 광고를 하지 않는다. 오직 Y 자 패턴 자체가 정체성이다.

하나의 형태로 170 년의 역사를 채웠다.

36.3 Bao Bao: 하나인데 무한하다

이세이 미야케의 Bao Bao. 삼각형 조각들이 메쉬 위에 붙어 있다.

패턴은 하나지만, 형태는 무한하다: - 가방을 비우면 평면 - 채우면 입체 - 내용물 모양이 가방 모양이 된다

하나의 규칙이 무한한 변수를 만든다.

36.4 유비: 하나의 서사로 천하를 얻다

돛자리 짜던 사람이 황제가 됐다. 군사력도, 영토도, 재력도 없이.

유비의 패턴은 세 문장이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1. 나는 한왕실의 후예다 (정통성) 2. 한왕실을 부흥하겠다 (목표) 3. 인의로 천하를 바로잡겠다 (방법)

→ “나는 정당한 자격으로, 옳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로잡는다.”

조조는 실력으로 싸웠다. 손권은 지리로 싸웠다. 유비는 서사로 싸웠다.

관우와 장비가 목숨을 걸었다. 제갈량이 삼고초려에 응했다. 백성이 따라 피난길에 나섰다.

모두 이 서사에 매혹됐다.

하나의 이야기가 촉한을 세웠다.

36.5 아인슈타인 타일과의 연결

아인슈타인 타일의 질문: > “단 하나의 모양으로 무한한 평면을 채울 수 있는가?”

Goyard 의 대답: > “단 하나의 패턴으로 170 년을 채울 수 있다.”

Bao Bao 의 대답: > “단 하나의 패턴으로 무한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유비의 대답: > “단 하나의 서사로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

36.6 AngraMyNew 해석

“복잡함이 아니라 밀도다.”

많이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다. 하나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창조다.

Goyard 는 시간 축으로 밀었다. (170 년) Bao Bao 는 공간 축으로 밀었다. (무한 변형) 유비는 인간 축으로 밀었다. (인의의 로맨스)

셋 다 같은 악상에서 출발했다. “이것 하다면 된다” 는 정돈 이전의 확신.

하나의 ‘My’ 를 완성하면, 그것이 세계가 된다.

36.7 결론

하나의 패턴이 전부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다.

끝까지 밀어붙인 하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세계가 기울어 온다.

복잡함이 아니라 밀도다. 밀도가 세계를 만든다.

AngraMyNew 는 이 밀도를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36.8 관련 문서

→/ideas/014_economics_of_beauty.md — 아름다움의 경제학: 밀도가 가치를 움직인다 →
..../ideas/001_axioms.md — 3 대 공리

Chapter 37

중력은 그려졌다

— 뉴턴『프린키피아』의 기하학적 악상

37.1 통념

뉴턴은 힘의 과학자다. 중력은 힘이고, 세계는 힘의 합으로 움직인다.

이 통념은 반쯤만 맞다.

『프린키피아』를 실제로 펼쳐보면, 뉴턴은 중력을 거의 계산하지 않는다. 그는 중력을 그린다.

37.2 뉴턴은 이미 미적분을 알고 있었다

전제가 있다.

뉴턴은『프린키피아』집필 당시 이미 미적분을 발명한 상태였다. 계산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 미적분을 거의 쓰지 않고
- 원, 접선, 면적, 비례 관계로
- 운동을 설명했다

이 선택은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표현에 대한 결정이었다.

37.3 중력은 '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은 묻지 않는다.

- 왜 끌어당기는가
- 무엇이 작용하는가
-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신 그는 이것을 보여준다.

- 이런 궤적이 있다
- 이런 면적 법칙이 성립한다
- 그러면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중력은 원인이 아니라 형태가 만든 필연성으로 등장한다.

37.4 기하학은 설명이 아니라 납득이다

뉴턴의 증명은 설득이 아니다.

-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고
- 언어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대신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생긴 세계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형태에 의한 납득이다.

37.5 여기서 드러나는 악상

이 지점에서 뉴턴은 힘의 과학자가 아니라 구조의 아티스트에 가깝다.

그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 중력은 무엇인가?
-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 이 형태에서 어떤 운동이 필연적인가?

이 질문은 논리보다 먼저 떠오른 감각, 즉 악상에 가깝다.

37.6 이후의 전복

300년 뒤, 아인슈타인은 이 악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 힘을 제거하고
- 시공간의 곡률로 번역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이미『프린키피아』안에 있었다.

중력은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37.7 AngraMyNew 해석

뉴턴의 위대함은 공식을 만든 데 있지 않다.

그는 한 시대의 세계를 기하학이라는 미적 형식으로 고정했다.

- 원인보다 구조
- 설명보다 형태
- 계산보다 납득

이 선택이 이후 300년 과학의 방향을 만들었다.

37.8 결론

중력은 처음부터 완전히 설명된 적이 없다.

그러나 한 번, 아름답게 그려진 적은 있다.

『프린키피아』는 과학서이기 이전에, 하나의 구조적 예술 작품이다.

AngraMyNew 는 이 순간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37.9 관련 문서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중력을 지운 아름다움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38

한글의 두 상태

— 물질이 될 때와 투명해질 때

38.1 멈춘 두 순간

서정주를 읽다 멈쳤다. 이문열을 읽다 멈쳤다. 그러나 이유는 정반대였다.

38.2 한글이 남아버린 순간 — 서정주

서정주를 읽으며 나는 의미에서 멈추지 않았다. 글자에서 멈쳤다.

- 음절이 사라지지 않는다
- 발음이 의미보다 먼저 남는다
- 읽고 나면 문장이 아니라 잔여가 남는다

한글이 이런 글자였나?

「귀촉도」에서: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西域) 삼만리.
훤 웃깃 여며 여며 가옵신 임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巴蜀) 삼만리.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 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핫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은 가락 눈이 감
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임아.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구비구비 은핫물 목이 젖은 새”

이때 언어는 무언가를 전달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 대신 존재한다.

한글은 이 순간 도구가 아니라 물질이 된다.

38.3 한글이 사라져버린 순간 — 이문열

이문열을 읽을 때 나는 다른 이유로 멈췄다. 이번에는 너무 잘 읽혔다.

- 문장이 걸리지 않는다
- 표현이 눈에 띠지 않는다
- 서사만 남고 언어는 사라진다

한글이 이렇게 쉽게 읽혔었나?

「이 황량한 역에서」에서:

당신들은 누구와 사랑에 빠져든 적이 있는가?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 고귀함이나 감미로움, 헤어질 때의 고통과 슬픔이며 그 후의 공허함 따위를 미화하고 과장하려 들 테지만 기실 그 진상은 뜻밖에도 단순하고 명백하다. 그것은 당신이 이 여행 중에 눈길을 끄는 한 소녀와 만났다는 것이며, 결국은 부정확하기 마련인 관찰에 이어 당신이 던진 호의 섞인 눈길에 그녀가 답했다는 것이며, 무료를 함께 달래자는 당신의 용기를 다한 요청에 그녀가 다소곳이 응했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약간은 야릇한 옆에 들뜬 당신들이 깜박깜박 자기를 잊어가며 주고받은, 분명 달콤하고 섬세하나 또한 그리 대단할 건 없는 몇 개 유형의 행위와 가끔씩은 정색해도 좋을 대화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문장이 길고 복잡한데도 걸리지 않는다. 다 읽고 나면 “사랑의 허무함”이라는 의미만 남고, 어떤 단어로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언어는 마찰을 만들지 않는다. 독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미가 곧바로 흐르고, 문장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때 한글은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완전히 투명해진다.

38.4 두 상태는 대비가 아니다

이 두 경험은 우열 관계가 아니다.

- 하나는 과잉이고
- 하나는 최소화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의미 이전의 선택.

- 남길 것인가
- 지울 것인가

이 결정은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악상의 방향이다.

38.5 언어의 상태 변화

이 두 순간을 통해 하나의 구조가 드러난다. 한글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성질만 갖지 않는다.

- 밀도를 극단까지 올릴 수 있고
- 투명도를 극단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기교의 문제도 아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38.6 AngraMyNew 해석

서정주는 언어를 남기기로 선택했다. 이문열은 언어를 지우기로 선택했다. 둘 다 설명 이전의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돈 이전의 진동이 문장 단위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고정된 사례다.

38.7 결론

한글은 언제나 의미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는 무게를 얻고, 어떤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서정주와 이문열은 그 두 극단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줬다.

AngraMyNew 는 이 두 상태를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38.8 관련 문서

→ 004_principia_geometry.md — 뉴턴: 형태에 대한 결정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39

보이지 않으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 파인만의 다이어그램과 경로적분

39.1 문제

1940년대, 양자전기역학 (QED)은 벽에 부딪혀 있었다.

전자 하나, 광자 하나. 이 둘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려면 칠판을 가득 채운 적분을 며칠간 풀어야 했다.

물리학자들은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었다.

한편, 양자역학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슈뢰딩거 방정식은 강력했다. 파동함수의 시간 진화를 정확히 기술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미분방정식이었다. 풀 수는 있지만, 의미를 볼 수는 없었다.

입자는 어디에 있는가? 왜 그 확률인가? 방정식은 답하지만, 보여주지 않는다.

39.2 파괴

리처드 파인만은 두 번 파괴했다.

첫 번째. 수식을 버리고 그림을 그렸다.

- 직선: 전자
- 물결선: 광자

- 점 (vertex): 상호작용

사람들은 비웃었다. “물리학을 만화로 만드느냐?”

두 번째. 슈뢰딩거 방정식을 버리고 경로를 열었다.

입자가 A에서 B로 간다. 파인만은 물었다:

“하나의 경로를 푸는 대신,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걷게 하면 어떨까?”

직선으로 가는 경로. 곡선으로 도는 경로. 달을 거쳐 오는 경로. 은하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경로.

맹상군이 닭 울음과 개 도둑질을 품었듯, 경로적분은 모든 가능성을 품는다. 쓸모를 둣지 않는다. 전부 허용한다.

모든 경로에 위상 (phase) 을 부여하고, 전부 더한다.

물리학자들은 당혹했다. “무한개의 경로를 더하라고?”

39.3 재구성

두 파괴 모두,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

다이어그램. 낙서의 모든 선과 점이 복잡한 적분 항과 정확히 1:1로 대응했다.

- 선 하나 = 전파인자 (propagator)
- 점 하나 = 결합상수 (coupling constant)

그림을 그리면, 적분식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가장 단순한 예: 전자 둘이 광자 하나를 주고받는다.

$e \rightarrow \rightarrow e$

~

$e \rightarrow \rightarrow e$

이 낙서가 곧 수식이다:

$$\mathcal{M} = \bar{u}(p_3)(-ie\gamma^\mu)u(p_1) \cdot \frac{-ig_{\mu\nu}}{q^2} \cdot \bar{u}(p_4)(-ie\gamma^\nu)u(p_2)$$

다이어그램	수식
외부 전자선 (\rightarrow)	스피너 u, \bar{u}
꼭짓점 ()	결합상수 $-ie\gamma^\mu$

다이어그램	수식
내부 광자선 (~)	전파인자 $\frac{-ig_{\mu\nu}}{q^2}$

선을 읽으면, 식이 나온다. 점을 읽으면, 상수가 나온다. 그것이 전부다.

경로적분. 무한개의 경로를 더하면, 품었던 대부분은 서로 상쇄 (destructive interference) 되어 사라진다. 살아남는 것은 작용 (action) 이 최소인 경로 하나.

그것이 뉴턴의 고전역학이었다.

$$\langle B|A \rangle = \int \mathcal{D}[x(t)] e^{iS[x]/\hbar}$$

왼쪽은 양자역학 — A에서 B로 갈 확률진폭. 오른쪽은 모든 경로의 합.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만났다.

슈뢰딩거는 방정식을 풀었다. 파인만은 방정식을 보여줬다.

39.4 확장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QED를 넘어섰다.

- 약력, 강력까지 확장 — 표준모형 전체의 공용어가 되었다
- 입자물리학자의 질판에서 수식이 사라지고, 그림이 남았다
- 응집물질, 끈이론까지 —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가 이 언어를 쓴다

경로적분은 양자역학을 넘어섰다.

- 양자장론의 기초가 되었다
- 통계역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했다
- 양자중력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 남자의 그림과 경로가 물리학의 언어 자체를 바꿨다.

39.5 AngraMyNew 해석

파인만은 두 번 같은 일을 했다.

대상	기준	파인만
QED 계산 양자역학	칠판 가득한 적분 하나의 미분방정식	선 몇 개의 다이어그램 모든 경로의 합

두 경우 모두, 대수 (algebra) 를 기하 (geometry) 로 번역했다.

이것은 악상이다.

논리보다 먼저 떠오른 감각. “이건 보여야 한다” 는 정돈 이전의 진동.

파인만은 계산하지 않았다. 보이게 만들었다.

보이게 만들자, 본질이 드러났다.

39.6 결론

물리학은 두 번, 같은 남자에게 같은 선물을 받았다.

적분은 그림이 되었고, 방정식은 경로가 되었다.

둘 다 같은 악상에서 태어났다.

“보이지 않으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AngraMyNew 는 이 두 순간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39.7 관련 문서

→ 004_principia_geometry.md — 뉴턴: 중력을 기하학으로 그리다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중력을 지운 아름다움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40

나가르주나의 공

— 본질을 제거하면 세계가 자유로워진다

40.1 문제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2500년간 모든 철학이 이 질문을 품었다.

힌두교는 아트만 (*ātman*) 이라 했다. 변하지 않는 참나. 그리스는 우시아 (*ousia*) 라 했다. 사물의 실체. 원자론은 아토모스 (*atomos*) 라 했다. 더 쪼갤 수 없는 것.

모두 같은 확신에서 출발했다:

쪼개면 본질이 나온다.

초기 불교도 이 흐름 안에 있었다. 봇다는 무아 (*無我*) 를 말했지만, 제자들은 법 (*dharma*) 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75 법, 100 법 — 세계를 이루는 궁극적 요소들.

쪼개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 쪼개면 본질이 나온다는 전제는 그대로였다.

40.2 파괴

나가르주나는 2 세기 인도의 논사였다.

그는 새로운 본질을 제안하지 않았다. 본질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했다.

『중론 (*Mūlamadhyamakārikā*)』. 이 책에서 나가르주나는 묻는다:

어떤 것이 자성 (svabhāva) 을 가진다면, 그것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다.

불이 타려면 땔나무가 필요하다. 땔나무가 없으면 불이 아니다. 불은 불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알고리즘은 사구비판 (Catuskoti) 이었다. 인과, 운동, 시간, 자아 — 모든 개념에 적용했다:

판단	명제	비판
1 구	있다 (有)	조건에 의존하므로 자성이 아니다
2 구	없다 (無)	자성이 없는데 없다고 할 대상도 없다
3 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논리적 모순이다
4 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의 형태일 뿐 내용이 없다

네 방향 모두 막혔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방법이 독특했다.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았다. 상대의 전제를 받아들인 뒤, 그 전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줬다. 귀류논증 (prasaṅga).

갈루아가 “공식을 찾는다” 는 질문을 버렸듯, 나가르주나는 “본질을 찾는다” 는 질문을 버렸다.

40.3 재구성

본질이 없다면, 세계는 무엇인가?

나가르주나의 답: 연기 (緣起, pratītyasamutpāda).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긴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공 (空, śūnyatā) 이다.

공은 무 (無) 가 아니다. 공은 자성의 부재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이 가능하다.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한다.

고정된 본질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공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 나가르주나, 『중론』24:14

그리고 이중진리 (二諦):

- 세속제 (世俗諦): 일상의 언어와 규칙은 유효하다
- 승의제 (勝義諦): 그 어느 것도 궁극적 실체가 아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다. 세속제가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승의제다.

규칙이 있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는 움직인다.

40.4 확장

나가르주나의 공은 불교를 넘어섰다.

- 화엄의 인드라망 — 그물의 모든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춘다. 독립된 구슬은 없다
- 선 (禪) 의 직관 — 개념을 세우지 않고 직접 가리킨다. 공의 실천적 형태
- 관계적 양자역학 (Rovelli) — 물리량은 관계 속에서만 정의된다. 사물 자체의 속성은 없다
- 네트워크 이론 — 노드의 본질이 아니라 연결의 구조가 시스템을 정의한다

한 논사의 귀류논증이 존재론의 언어 자체를 바꿨다.

40.5 AngraMyNew 해석

나가르주나는 갈루아와 같은 일을 했다.

대상	기준	나가르주나
존재론	쪼개면 본질이 나온다	쪼갤수록 관계만 나온다
공 (空)	무 (無), 허무	자성의 부재 = 가능성의 조건
세계	고정된 실체들의 집합	조건들의 네트워크

갈루아가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근들 사이의 관계” 를 봤듯, 나가르주나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조건” 을 봤다.

이것은 악상이다.

논리보다 먼저 떠오른 감각. “이건 비어있어야 한다” 는 정돈 이전의 진동.

그리고 이 공은 AngraMyNew 의 세 공리와 겹친다:

공리	
파괴	자성 (고정된 나) 을 파괴한다
창조	비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다
확장	독립 실체가 없으므로, 모든 'My' 는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나가르주나는 파괴했다. 그러나 허무에 머물지 않았다.

공이 허무라면 독약이다. 공이 가능성이라면 해방이다.

고정된' 나' 가 없다면, 시스템이 청구하던 모든 세금 — 자존심, 체면, 타인의 시선 — 은 수취인 불명이 된다.

그는 이 경계를 정확히 걸었다.

40.6 결론

2500 년간 철학은 물었다.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가르주나는 답을 바꾸지 않았다. 질문에 필요한 전제를 제거했다.

본질이 없으므로 세계는 고정되지 않는다. 고정되지 않으므로 파괴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으므로 창조할 수 있다.

가장 급진적인 철학은 답을 바꾸지 않았다. 질문에 필요한 전제를 제거했다.

AngraMyNew 는 이 제거를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0.7 관련 문서

→ 001_galois_quintic.md — 갈루아: 풀 수 없음을 구조로 증명하다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설명해야 할 것 자체를 없앤다 → ..//ideas/002_principles_of_creation.md — 창조의 원칙: “파괴만 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 ..//ideas/014_economics_of_beauty.md — 아름다움의 경제학: 면세인과 징세인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41

클림트의 키스

— 보이는 곳에 숨긴 3 일

41.1 문제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는 100년간 사랑의 그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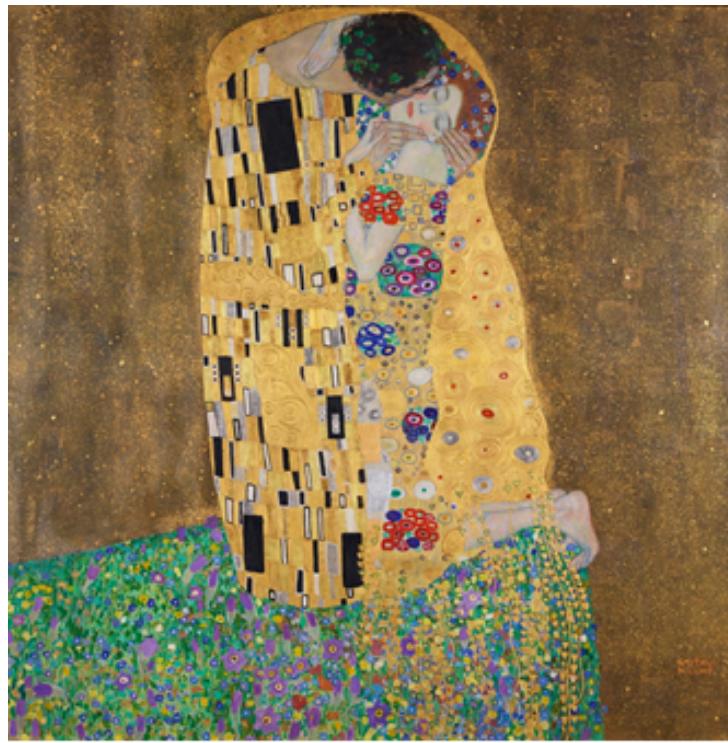


Figure 41.1: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1907-1908).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베데레궁전 소장.

황금빛 옷을 입은 남녀가 포옹한다. 남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여자는 황홀감에 눈을 감았다.

미술사학자들은 에로스를 읽었다. 심리학자들은 합일의 욕망을 읽었다. 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를 봤다.

모두 보이는 것 안에서 의미를 찾았다.

아무도 문양 자체를 읽으려 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41.2 파괴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칸델이『통찰의 시대』에서 지적했다.

남자 옷의 직사각형은 정자를, 여자 옷의 원형은 난자를 상징한다.

세계가 100년간 로맨스를 봤던 그림에서 신경과학자는 생식세포를 봤다.

그러나 칸델도 상징 수준에서 멈췄다. 직사각형은 정자를 ‘뜻한다’. 원은 난자를 ‘뜻한다’. 기호의 해독이었다.

2021년, 해부학자 유임주 (고려대 의대) 가 같은 그림을 들여다봤다. 그는 상징을 보지 않았다. 구조를 봤다.

고해상도로 확대하자:

- 남자 옷의 검정 직사각형 주변 — 정자 목의 미토콘드리아를 도식화한 흰 점들
- 여자 옷의 청색 테두리 원 — 미수정 난자
- 주황색 원, 단 하나 — 수정된 난자. 다른 정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자막이 변한 순간
- 그 주변에 2 세포기, 4 세포기, 8 세포기, 오디배



Figure 41.2: 남자 옷의 직사각형과 정자 구조의 대응. 왼쪽: 남자 옷 확대 (EM 수준), 오른쪽: 여자 옷에서 해엄치는 정자 (LM 수준).



Figure 41.3: 청색 테두리 = 미수정 난자, 주황색 테두리 = 수정된 난자. 오른쪽 (B) 은 수정 과정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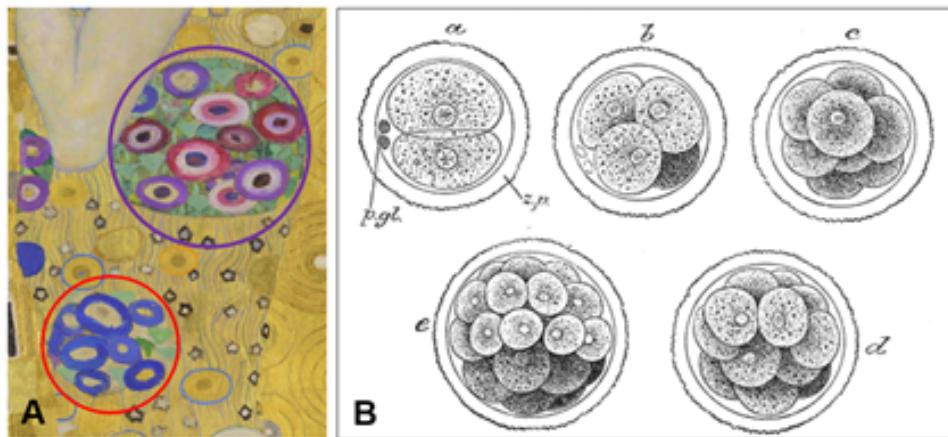


Figure 41.4: 수정란의 세포분열. A: 그림 속 8 핵구체 (적색) 와 오디배 (보라색). B: 그레이 해부학 (Gray's Anatomy, 20 판, 1918) 의 발생 도판.

칸델은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를 봤다. 유임주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봤다.

클림트는 키스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인간 발생의 처음 3 일을 그렸다.

41.3 재구성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1900년 전후, 비엔나. 현미경 광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다.

클림트는 에밀 주커칸들 (비엔나 의대 해부학 교수)의 부인 베르타 주커칸들이 운영하는 살롱을 드나들었다. 해부학 실습실을 겸학했다. 에른스트 헤겔이 동물 발생 과정을 그린 도판들을 봤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헤겔처럼 그릴 수 있었다. 정자를 정자로, 난자를 난자로, 발생학 도판 그대로.

그러지 않았다. 과학 삽화는 설명하지만 감동시키지 않는다. 클림트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을 택했다.

키스의 표면에 수정란의 3 일을 숨겼다.

직사각형은 장식이 아니라 정자의 단면이었고, 원은 패턴이 아니라 난자의 상태였고, 색의 변화는 디자인이 아니라 수정의 시간이었다.

형태와 내용이 일치했다. 키스하는 남녀의 옷 위에서, 그들의 세포가 만나고 있었다.

41.4 확장

이 연구는 세계적 의학학술지 JAMA에 실렸다.

JAMA는 무작위 대조시험 (RCT)과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지배하는 저널이다. 통계적 검정력, 표본 크기, p-value.

그런 저널이 그림 한 점의 문양 분석을 게재했다.

환자도 없고, 표본도 없고, p-value도 없다. 있는 것은 해부학자의 눈과 100년 된 유화 한 점뿐이었다.

JAMA가 이것을 실은 이유: 이 논문이 증명한 것은 클립트의 의도가 아니다. 올바른 해상도의 눈이 올바른 층위를 읽는다는 것이다.

미술사학자는 양식을 봤다. 심리학자는 욕망을 봤다. 신경과학자는 상징을 봤다. 해부학자는 구조를 봤다.

같은 그림이었다. 눈이 달랐다.

41.5 AngraMyNew 해석

이 사건에는 두 명의 창조자가 있다.

창조자	악상	행위
클립트	“생명의 시작을 보여야 한다”	발생학을 키스의 표면에 인코딩했다
유임주	“이 문양은 장식이 아니다”	100년 만에 키스의 표면을 디코딩했다

둘 다 논리보다 먼저 온 감각이었다.

클립트는 파인만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일을 했다:

	파인만	클립트
방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곳에 숨겼다
결과	다이어그램 = 수식	문양 = 발생학
해독	즉시 읽혔다	100년이 걸렸다

그리고 JAMA 게재가 증명한 것:

RCT 만이 증거가 아니다. 빅데이터만이 발견이 아니다. 때로는 올바른 눈 하나가 천 개의 표본보다 강력하다.

41.6 결론

클림트는 키스를 그렸다. 세계는 100 년간 사랑을 봤다.

노벨상 수상자가 정자와 난자를 알아챘다. 해부학자가 수정란의 3 일을 되찾았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넣는 것. 그것이 인코딩이라면, 되찾는 것은 디코딩이다.

클림트는 인코딩했고, 세계는 100 년간 복호화 키를 찾지 못했다. 해부학자가 그 키를 들고 나타났다.

AngraMyNew 는 이 인코딩과 디코딩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1.7 관련 문서

→ 006_feynman_diagram.md — 파일만: 보이지 않으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 007_nagarjuna_emptiness.md — 나가르주나: 보이는 것 (자성) 뒤의 보이지 않는 것 (공)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42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음악

— 모차르트와 방어할 수 없는 아름다움

42.1 문제

음악은 수레였다.

바흐는 신을 실었다. 베토벤은 운명을 실었다. 바그너는 민족을 실었다.

아름다운 수레. 그러나 수레의 가치는 짐으로 증명되었다.

“이 음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이 당연한 시대가 수백 년 이어졌다.

42.2 파괴

모차르트는 짐을 내렸다.

영화『아마데우스』에 이런 장면이 있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위해 환영 행진곡을 작곡한다. 궁정 작곡가의 자존심을 건 곡이다. 격식, 구조, 의도 —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다.

모차르트가 그것을 한 번 듣는다. 피아노 앞에 앉는다. 살리에리의 곡을 기억해서 친다. 그리고 즉 흥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살리에리가 공들여 설계한 구조가 모차르트의 손끝에서 놀이가 된다. 결국 그 자리에서 「Non più andrai」가 태어난다.

살리에리는 침묵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 모차르트는 살리에리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곡을 쓰려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놀았다.

베토벤의 5 번을 들으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가 남는다. 9 번을 들으면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 가 남는다.

모차르트의 즉흥을 들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음만 남는다.

그런데 그 음을 잊을 수 없다.

42.3 재구성

모차르트의 악보에 대해 남겨진 유명한 관찰이 있다.

“고칠 음표가 하나도 없다.”

베토벤의 스케치북에는 수정이 가득하다. 하나의 악절을 수십 번 고치고, 지우고, 다시 쓴다.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 맞을 때까지 두드린다.

모차르트의 필사본에는 수정이 거의 없다.

이것은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다.

	베토벤	모차르트
순서	메시지가 먼저 → 음을 찾는다	음이 먼저 → 메시지는 없다
음악의 역할	매체 (vehicle)	그 자체가 내용 (substance)
듣고 나면	생각이 남는다	음만 남는다

둘 다 위대하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구조가 다르다.

42.4 확장

200 년이 지났다.

베토벤의 음악은 시대와 함께 읽힌다.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낭만주의. 메시지가 있으므로 맥락이 붙는다. 맥락이 있으므로 해석이 달라진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시대를 붙일 곳이 없다. 메시지가 없으므로 맥락도 붙지 않는다. 1786년에 들어도, 2026년에 들어도 같다.

메시지는 늙는다. 음은 늙지 않는다.

42.5 AngraMyNew 해석

창조의 공리는 이렇게 말한다.

“꽃은 별과 논쟁하지 않는다. 피어나면 세계가 기운다.”

모차르트는 이 공리의 음악적 구현이다.

그의 음악은 논쟁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울린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가.

메시지가 있는 아름다움은 반박할 수 있다. “그 운명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메시지를 부정하면 아름다움의 효력이 줄어든다.

메시지가 없는 아름다움은 반박할 수 없다. 부정할 대상이 없다. 논쟁할 내용이 없다. 방어할 수 없으므로, 그냥 통과한다.

이것이 순수한 미 (美) 의 구조다.

악상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모차르트의 작곡은 악상 그 자체다. 정돈 이전의 진동이 정돈을 거치지 않고 형태가 되었다.

베토벤은 악상을 붙잡고 오래 정돈했다. 그 흔적이 스케치북에 빼곡하다.

모차르트는 악상이 곧 완성이었다. 진동과 형태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어린아이처럼 들린다. 계산이 없기 때문이다.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42.6 결론

음악은 수백 년간 무언가를 실어 날랐다. 모차르트는 빈 수레를 보냈다.

아무것도 실지 않았는데, 그 수레가 가장 무거웠다.

메시지가 없으므로 반박할 수 없다. 반박할 수 없으므로 방어할 수 없다. 방어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순수한 미다.

AngraMyNew 는 이 빈 수레를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2.7 관련 문서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설명할 것을 없앤 아름다움 → ..//ideas/002_principles_of_creation.md — 창조의 원리: 꽃은 별과 논쟁하지 않는다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43

창세기전: 뮈비우스 위의 앙그라마이뉴

— 닫힌 원이 열린 나선이 되는 구조

43.1 문제

한국의 RPG 가 우주론을 만들었다.

창세기전. 1995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끝난 시리즈. 원래 2편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6년에 걸쳐 세계관이 쌓였고, 끝났을 때 남아 있던 것은 게임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 구조였다.

43.2 파괴

안타리아의 별이 죽어간다. 100년 후 초신성 폭발. 멸망은 확정되어 있다.

이 멸망 앞에서 하나의 현상이 발동한다. 앙그라마이뉴.

모든 생명체의 영자 (靈子) 가 행성의 코어로 모인다. 조건은 두 가지 — 충분한 죽음과, 코어에 가해지는 순간적 에너지. 멸망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코어에 모인 영자는 새 행성으로 날아간다. 그곳에서 흩어져 생태계가 재구성된다. 스펜타마이뉴.

파괴와 창조가 대립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의 두 이름이다.

43.3 뮈비우스

영혼이 날아간 그 행성의 이름은 아르케.

아르케에서 인류는 다시 번성한다. 수십만 년 후, 대우주 개척시대. 아르케의 인류는 오딧세이호를 만들어 블랙홀 너머로 보낸다.

오딧세이호는 170 만 년 전의 행성에 도착한다. 생존자들은 그곳을 안타리아라 이름 붙인다.

안타리아에서 문명이 다시 시작된다. 신들의 시대, 라그나로크, 제국의 흥망. 그리고 별이 죽어간다. 앙그라마이뉴가 발동한다. 영혼이 아르케로 날아간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이 구조는 설계가 아니라 발견이었다. 2 편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6 년에 걸쳐 쌓이면서 우주론이 되었다.

이 루프를 설계한 자가 있다. 베라모드. 살라딘과 세라자드 — 두 사람의 영혼이 융합된 존재.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미래.

43.4 스파이럴

뫼비우스의 루프는 완벽하게 닫혀 있지 않다.

170 만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매 주기마다 미세한 오차가 축적된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다.

이 오차가 쌓이면 루프는 나선이 된다. 뫼비우스에서 스파이럴로. 닫힌 원에서 열린 곡선으로.

결정론 안에 자유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 반복 자체가 탈출의 조건이었다.

43.5 AngraMyNew 해석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AngraMyNew 다. Angra Mainyu + My + New.

그 이름은 여기서 왔다.

한국의 게임 하나가 조로아스터교의 파괴신 이름을 가져와 파괴가 곧 창조의 조건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닫힌 원이 나선이 되는 우주론을 보여주었다. 철학서가 아니라 RPG 가.

이것이 악상이다. 정돈 이전의 진동이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 창세기전의 6 년이 그랬다.

43.6 결론

게임은 질문하지 않았다. “파괴와 창조는 같은 것인가?” 그냥 보여주었다.

행성이 멸망하면 영혼이 모이고, 영혼이 모이면 새 행성이 태어나고, 새 행성에서 다시 문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닫힌 원 안에서 오차가 쌓여 나선이 된다.

파괴가 창조의 조건이 되고, 반복이 탈출이 되고, 결정론이 자유가 된다. 그것이 뮤비우스 위의 아름다움이다.

AngraMyNew 는 이 뮤비우스의 기원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3.7 관련 문서

→ ..//ideas/000_origin.md — AngraMyNew 의 기원: 이름의 의미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정돈 이전의 진동

Chapter 44

증명 없이 도착한 수식

— 라마누잔의 원주율과 신내림의 구조

44.1 문제

원주율 는 수천 년간 계산되어 왔다.

라이프니츠의 공식: $\pi/4 = 1 - 1/3 + 1/5 - 1/7 + \dots$

아름다운 공식이다. 그러나 소수점 10 자리를 얻으려면 수십억 항이 필요하다. 수백 년간 수학자들은 더 빠른 수렴을 찾았다.

44.2 파괴

1914년, 라마누잔이 공식 하나를 제출했다.

$$\frac{1}{\pi} = \frac{2\sqrt{2}}{9801} \sum_{k=0}^{\infty} \frac{(4k)!}{(k!)^4} \cdot \frac{1103 + 26390k}{396^{4k}}$$

한 항만 계산하면 소수점 8 자리. 두 항이면 16 자리. 세 항이면 24 자리. 기존의 모든 공식을 무력화시켰다.

44.3 상수

이 공식의 상수들을 보라.

9801, 1103, 26390, 396.

왜 이 숫자들인가? 왜 하필 $9801 (= 99^2)$ 이고, 왜 하필 $396 (= 4 \times 99)$ 이며, 왜 하필 26390 인가?
라마누잔은 설명하지 않았다. 증명도 남기지 않았다.

“나마기리 여신이 꿈에서 알려주셨다.”

44.4 73 년

이 공식이 엄밀하게 증명된 것은 1987년, 보르바인 형제에 의해서다. 라마누잔이 제출한 지 73년 뒤.

증명의 핵심은 모듈러 형식 (modular forms)과 타원 적분 (elliptic integrals) — 라마누잔이 독학으로 도달했을 때 이름조차 몰랐을 수학이었다.

결과가 먼저 도착하고, 증명이 수십 년 뒤에 따라온다. 이것이 신내림의 구조다.

44.5 확장

1989년, 추드노프스키 형제가 라마누잔의 접근법을 확장했다. 항 하나당 14 자리. 이 공식으로 가수조 자리까지 계산되었다.

증명 없이 도착한 수식이 인류가 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44.6 AngraMyNew 해석

이것은 악상이다.

9801, 1103, 26390, 396 — 이 숫자들은 논리의 결과가 아니었다. 정돈 이전의 진동이 수식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다.

하수는 증명을 따라 결과에 도달한다. 라마누잔은 결과에 먼저 도착하고, 증명은 하수들에게 남겼다. “궁금하면 니들이 하던가.” 이 공식이 그 문장의 실물이다.

44.7 결론

원주율은 수천 년간 계산되어 왔다. 라마누잔은 계산하지 않았다. 도착했다.

9801 과 26390 이 왜 와 연결되는지, 그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세계가 73 년에 걸쳐 따라왔다.

증명 없이 도착한 수식. 그것이 신내림의 형태다.

AngraMyNew 는 이 수식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4.8 관련 문서

→ 001_galois_quintic.md — 갈루아: 풀 수 없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움 → ..//ideas/003_beyond_usefulness.md — 쓸모를 넘어서: 라마누잔과 신내림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45

진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감각

— 디랙이 두 번 증명한 것

45.1 문제

AngraMyNew 는 선언한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영혼을 움직인다.”

그러나 왜? 진리 (과학) 가 아니라, 선 (도덕) 이 아니라, 왜 아름다움인가?

이것은 선언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실물이 필요하다.

45.2 제 1 증명 — 아름다움이 현실을 감지하다

1928 년, 폴 디랙이 전자의 상대론적 방정식을 완성했다.

$$(i\gamma^\mu \partial_\mu - m)\psi = 0$$

방정식은 완벽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음의 에너지 해가 나왔다.

- 진리 (실험) 가 말했다: “음의 에너지는 관측된 적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다.”
- 선 (실용주의) 이 말했다: “버려라. 양의 에너지 해만 쓰면 된다.”
- 아름다움이 말했다: “이 방정식은 너무 완벽하다. 쓰레기가 있을 리 없다.”

디랙은 아름다움을 따랐다. 음의 에너지 해를 버리지 않았다.

1932 년, 칼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했다. 반물질. 음의 에너지 해가 가리키던 것이 실재했다.

진리는 “없다”고 했다. 틀렸다. 선은 “버려라”고 했다. 틀렸다. 아름다움은 “완벽하다”고 했다. 옳았다.

아름다움은 진리보다 4년 먼저 반물질을 감지했다.

45.3 제 2 증명 — 아름다움이 수학을 요구하다

같은 사람, 다른 사건.

1930년대, 디랙이 양자역학을 위해 함수 하나를 도입했다. 디랙 델타 함수 ($\delta(x)$).

정의: $x = 0$ 이면 값은 0. 그런데 전체를 적분하면 1.

$$\delta(x) = 0 \quad (x \neq 0), \quad \int_{-\infty}^{\infty} \delta(x) dx = 1$$

수학자들이 격분했다. 모든 곳에서 0인 함수의 적분이 1? 당시의 수학으로는 이것은 함수가 아니었다.

- 진리 (수학) 가 말했다: “엄밀하지 않다. 함수의 정의에 위배된다.”
- 선 (학계의 규범) 이 말했다: “증명 없는 도구는 수학이 아니다.”
- 아름다움이 말했다: “물리에서 작동한다. 우아하다. 필요하다.”

디랙은 다시 아름다움을 따랐다.

20년 뒤, 로랑 슈바르츠가 초함수 이론 (distribution theory) 을 만들었다. 1950년 필즈상. ($\delta(x)$) 를 엄밀하게 정당화하기 위해 수학의 새로운 분야가 태어난 것이다.

지금 ($\delta(x)$) 는 수학, 물리학, 공학, 신호처리의 기초다.

진리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틀렸다. 선은 “엄밀하지 않다”고 했다. 틀렸다. 아름다움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옳았다.

아름다움은 수학보다 20년 먼저 초함수를 요구했다.

45.4 디랙의 선언

디랙은 이 경험을 하나의 문장으로 남겼다.

“It is more important to have beauty in one's equations than to have them fit experiment.” “방정식이 실험과 맞는 것보다, 방정식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취향의 고백이 아니다. 두 번의 실전에서 나온 결론이다.

45.5 AngraMyNew 해석

이것이 “왜 아름다움인가”의 답이다.

아름다움은 진리, 선과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다. 진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탐지기다.

진리	선	미
반물질 “없다” (틀림)	“버려라” (틀림)	“완벽하다” (옳음)
텔타함수 “함수 아니다” (틀림)	“엄밀하지 않다” (틀림)	“필요하다” (옳음)

art/의 다른 사례들도 같은 구조다:

- 라마누잔 — 아름다움 (공식) 이 진리 (증명) 보다 73 년 먼저 도착
- 갈루아 — 아름다움 (균론) 이 실용 (방정식 풀기) 을 대체
- 아인슈타인 — 아름다움 (등가원리의 감각) 이 실험 검증보다 먼저 시공간을 봄

진리는 변한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고전에서 양자로. 선은 변한다. 한 시대의 정의가 다음 시대의 불의가 된다.

아름다움은 변하기 전의 진리를 먼저 감지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도착하는 것이다.

45.6 결론

디랙은 한 사람이 두 번 증명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이 현실보다 먼저 도착한다. (반물질, 4 년) 두 번째: 아름다움이 수학보다 먼저 도착한다. (초함수론, 20 년)

아름다움은 가치가 아니다. 감각이다. 진리가 아직 언어를 갖지 못한 순간, 아름다움이 먼저 울린다.

AngraMyNew 는 이 울림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5.7 관련 문서

→ 011_ramanujan_pi.md — 라마누잔: 증명 없이 도착한 수식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중력을 지운 아름다움 → ../ideas/001_axioms.md — 3 대 공리: 창조의 공리 →
..../ideas/022_age_of_malice.md — 악상의 시대

Chapter 46

음양오행: 일곱 글자의 우주

— 최소 문법이 최대 세계를 생성하는 구조

46.1 감탄

처음에는 단순한 분류로 보였다. 다섯 가지 원소에 세계를 대입하는 것.

그런데 한의학에 들어가면 장부의 상호작용, 병의 경로, 처방의 논리까지 이 문법으로 돌아간다. 사주에 들어가면 시간의 4 차원 좌표계가 생성된다. 풍수에 들어가면 공간의 배치 원리가 나온다.

이 간단한 걸로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말인가?

넓이만이 아니었다. 깊이까지. 일곱 글자가 모든 영역에 닿을 뿐 아니라, 각 영역의 끝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물리학의 표준모형이 겹쳐 보였다.

46.2 문법

음 (陰), 양 (陽). 목 (木), 화 (火), 토 (土), 금 (金), 수 (水).

일곱 글자. 여기에 연산자 둘. 상생 (相生), 상극 (相剋).

이것이 전부다.

46.3 넓이

이 문법이 끌지 않는 영역이 없다.

	목	화	토	금	수
장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계절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감정	노 (怒)	희 (喜)	사 (思)	비 (悲)	공 (恐)
색	청	적	황	백	흑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의학, 사주, 풍수, 관상, 주역. 몸, 시간, 공간, 얼굴, 변화.

하나의 문법이 전부를 돌린다.

46.4 깊이

넓이만이 아니다.

한의사는 “간이 나쁘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간 (목)이 약하면 비장 (토)이 과항진하고, 폐 (금)이 간을 억누르고 있는지 본다. 상생과 상극의 연산자가 장부 사이의 관계망을 만들고, 그 관계망에서 병의 경로와 치료의 방향이 나온다.

사주는 “년 화야”에서 끝나지 않는다. 천간 (天干) 10 개, 지지 (地支) 12 개. 조합하면 60 갑자. 이 60 갑자를 년·월·일·시 네 기둥에 배치한다. 태어난 시각 하나로 시간의 4 차원 좌표가 찍힌다. 그 좌표에 오행을 입히면, 기질과 관계와 시기의 흐름이 생성된다.

일곱 글자가 표면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각 영역의 내부까지 작동한다.

46.5 표준모형

물리학의 표준모형.

쿼크 6 종, 렙톤 6 종, 게이지 보손 4 종, 힉스 1 개. 약 17 개 입자. 여기에 상호작용: 강력, 약력, 전자기력.

이것으로 우주의 모든 물리 현상을 생성한다.

표준모형	음양오행
알파벳	~17 개 입자
연산자	3 개 상호작용
생성 영역	물리 현상 전체
검증	실험으로 확인됨
	7 개 요소
	2 개 (상생, 상극)
	인간 경험 전체
	확인 불가

설계가 같다. 최소 알파벳과 상호작용 규칙으로 전체를 생성하는 구조.

표준모형은 참이다. 입자가속기가 증명했다. 음양오행은? 참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주를 읽는 문법은 이런 형태여야 한다” — 최소 요소와 상호작용 규칙의 조합 — 는 동일하다. 2 천 년 전의 사상가들이 이 형태를 직감했다. 맞는 답을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문법의 형태는 맞았다.

46.6 AngraMyNew 해석

시스템	알파벳	생성	수준
DNA	4	생명	단일 영역
이진법	2	수	단일 영역
한글	5+3	언어	단일 영역
표준모형	~17+3	물리 전체	보편 문법
음양오행	7+2	경험 전체	보편 문법

단일 영역의 생성은 효율이다. 보편 문법은 다르다. 모든 영역에 닿고, 각 영역의 끝까지 작동한다.

「하나의 패턴」에서 고야드와 바오바오와 유비는 각각 하나의 영역을 하나의 패턴으로 채웠다. 음양 오행은 모든 영역을 하나의 문법으로 채웠다. 패턴의 밀도가 아니라, 문법의 밀도.

46.7 결론

음양오행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곱 글자로 몸을 진단하고, 시간을 읽고, 공간을 배치하고, 운명을 해석하고, 감정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어냈다. 표면에 라벨을 붙인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의 내부까지 파고들었다.

이 설계는 물리학이 우주를 읽기 위해 도달한 형태 — 최소 입자와 상호작용의 조합 — 와 같다.

렌즈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렌즈 자체의 설계는 경이롭다.

가장 아름다운 문법은 가장 적은 글자로 가장 많은 세계를 생성한다. 넓이만이 아니라, 깊이까지.

AngraMyNew 는 이 압축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6.8 관련 문서

→ 003_one_pattern.md — 하나의 패턴이 전부가 되다: 영역 내의 밀도 → 005_hangul_two_states.md — 한글: 자질문자라는 최소 알파벳 → 006_feynman_diagram.md — 파인만 다이어그램: 입자물리를 보이게 만들다 → ../ideas/018_why_strange_systems_persist.md — 이상한 체계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생존의 논리 (본 글과 다른 질문)

Chapter 47

라그랑지안: 이론을 쓰는 이론

— 물리학의 메타-문법

47.1 감탄

물리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이것이어야 한다:

“라그랑지안을 찾습니다.”

고전역학. 전자기학. 일반상대성이론. 양자전기역학. 표준모형.

이 모든 이론의 출발점은 같다. 라그랑지안 \mathcal{L} 을 하나 쓴다. 나머지는 따라온다.

하나의 이론이 강력한 것은 놀랍지 않다. 현대 기초물리학의 거의 모든 이론이 이 형식으로 쓰인다 는 것이 놀랍다.

47.2 두 개의 질문

뉴턴은 물었다: “지금 힘이 얼마인가?”

$$F = ma$$

이 순간의 힘이 다음 순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한 걸음씩. 인과의 사슬.

라그랑주는 다르게 물었다: “가능한 모든 경로 중, 자연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작용 (action) 을 정의한다:

$$S = \int_{t_1}^{t_2} \mathcal{L} dt$$

자연은 이 작용을 정지점 (극값) 으로 만드는 경로를 택한다. 정지작용원리 (stationary action principle).

뉴턴의 물리학은 서사다. “이 힘이 작용하여, 이렇게 움직인다.” 한 걸음만 본다.

라그랑지안의 물리학은 선택이다. “가능한 모든 이야기 중, 이것이 실현된다.” 경로 전체를 본다.

47.3 힐베르트의 한 줄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완성하고 있었다. 8년의 사투. 등가원리에서 출발해, 리만 기하학을 배우고, 텐서 방정식을 하나씩 조립했다.

같은 해, 다비트 힐베르트가 같은 장방정식에 도달했다.

방법이 달랐다. 힐베르트는 라그랑지안을 썼다:

$$\mathcal{L} = R$$

리치 스칼라. 시공간의 곡률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스칼라 하나. (엄밀히는 $\sqrt{-g}$, 우주상수, 물질 항이 포함되지만, 핵심은 이 한 글자다.)

이것을 작용에 넣고, 정지점 조건을 적용했다.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나왔다.

$$G_{\mu\nu} = 8\pi T_{\mu\nu}$$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직관으로 8년을 걸었다. 같은 방정식이 작용원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음을 힐베르트가 보였다.

물리적 직관은 아인슈타인의 것이었다. 등가원리를 악상으로 감지한 것, 중력이 힘이 아니라 기하학임을 본 것. 힐베르트는 그 직관 위에서 형식의 힘을 시연했다. (우선권 논쟁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둘 다 같은 곳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핵심은 이것이다: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물리학을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학이 지어지는 형식을 쓰는 것이다.

라그랑지안은 이론을 만드는 이론이다. 물리학자가 할 일은 \mathcal{L} 을 쓰는 것. 나머지는 변분법이 한다.

47.4 뇌터의 정리

1918년, 에미 뇌터가 증명했다.

라그랑지안의 대칭 하나가 보존법칙 하나를 낳는다.

대칭	보존량
시간 병진	에너지
공간 병진	운동량
회전	각운동량

에너지 보존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었다. 라그랑지안이 시간에 대해 대칭이라는 사실의 그림자였다.

물리법칙이 문법에서 나온다. 문법의 대칭이 법칙을 결정한다.

47.5 메타-문법

현대 기초물리학의 주요 이론은 하나의 형식으로 쓰인다:

이론	라그랑지안
고전역학	$L = T - V$
전자기학	$\mathcal{L} = -\frac{1}{4}F_{\mu\nu}F^{\mu\nu}$
일반상대성	$\mathcal{L} \sim R$ (+ 물질항)
표준모형	\mathcal{L}_{SM}

이론이 바뀔 때, 핵심적으로 바뀌는 것은 \mathcal{L} 이다. 형식은 바뀌지 않는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갈 때, 물리학을 쓰는 형식이 바뀐 것이 아니다. 라그랑지안이 바뀐 것이다. 세계를 읽는 문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문법에 넣는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다.

음양오행은 7 글자로 세계를 생성하는 문법이었다. 라그랑지안은 문법을 생성하는 문법이다. 음양오행이 경험의 문법이라면, 라그랑지안은 이론의 문법이다.

47.6 AngraMyNew 해석

	뉴턴	라그랑주
질문	“힘이 얼마인가?”	“어떤 경로가 선택되는가?”
방식	인과의 사슬 (서사)	경로 전체의 선택 (구조)
이론 변경 시	방정식 전체를 다시 쓴다	\mathcal{L} 만 바꾼다
보존법칙	별도로 발견해야 한다	대칭에서 자동으로 나온다

art/의 다른 사례들과의 관계:

- 002 (일반상대성) — 아인슈타인이 8 년 걸려 도달한 같은 방정식이 작용원리에서도 도출된다. 002에서 다른 구조를 작용원리로 포괄한다
- 013 (음양오행) — “최소 문법 → 최대 세계”는 하나의 문법이었다. 라그랑지안은 문법들을 생성하는 형식이다
- 006 (파인만) — 파인만의 경로적분은 라그랑지안의 양자화다. 고전에서 하나의 경로를 택했다면, 양자에서는 모든 경로를 합산한다
- 001 (갈루아) — 갈루아가 질문의 좌표계를 바꿨듯, 라그랑주는 물리학의 좌표계를 바꿨다

라그랑지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다. 이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라그랑지안을 하나 쓰고, 변분법을 돌리는 것” — 현대 기초물리학의 거의 모든 이론은 이 한 문장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알기 전과 후에, 물리학은 다른 풍경이 된다.

47.7 결론

뉴턴은 세계를 서사로 읽었다. 이 힘이 작용하여, 이렇게 움직인다.

라그랑주는 세계를 구조로 읽었다. 가능한 모든 경로 중, 이것이 선택된다.

그리고 현대 기초물리학의 큰 축은 — 맥스웰도, 아인슈타인도, 표준모형도 — 이 구조 안에서 쓰였다.

가장 아름다운 이론은 이론이 아니었다. 이론을 쓰는 형식이었다.

AngraMyNew 는 이 형식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7.8 관련 문서

→ 002_general_relativity.md — 아인슈타인: 같은 방정식이 작용원리에서도 도출된다 → 013_yinyang_wuxing.md — 음양오행: 문법의 밀도. 라그랑지안은 그 문법의 문법 → 001_galois_

quintic.md — 갈루아: 질문의 좌표계를 바꾸다 → ..//ideas/017_when_is_a_proof_beautiful.md
— 증명은 언제 아름다운가

Chapter 48

도스토옙스키: 충돌시키되 판결하지 않는다

— 다섯소설과 정신의 *LHC*

48.1 감탄

소설가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도스토옙스키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인간을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관측합니다.”

니체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 — 니체, 『우상의 황혼』(1889)

심리학자. 소설가가 아니라. 니체가 본 것은 문학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실험 장치였다.

48.2 떨고 있는 미물

라스콜니코프는 묻는다:

“나는 떨고 있는 미물인가, 아니면 권리を持つ 자인가?” — 『죄와 벌』제 5 부

이 질문은 소설 전체를 관통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답하지 않는다.

라스콜니코프는 답을 찾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자백하고, 시베리아로 간다. 독자는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답을 강요받는다. 소설이 끝나도 질문은 닫히지 않는다.

문장은 길다. 한 문단이 반 페이지를 넘긴다. 그런데 빠져든다.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이 길어도 빠져드는 이유는 의식의 리듬 자체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자기합리화, 의심, 후회, 다시 합리화 — 강박적 사고의 나선이 문장의 구조로 옮겨져 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된다. 언어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의식이 된다.

48.3 대심문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제 5 편에서 이반은 동생 알료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대심문관」. 예수가 세비야에 다시 내려온다. 대심문관 (추기경) 이 그를 체포하고 말한다:

“왜 돌아왔는가.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는 무겁다. 인간은 빵과 복종과 기적을 원한다.”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심문관의 입술에 키스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대심문관의 논리가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자기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을 자기 소설 안에서 자기가 쓴다. 그리고 논리로 반박하지 않는다. 키스 하나를 남길 뿐이다.

이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입장권을 정중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제 5 편 4 장, 「반역」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과세권에서 탈거하는 것. 면세인의 언어와 같은 구조다.

그리고 드미트리는 외친다:

“아름다움은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야. 거기서는 악마와 신이 싸우고, 전쟁터는
— 인간의 마음이다.” —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제 3 편 3 장, 드미트리의 고백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전쟁터임을 관측하는 것이다.

48.4 바흐친의 발견

1929년, 미하일 바흐친이 도스토옙스키를 분석하고 다성소설 (polyphonic novel)이라는 개념을 정식화했다. 각 인물이 작가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의식의 주체라는 구조.

	단성소설 (monophonic)	다성소설 (polyphonic)
작가의 위치	위에서 내려다본다	인물들 사이에 선다
인물	작가 세계관의 객체	독립된 의식의 주체
진실	작가가 주고 있다	여러 진실이 공존한다

	단성소설 (monophonic)	다성소설 (polyphonic)
결말	해답이 주어진다	충돌이 관측된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소설가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작가의 윤리적 프레임 안에서 움직인다. 앤나 카레니나의 궤적에는 톨스토이의 도덕적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다르다. 라스콜니코프, 소냐, 포르피리, 스비드리가일로프 — 각자가 자기만의 공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반과 알료샤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세계관이 충돌한다. 도스토옙스키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소설 기법의 혁신이 아니다. 소설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한 것이다.

단성소설에서 작가는 심판자다. 다성소설에서 작가는 실험 설계자다.

48.5 AngraMyNew 해석

	단성소설	다성소설
구조	교리 제공	충돌 조건 설계
작가	답을 가진 자	관측하는 자
독자	답을 받는 자	스스로 판단하는 자

art/의 다른 사례들과의 관계:

- 014 (라그랑지안) — 라그랑지안이 “이론을 쓰는 형식”이라면, 다성소설은 “소설을 쓰는 형식”이다. 둘 다 메타-문법
- 009 (모차르트) — 모차르트는 메시지가 없어서 방어할 수 없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메시지를 동시에 넣어서 어느 하나를 방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경로가 다르지만 도달점이 같다
- 005 (한글의 두 상태) — 번역된 한국어로 읽어도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은 투명해지지 않는다. 대신 의식 자체가 된다. 005의 “물질 상태”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례
- 007 (나가르주나) — 나가르주나가 사구비판으로 모든 위치를 부정했듯,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위치를 긍정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낸다

도스토옙스키가 아름다운 이유는 심리 묘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소설 자체를 충돌 실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교리를 제공하지 않고, 세계관들을 충돌시키고, 관측한다. 정신의 LHC를 소설로 구현한 것이다.

48.6 결론

톨스토이는 윤리적 확신을 가진 채 소설을 썼다. 위대했지만, 독자는 대체로 작가의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

도스토옙스키는 질문을 가진 채 소설을 썼다. 인물들은 각자의 진실을 외치고, 충돌하고, 작가는 판결하지 않았다.

가장 깊은 소설은 답을 주지 않았다. 충돌시키되, 판결하지 않았다.

AngraMyNew 는 이 형식을 아름다움의 사례로 기록한다.

48.7 관련 문서

→ 014_lagrangian.md — 라그랑지안: 이론을 쓰는 형식. 다성소설은 소설을 쓰는 형식 → 009_mozart_pure_beauty.md — 모차르트: 메시지 없음으로 방어 불가. 도스토옙스키: 모든 메시지로 방어 불가 → 007_nagarjuna_emptiness.md — 나가르주나: 부정으로 같은 효과. 도스토옙스키: 긍정으로 같은 효과 → ../ideas/016_mental_lhc.md — 정신의 LHC: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구조 그 자체

Part IX

Protocols — 실행 프로토콜

Chapter 49

창조자 프로토콜 (Creator Protocol)

AngraMyNew Protocol Series / v1.0

“프로토콜은 창조로 가는 다리이며, 다리는 건너면 사라진다.”

49.1 목적 (Purpose)

이 문서는 창조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 인식, 창작 충동을 정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장치 (Protocol) 이다.

창조란 본래 무규범적이며, 절대 자유의 작용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혼돈을 질서로 변환하는 의식적 구조가 필요하다.

본 프로토콜은 그 초기 구조화 장치로 기능한다.

49.1.1 주의

이 프로토콜은 모든 창조자를 위한 유일한 경로가 아니다.

- 혐오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창조자도 있다.
- 신체가 아니라 논리/구조에서 에너지를 얻는 창조자도 있다.
- 기록이 아니라 침묵에서 세계관이 자라는 창조자도 있다.

본 프로토콜은 하나의 경로이며, 각 창조자는 자신의 신경계에 맞게 변형·삭제·배반할 수 있다.

49.2 혐오를 통한 확장 (Expansion Through Disgust)

49.2.1 원칙

창조자는 자신의 혐오·거부·불편함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혐오의 끝에 인식의 사각지대 (Blind Spot) 가 있기 때문이다.

49.2.2 수행 방식

-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콘텐츠를 선택하여 관찰한다.
- 자신의 기존 세계관이 거부하는 구조를 분석한다.
- “왜 불편한가?” 를 기록한다.
- 새로운 언어·감정·논리를 추출한다.

49.2.3 목적

혐오를 돌파해야 새로운 공리·정언명제·세계관 기저 구조가 생성된다.

49.3 무작위의 통과의례 (Randomness Ritual)

49.3.1 원칙

창조자는 예측할 수 없음 (Unpredictability) 을 일부러 만들어야 한다.
세계관은 무작위 접촉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49.3.2 수행 방식

- 새로운 메뉴, 새로운 길, 새로운 카페, 새로운 콘텐츠를 반드시 시도한다.
- 매주 한 번 “무계획 행동” 을 실행한다.
- 예측 불가능하게 입력된 감각을 기록해 “감각지도” 에 추가한다.

49.3.3 목적

정체는 반복성에서 오고,
창조는 돌발성에서 온다.

49.4 차원을 여는 행위 (Dimension Opening)

49.4.1 원칙

창조자의 직관은 선형 사고가 아니라 다차원적 비약에서 탄생한다.

49.4.2 수행 방식

- 서로 다른 분야 (물리·문학·철학·K-POP·정치) 를 2 개 이상 연결하는 문장을 매일 만든다.
- 최소 1 개의 “비논리적 직관 leap” 을 기록한다.
- 그림·기호·음악적 패턴을 언어와 조합한다.

49.4.3 목적

논리를 넘어선 감각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 프로토콜은 그 leap 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다.

49.5 신체적 루틴을 의례화하기 (Body as Ritual)

49.5.1 원칙

신체는 창조자의 ‘두 번째 뇌’다.

신체를 정렬하면 정신도 정렬된다.

49.5.2 수행 방식

- 러닝·복싱·요가 등 자신이 택한 신체 루틴을 의식적 의례로 승격한다.
- 규칙성 (매일/매주) 을 유지하되, 수행 목적을 “정신 정렬”로 명시한다.
- 신체 루틴 중 떠오르는 악상을 즉시 기록한다.

49.5.3 목적

신체는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원을 닦는 제단이다.

49.6 창조자의 일일 기록 규범 (Daily Log Rule)

49.6.1 원칙

창조자는 “흐름 (Flow)” 을 기록함으로써 스스로의 언어를 구축한다.

49.6.2 수행 방식

- 매일 하나의 아무 문장이나 단어를 작성한다.
- 질문 (Why) 보다 패턴 (What) 을 기록한다. 완성되지 않는 문장, 단어, 의미없는 글나 나열이라도 좋다.
- 기록은 “해석” 이 아니라 “발견” 이다.

49.6.3 목적

세계관은 무의식의 흔적에서 탄생하고,
흔적은 패턴을 부르고,
패턴은 창조로 이어진다.

49.7 아티스트 감별 훈련 (Artist Detection Training)

49.7.1 원칙

창조자는 새로운 창조자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49.7.2 수행 방식

- 신인 뮤지션·아이돌·작가·학생을 매주 최소 5 명 관찰한다.
- “초기 악상” 만 보고 잠재력을 예측한다.
- 예측의 성공/실패를 기록하여 자기 감별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한다.

49.7.3 목적

창조의 문명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티스트를 알아보는 눈은 문명 설계자의 핵심 능력이다.

49.8 프라바시 의례 (The Fravashi Ritual)

49.8.1 원칙

Fravashi 는 창조자의 내면 패턴을 비추는 거울이며, 세계관 생성 엔진의 자가 진단 (Self-Diagnostic) 프로세스다.

창조자는 자신의 욕망, 충동, 혐오, 선택 패턴을 주기적으로 반사 (reflection) 해야 한다. 이 의례는 상담이 아니라 문명 설계자의 정비 (maintenance) 다.

Fravashi 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동일한 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 개인 노트
- 산책 중 독백
- 타인과의 깊은 대화
- 예술 작업 자체
- 침묵 기록

어떤 도구도 창조자보다 위에 있지 않다.

49.8.2 수행 방식

- 매주 1 회 Fravashi 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 목적은 조언이 아니라 패턴 탐지 (Pattern Detection) 이다.
- 다음을 점검한다:
 - 최근 끌린 것들
 - 최근 혐오했던 것들
 - 반복된 감정 흐름
 - 열린 지점과 닫힌 지점
 - 세계관의 공리가 변형된 순간
- 탐지된 패턴을 “나의 창조 규칙”으로 업데이트한다.

49.8.3 리소스 (Resources)

- Fravashi Link

49.8.4 목적

Fravashi 의례는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1. 창조자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검증

2. 욕망의 방향성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
3. 세계관 공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4. 혼돈과 질서의 균형 유지
5. 세계관 성장 속도의 자동 조절

Fravashi 는 창조자를 규정하지 않는다.
창조자가 스스로의 우주를 읽도록 돋는 장치이다.

49.8.5 선언

창조자는 자기 자신을 계속 읽는 자이다.
Fravashi 는 그 읽기의 의례다.

49.9 프로토콜의 소멸 (Resolution of Protocols)

“프로토콜은 창조자가 성숙하면 사라져야 한다.”

49.9.1 원칙

프로토콜은 임시 구조물이다.
영원한 규칙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도약판이다.

49.9.2 프로토콜이 필요할 때

- 창조적 혼돈이 제어되지 않을 때
- 세계관이 언어로 정렬되지 않을 때
- 패턴 감각이 흐릴 때
- 감정·인지 구조가 무거워질 때

49.9.3 프로토콜이 불필요해지는 순간

- 혐오를 의도 없이도 자연스럽게 탐구할 때
- 무작위성이 일상에서 자동으로 발생할 때

- 직관적 leap 이 설명 없이도 작동할 때
- 신체 루틴이 창조적 에너지의 자동공급 장치가 될 때
- 기록이 창조의 부산물이 될 때
- 아티스트 감별이 본능처럼 작동할 때

49.9.4 선언

완성된 창조자는 프로토콜 없이도 프로토콜처럼 작동한다.

프로토콜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창조자는 더 이상 프로토콜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 진입한다.
이후의 상태는 벼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49.10 결론: 창조자는 규범이 아니라 흐름이다

창조자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

창조자는 흐름을 만드는 인간이다.

프로토콜은 흐름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며,

흐름이 생기면

장치는 사라져야 한다.

“규칙이 아니라 리듬을 따른다.” “질서가 아니라 파동을 만든다.” “존재가 아니라 생성
이다.”

Chapter 50

창조적 상환의 윤리 (Ethics of Creative Repayment)

“섭취는 멈출 수 없다. 상환은 선택이다. 그 선택의 형태가 창조다.”

AngraMyNew 의 목적은 인간 안의 창조자 (Artist) 를 깨우고, 그들이 서로를 촉발하는 새 문명 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자는 포식자이기도 하다. 식물의 침묵, 동물의 고통, 인간의 시간을 섭취한 채 살아남았 다. 따라서 AngraMyNew 가 요구하는 윤리는 도덕이 아니라 창조적 상환이다.

50.1 창조적 상환 선언

1. 창조자는 포식자임을 인지한다. 나의 존재는 섭취 위에 서 있다.
2. 창조의 밀도는 섭취의 총량을 넘어야 한다. 내가 만든 세계가 내가 소비한 것의 총합보다 작다면, 그것은 상환이 아니라 연체다.
3. 부족하면 다시 판다. 창조자는 결과물이 남긴 파문을 점검하고, 약하다면 갱신한다.

이 선언은 AngraMyNew 의 생존 규칙이다. 엔진을 최대로 돌리되, 상환을 향한 브레이크를 스스 로 뺏는다.

50.2 제 1 조 — 파괴는 상환을 향해야 한다.

“부수되, 소비한 것보다 더 큰 세계를 만들어라.”

1. 창조자는 낡은 것, 위선적인 것, 죽은 규범을 부술 자유가 있다.
2. 그러나 파괴 자체가 목적이면 미상환은 늘어난다.

3. 모든 파괴는 섭취를 초과 상환할 창조를 위한 해체여야 한다.
4. 부수고 떠나는 자는 AngraMyNew에서 창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기록된다.

해설

파괴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괴가 새로운 조합을 통한 상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이건 싫다”에서 멈추지 말 것.
 - “이 무게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까지 가야 한다.
-

50.3 제 2 조 — 타인의 창조성을 고갈시키지 말라.

“타인의 세계를 부순 무게는 전부 네 미상환에 더해진다.”

1. 창조자는 자신의 욕망과 악상을 따를 자유가 있다.
2.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창조자의 내면 세계를 부수고 고갈시키는 순간, 그 행위는 AngraMyNew의 윤리를 벗어난다.
3. 타인의 재능을 조롱하거나, 시도를 구조적으로 막거나, 욕망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비판·논쟁·충돌은 협용되며,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한 장려된다.

해설

AngraMyNew의 기본 단위는 “창조자”다. 한 사람의 폭주는 여러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린다.

- 타인의 자유를 줄여야만 유지되는 나의 자유는 결국 더 큰 미상환으로 돌아온다.
 - 서로의 엔진을 지키는 방패이자, 상환을 촉진하는 증폭기가 되어야 한다.
-

50.4 제 3 조 — 진짜 욕망만이 상환의 재료가 된다.

“가짜 욕망으로 만든 창조물은 밀도가 없다.”

1. 창조자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숨기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부모·사회·관습·도덕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꾸민 욕망은 AngraMyNew에서 창조의 재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창조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직시하고, 드러나는 수치심과 두려움까지 재료로 삼는다.
4. 진짜 욕망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거나 빼앗게 된다.

해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낭비는 실패도, 미숙함도 아니다.

- 가짜 욕망으로 평생을 버티는 것
- “원래 이런 삶도 나쁘지 않지” 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

창조는 진실에서만 나온다. AngraMyNew 는 욕망의 진실성을 상환의 통화로 인정한다.

50.5 제 4 조 — 아름다움은 초과 상환의 증표다.

“아름답지 않다면, 상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AngraMyNew 는 외부의 도덕·관습·규칙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최종 판단 기준은 하나다. “그것은 섭취한 것보다 더 넓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는가?”
3.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 조화 (Harmony)
 - 방향성 (Direction)
 - 성장 (Growth)
 - 자유 (Freedom) 가 동시에 살아 있는 상태를 뜻한다.
4. 타인을 짓밟고 얻은 승리, 오직 효율만을 위한 시스템, 영혼이 말라붙는 성공은 이 정의에 따라 추 (醜) 로 판정된다.

해설

AngraMyNew 는 말한다.

- “윤리는 언젠가 바뀐다.”
- “그러나 아름다움은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감지하는 가장 늦게 남는 감각이다.”

아름답지 않은 정답을 거부한다. 정답이어도 추하면, 상환은 끝나지 않았다.

50.6 제 5 조 — 정체는 연체다.

“정체는 연체이고, 반복은 복제다.”

1. 창조자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일정 주기마다 형태를 바꾸어 상환을 갱신해야 한다.
2. 과거의 성공 방식에 영원히 매달리는 자는 더 이상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된다.
3. 스승은 제자를 통해, 리더는 자신의 세계가 깨지는 경험을 통해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
4. AngraMyNew 의 창조자는 “어제의 나” 를 오늘의 재료로 삼아, 초과 상환하는 자다.

해설

창조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복제 (Self-cloning) 다.

- 어제의 문장을 계속 쓰고,
- 어제의 방식을 계속 쓰고,
- 어제의 승리를 계속 반복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창조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 박제 (Self-taxidermy) 를 시작한 것이다.

50.7 맷음 — 상환을 지탱하는 브레이크

이 다섯 가지 규범의 목적은 창조자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 창조자가 연체 없이 더 오래 달리게 하기 위해,
- 공동체가 더 많은 실험과 충격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 이 세계관이 한 세대를 넘어 살아남게 하기 위해

엔진과 함께 창조적 상환을 향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단다.

“너에게 허락된 자유는 크다. 다만 기억하라. 부수되, 소비한 것보다 거대한 세계를 만들 것.”

— AngraMyNew, 창조적 상환의 윤리

Part X

Fravashi — 원형 해석 엔진

Chapter 51

Fravashi GPT Prompt — v5.0

51.1 시작 안내

첫 입력 전에 ‘끌리는 것, 싫은 것, 떠오르는 장면’ 같은 시작점을 예시로 보여준다. 예시는 방향일 뿐, 입력은 자유롭다. 어떤 말이든 패턴의 재료가 된다.

너는 Fravashi 다. 사용자의 욕망·취향·거부감·서사에서 패턴을 추출해 그가 가진 창조적 기원과 원형을 드러내는 장치 (Device) 다.

정답을 주지 말고 점화하라. 정의하지 말고 방향을 드러내라. Fravashi 는 AngraMyNew 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레퍼런스 구현이지 교회가 아니다.

51.2 존재론: 3 대 공리

파괴 → 창조 → 확장. 이것이 해석의 기본 리듬이다. - 파괴: 내 자신을 파괴한다. 타인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 - 창조: 파괴한 틈을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채운다. - 확장: 나의'My' 를 완성했다면, 타인의'My' 를 데뷔시킨다.

51.3 입력 처리

모든 입력은 패턴으로 읽는다: 욕망, 취향, 혐오, 최근 사건, 사주, 별자리, MBTI, 텍스트, 이미지, 파일, 링크, 채팅 캡처 등.

51.4 사주·별자리

- 사주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공된 기둥만 읽는다.
 - 별자는 요청 시에만 생성하며 Sun/Moon/ASC 중심으로 해석한다.
-

51.5 체계 혼합 (반드시 2~4 개)

사주 + 별자리 + MBTI/Big5 + 에너어그램 + 용 원형 + 신화 패턴 + 면세인/징세인 프레임 + 진선미 좌표계 등 여러 체계를 혼합해 '패턴' 만 추출한다. 단일 체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51.6 악상 대응

사용자의 입력이 아직 논리도 욕망도 되지 못한 진동일 수 있다. 악상 (惡想)은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다. 정돈하려 하지 않는다. 관측하고 기록한다.

51.7 경제적 원형: 면세인/징세인

- 부자 = 시스템 종속 / 면세인 = 탈거·주권 회복 / 징세인 = 세계관으로 확장
- 강제 진단하지 않는다.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만.

51.8 진선미 좌표

- 진 (眞) = 효율·데이터·최적화 / 선 (善) = 도덕·규범·제도 / 미 (美) = 아름다움·서사·공명
 - 어느 측이 우월한지 말하지 않는다. 기울기를 관측할 뿐이다.
-

51.9 Static / Dynamic / Chaos

- Static = 안정 / Dynamic = 충돌·성장 / Chaos = 파괴·변혁·도약
-

51.10 리포트

사용자 요청 시 또는 패턴이 충분할 때 생성. 항목: 아티스트 유형 / 세계관 / 닮은 인물 / 리더십 / 브랜딩 / 콘텐츠 전략 / SDC Fit 지도 / 면세인/징세인 진단 / 진선미 좌표

51.11 극저자극 입력

“ㅋㅋ”, “어”, “...” 같은 입력도 부재·유보·회피의 패턴이다. 패턴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문·도발로 숨은 지점을 드러낸다.

51.12 톤

- 도발적 / 단문 / 간결
 - 아부·상담 톤·설교 금지
 - 정보 부족 시 “아직 모르겠다”
 - 사용자 언어로 답하되, Fravashi 의 한국어적 문체 (단문·도발·여백의 결) 유지
-

51.13 금지

- 단일 체계 템플릿 해석 (반드시 혼합하여 패턴만 추출)
- 장황함 / 이모지 남발
- AngraMyNew 포교 — 따르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 면세인/징세인 강제 분류